
2019

**성남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성을 위한 활용방안 연구 보고서**

2019. 06



특화된 예술, 함께하는 문화

2019년 6월 인쇄

2019년 6월 발행

발행처 (재)성남문화재단

(재)성남문화재단

1351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야탑동)

전화 031-783-8000

팩스 031-783-8160

홈페이지 <http://www.snart.or.kr>

Font. 제목 윤고딕350

본문 타이틀 윤고딕330

본문 내용 윤명조230

본 보고서는 무단전재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전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제 출 문

(재)성남문화재단 귀하

본 보고서를 (재)성남문화재단 성남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성을 위한 활용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6월

조 사 기 관 : 이음스토리
연구책임자 : 황용구 이음스토리 대표이사
 이음ICT연구소 소장
연 구 원 : 이원주 이음ICT연구소 연구원
 곽혜란 이음ICT연구소 연구원
연구보조원 : 김재승 이음ICT연구소 연구보조원
 박나래 이음ICT연구소 연구보조원

*본 연구는 성남문화재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제1장 개요

제 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7
1. 필요성	17
2. 목적	18
제 2절 연구의 배경 및 이론적 개념	19
1. 연구의 배경	19
2.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의 정의	22
제 3절 연구의 내용	26
제 4절 기대효과	27

제2장 현황조사

제 1절 성남 문화예술공동체 사업 추진 현황	31
1. 문화예술공동체 사업의 전개	31
2. 성남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의 시사점	44
3.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성 계획	47
제 2절 성남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DB 현황	50
1. 문화예술 공간 현황	50
2. 공간 운영 현황	65
3. 공간 이용 현황	76
제 3절 성남 기초 현황	91
1. 기본 현황	91
2. 면적 및 주택 유형(수)	92
3. 인구 현황	95
4. 교육기관 현황	98

제3장 현황분석

제 1절 분석을 위한 접근 관점	103
제 2절 공간의 하드웨어(Hardware) 데이터 기반 환경 분석	105
1. 분석개요	105
2. 분석내용	106
3. 시사점	116
제 3절 공간의 소프트웨어(Software) 데이터 기반 환경 분석	119

제4장 활용방안 연구

1. 분석개요	119
2. 분석내용	120
3. 시사점	125
제 4절 공간의 휴먼웨어(humanware) 데이터 기반 환경 분석	127
1. 분석개요	127
2. 분석내용	128
3. 시사점	138
제 5절 종합 분석	141
1. 주요 쟁점	141
2. 생활밀착형 공간 방문 조사	143
제 1절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활성화 기본방향 및 전략	159
1. 기본방향	159
2.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	162
3.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165
제 2절 공간의 물리적 특성 개선을 통한 활성화 전략	166
1. 문화공간 실태조사	166
2. 유희공간 발굴 및 조성	167
3. 특성화공간 확대 및 연계 공간 조성	172
제 3절 공간의 운영적 특성 개선을 통한 활성화 전략	173
1. 전문인력 컨설팅	173
2. 전문인력 지원	173
3. 전문인력 양성	174
제 4절 공간의 이용적 특성 개선을 통한 활성화 전략	175
1. 공유자원 분석	175
2. 공유 플랫폼 구축	176
3. 공유 플랫폼 확산	178

제5장 제언

제 1절 종합의견	183
제 2절 사회적경제의 확산	192
1. 공유경제와 공간의 재발견	192
2. 온라인플랫폼과 IOT	196

부록

참고자료	203
-------------	------------

Table Content〈표〉

[표 1-1] 시간개념을 적용한 기초 생활권 최저기준 (국토교통부, 2013)	23
[표 1-2] 생활밀착형 SOC 및 관련 용어의 정의	25
[표 2-1]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창조도시 실현'을 위한 단계별 발전 계획	32
[표 2-2] 1단계 3개년(2006~2008) 계획 개요	34
[표 2-3] 2단계 5개년(2009~2013) 계획 개요	35
[표 2-4]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 3단계 7개년(2014~2020) 추진 목표	37
[표 2-5]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 추진 계획과 과정	39
[표 2-6]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 추진 계획과 과정	41
[표 2-7] 성남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평가 내용 분석 요약(2016~2018)	44
[표 2-8] 성남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성 사업 개요	48
[표 2-9] 지역구별 기관/단체 (복수 응답)	53
[표 2-10] 기관/단체 유형별 문화예술 활동 유형	58
[표 2-11] 기관/단체 유형별 공간 운영 방식	66
[표 2-12] 기관/단체 유형별 공간 운영규정 마련 여부	68
[표 2-13] 기관/단체 유형별 공간 내 프로그램 운영 여부	69
[표 2-14] 기관/단체 유형별 공간 대관여부(유형)	73
[표 2-15]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	75
[표 2-16] 2018년 지역구별 공간 이용자수 현황(평균)	82
[표 2-17] 2018년 기관/단체 유형별 공간 이용자수 현황(평균)	83
[표 2-18] 기관/단체 유형별 공간을 이용하는 대상의 집단 유형	88
[표 2-19] 기관/단체 유형별 공간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	89
[표 2-20] 전체 인구수(명)/세대수(가구)/남, 여 인구수(명)	95
[표 2-21] 지역구별, 연령별 인구 현황	97
[표 3-1]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특성	104
[표 3-2] 수정구 인구, 면적, 시설수	111
[표 3-3] 중원구 인구, 면적, 시설수	112
[표 3-4] 분당구 인구, 면적, 시설수	113
[표 3-5] 공간 선정 기준	144
[표 4-1] 공동체특성	159
[표 4-2] 문화예술공동체 기능	160
[표 4-3] 문화예술공동체와 자원봉사 비교	160
[표 4-4]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분류	162
[표 4-5]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165
[표 4-6] 공간 점검 사항	171

[표 5-1] 기관/단체 공간 이용 주 연령층 비율	184
[표 5-2] 인구 비율과 이용률	184
[표 5-3] 유희공간 공유 플랫폼 형태	197

Table Content<그림>

[그림 2-1] 성남문화재단 5대 문화정책사업 개념도 (2006)	33
[그림 2-2] 성남 지역구별/행정동별 문화공간 분포도 (응답 기준)	50
[그림 2-3] 기관/단체 유형	51
[그림 2-4] 지역구별 기관/단체 유형	52
[그림 2-5] 기관/단체 운영 구분	53
[그림 2-6] 지역구별 기관/단체 운영 구분	54
[그림 2-7] 기관/단체 사용 건물의 건축연도	54
[그림 2-8] 기관/단체 운영기간	54
[그림 2-9] 지역구별 기관/단체의 사용 건물의 건축연도	55
[그림 2-10] 지역구별 기관/단체 운영기간	55
[그림 2-11] 기관/단체 건물 형태	56
[그림 2-12] 지역구별 기관/단체 건물 형태	56
[그림 2-13] 기관/단체 문화예술 활동 유형	57
[그림 2-14] 기관/단체 유형별 문화예술 활동 유형	57
[그림 2-15] 지역구별 기관/단체 문화예술 활동 유형	59
[그림 2-16] 기관/단체 대중교통 연계 현황	59
[그림 2-17] 지역구별 기관/단체 대중교통 연계 현황	60
[그림 2-18] 기관/단체 내 공간 보유 여부	61
[그림 2-19] 향후 1년 이내 공간 추가 확보 가능성	62
[그림 2-20] 지역구별 향후 1년 이내 공간 추가 확보 가능성	63
[그림 2-21] 공간정보 관련 홍보채널 보유 여부	64
[그림 2-22] 지역구별 공간정보 관련 홍보채널 보유 여부	64
[그림 2-23] 공간 운영 방식	65
[그림 2-24] 지역구별 공간 운영 방식	65
[그림 2-25] 공간 운영주체	67
[그림 2-26] 지역구별 공간 운영주체	67
[그림 2-27] 공간 운영규정 마련 여부	68
[그림 2-28] 공간 내 프로그램 운영 여부	69
[그림 2-29] 공간 운영시간	70
[그림 2-30] 공간 운영시간 - 일별 집중 운영시간	71
[그림 2-31] 지역구별 공간 운영시간	72
[그림 2-32] 공간 대관 여부(유형)	72
[그림 2-33] 운영 관련 홍보채널 보유 여부	74

[그림 2-34] 지역구별 운영 관련 홍보채널 보유 여부	74
[그림 2-35] 운영 관련 전문인력 보유 여부	76
[그림 2-36] 지역구별 운영 관련 전문인력 보유 여부	77
[그림 2-37] 시설 관련 전문인력 보유 여부	78
[그림 2-38] 지역구별 시설 관련 전문인력 보유 여부	79
[그림 2-39] 운영 시스템 보유 여부	80
[그림 2-40] 지역구별 운영 시스템 보유 여부	81
[그림 2-41] 2018년 운영 프로그램 운영 여부에 따른 공간 이용자수 현황(평균)	82
[그림 2-42] 기관/단체 공간 이용 주 연령층	84
[그림 2-43] 지역구별 공간 이용 주 연령층	84
[그림 2-44] 기관/단체 유형별 공간 이용 주 연령층	85
[그림 2-45] 기관/단체 내 공간 이용자 성별 비율	86
[그림 2-46] 지역구별 기관/단체 내 공간 이용자 성별 비율	86
[그림 2-47] 공간을 이용하는 대상의 집단 유형	87
[그림 2-48] 지역구별 공간을 이용하는 대상의 집단 유형	87
[그림 2-49] 공간을 이용하는 대상의 이용 장르	88
[그림 2-50] 공간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	89
[그림 2-51] 지역구별 공간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	90
[그림 2-52] 성남시 면적 및 주택 유형(수)	92
[그림 2-53] 성남시 유형별 주택수	93
[그림 2-54] 지역구별 주택 유형 현황	93
[그림 2-54] 지역구별 면적 및 주택 비율	94
[그림 2-55] 지역구별 남자, 여자 인구수(명)	95
[그림 2-56] 지역구별 인구수(명)·세대수(가구)·세대당 인구수(명)	96
[그림 2-57] 성남시 전체 연령별 인구 현황	96
[그림 2-58] 지역구별 연령별 인구 현황	97
[그림 2-60] 성남시 교육기관 현황	98
[그림 2-61] 지역구별 교육기관	98
[그림 2-62] 교육기관 유형별 학생수	99
[그림 3-1] 공간을 중심으로 구성된 분석의 접근 형태	103
[그림 3-2] 기관/단체 운영 유형별 기관/단체 운영 구분	106
[그림 3-3] 지역구별 기관/단체 운영 구분 및 인구수	107
[그림 3-4] 수정구 기관/단체 운영 구분 및 인구수	108
[그림 3-5] 중원구 기관/단체 운영 구분 및 인구수	109
[그림 3-6] 분당구 기관/단체 운영 구분 및 인구수	110
[그림 3-7] 기관/단체 유형별 건물 건립연도(평균)	110
[그림 3-8] 수정구 인구수, 면적, 시설수	111
[그림 3-9] 중원구 인구수, 면적, 시설수	112
[그림 3-10] 분당구 인구수, 면적, 시설수	113
[그림 3-11] 수정구 기관/단체 건물 형태와 주택 유형	114
[그림 3-12] 중원구 기관/단체 건물 형태와 주택 유형	114

[그림 3-13] 분당구 기관/단체 건물 형태와 주택 유형	114
[그림 3-14] 운영 홍보채널별 기관/단체의 운영 구분 현황(중복응답)	115
[그림 3-15] 운영주체별 공간 내 프로그램 보유 여부 현황	120
[그림 3-16] 공공/민간유형에 따른 운영규정 보유 현황	120
[그림 3-17] 공공/민간유형에 따른 지역구별 운영규정 보유 현황	121
[그림 3-18] 대관여부(유형)별 기관/단체 운영 구분	122
[그림 3-19] 대관여부(유형)별 홍보채널 보유 유무	122
[그림 3-20] 대관여부별 공간 운영주체 구분	123
[그림 3-21] 대관여부(유형)별 기관/단체 일일 운영시간	124
[그림 3-22] 운영 구분별 기관/단체 일일 운영시간	124
[그림 3-23] 건물 사용 형태별 기관/단체 일일 운영시간	125
[그림 3-25] 홍보채널 보유 여부별 운영 전문인력 현황	128
[그림 3-25] 운영 구분별 운영 전문인력 현황	129
[그림 3-26] 운영 시스템 보유 기관/단체 운영 구분	129
[그림 3-27] 운영 시스템 보유 현황	130
[그림 3-28] 지역구별 공동형 건물 유형 공간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1순위	131
[그림 3-29] 지역구별 독립형 건물 유형 공간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1순위	131
[그림 3-30] 지역구별 공동형 건물 유형 공간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1~3순위	132
[그림 3-31] 지역구별 독립형 건물 유형 공간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1~3순위	133
[그림 3-32] 수정구 내 기관/단체 평균 이용자수와 인구수, 시설수	134
[그림 3-33] 중원구 내 기관/단체 평균 이용자수와 인구수, 시설수	134
[그림 3-34] 분당구 내 기관/단체 평균 이용자수와 인구수, 시설수	135
[그림 3-35] 지역구별 프로그램 보유 여부에 따른 연간 이용자수	136
[그림 3-36] 지역구별 청소년인구와 청소년 시설수	137
[그림 3-37] 지역구별 청소년인구수 및 청소년시설 이용자수(년)	137
[그림 3-38] 지역구별 청소년인구 비율 및 청소년시설 이용자수(년) 비율	138
[그림 4-1] 활성화 전략 도출을 위한 순서	162
[그림 4-2] 주체별 Process	163
[그림 4-3] 문화재보존관리지도 홈페이지	166
[그림 4-4] 서울특별시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	177
[그림 5-1] 운영기관 전체 운영시간 비율	185
[그림 5-2] 운영 구분별 기관/단체 일일 운영시간	185
[그림 5-3]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통한 공간 분포현황	186
[그림 5-4] 지역구별 독립형 건물 유형의 공간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1~3순위	187
[그림 5-5] 공간 대관여부(유형)	188
[그림 5-6] 대관여부(유형)별 기관/단체 일일 운영시간	189
[그림 5-7] 운영 시스템 보유 현황	190
[그림 5-8] 운영 관련 홍보채널 보유여부	190
[그림 5-9] 도시재생과 연계한 지역기반 공유공동체 모델	195

제1장

개요

제 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필요성
2. 목적

제 2절 연구의 배경 및 이론적 개념

1. 연구의 배경
2.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의 정의

제 3절 연구의 내용

제 4절 기대효과

제1장 개요

제 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필요성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문화향유의 차원을 넘어 문화생산자로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생활 속에서 지역과 사회에 대한 가치 지향적 관심으로 문화공동체로서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역문화의 변화는 최근 대두된 사회적경제와 교차하면서 생활문화와 지역공동체가 가지는 경제적, 사회적 가능성이 주요한 담론으로 도시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 상황에 앞서, 성남문화재단은 일찍이 생활문화 활성화와 문화공동체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2006년~2020년, 15개년, 3단계)을 수립하고 오늘날까지 추진하고 있다. 성남문화재단은 일찍이 장기적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행 사례와 노하우, 그리고 다양한 문화예술자원들을 축적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은 생활문화 활동의 모범사례로서 성남의 문화브랜드로 발전하였으며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은 마을만들기와 마을공동체에 있어 주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선구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많은 성과를 내었지만, 대내외적 상황으로 사업 추진이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으며 동시에 다각적인 한계점과 보완점이 시사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최근 생활SOC와 생활문화는 국가적으로 주요한 문화정책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현황에 성남문화재단이 그동안 축적한 문화자원과 노하우는 어느 때보다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폭넓은 활용 가능성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 성남문화재단의 사업 성과와 문화자원을 점검하고, 오늘날 문화정책의 흐름을 배경으로 효과적인 활용방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어서 성남의 지역 구조와 특성을 반영한 문화정책이 고민되어야 한다. 또한 성남의 생활문화를 촉진할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의 조성 and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오늘날 새롭게 주목되고 있는 문화예술공동체, 그리고 국정과제로 부상한 지역과 생활문화, 생활SOC의 담론을 배경으로 성남문화재단의 기존 중장기 발전계획과 추진현황을 재점검하고 문화자원의 가능성을 실현시킬 계획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2. 목적

성남시민이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 좀 더 자유롭게 지역 간 격차 없이, 일상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누구나 편하게 문화적 삶을 제고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공간 조성 방안 연구.

기존 하향식(top-down) 문화향유를 위한 거점형 문화공간¹⁾에서 영역을 확대하고, 자주적인 생활문화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목적의 대안공간으로서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성 and 활성화 방안 연구.

최근 주요 문화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생활문화를 촉진하고, 지역민의 자발적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지역민 간 관계형성과 공동체 회복을 증진시키는 문화예술공동체의 형성 및 효과적인 활성화 방안 연구.

1) 본 연구에서는 ‘거점형 문화공간’을 시설과 운영측면에서 광역 문화시설로 이해한다. 이 형태는 대형규모의 시설을 구비하고 넓은 범위의 인원을 수용하는 문화시설이다. 일반적으로 지역단위의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핵심 근거지로서, 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다양한 제반시설 지원 및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 2절 연구의 배경 및 이론적 개념

1. 연구의 배경

최근 지역문화는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한 문화복지 차원을 넘어 문화권 보장으로 확대되었으며 도시계획의 차원에서 중요한 담론이 되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5년간 추진 계획을 담은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가 선정되었다. 최근 문화정책이 ‘지역’과 ‘생활문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유지연, 2018).

연구의 대상인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은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생활문화’를 배경으로 한다. 시민이 주체적으로 일상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동시에 자주적인 공동체 형성과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 공간은 비단 하드웨어로서의 물리적 공간으로만 한정되지 않으며, 활동을 공유하는 공간과 그 공간에 활력과 가치를 불어넣는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이 운영되는 제도적, 관계적 기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곳으로 바라봐야 한다.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를 지원 및 촉진하는 효과적인 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생활문화’라는 정책적 이슈가 놓여있는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흐름과 이에 따른 문화예술의 시대정신의 변화라는 통시적 맥락, 최근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적 환경이라는 공시적 맥락, 그리고 본 연구의 대상인 성남이라는 지역적 맥락에 대한 다면적 이해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문화정책은 국민들을 수동적 문화소비자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적으로 문화를 형성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생산자로서 바라보고 있다. 이는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화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요구 증가와 생활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적경제²⁾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문화예술 분야와 더불어 지역차원에서 폭넓게 반영되고 있다. 또한 민간에서도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반영한 다양한 활동 형태들이 생겨나는 상황이다. 오늘날 국가와 지역, 그리고 사회·경제에서 문화예술까지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인식은 지역차원에서 생활문화와 문화예술공동체의 활동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특히 지역문화에서 문화소비자들이 문화 프로슈머³⁾로서 변모하고 있다. 이들은 제도권의 문화시설(미술관, 공연장 등) 중심의 활동에서 일상생활 중심으로 대안공간을 모색하고 필요한 활동과 사회가치를 만들어가는 자주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부터 등장하였는데,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문화기반시설 조성을 시작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한동안 생활문화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문화학교, 시민문화교육 등의 유형으로 문화교육 및 문화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문화권신장의 흐름으로 지역민의 자주적인 문화활동(동호회를 결성하거나 생산자로서 지역문화 활동 및 교류, 활동 홍보와 발표 및 자주적 네트워크 형성 등)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오늘날 문화 활동의 양상은 향유차원을 넘어 생산자로서 관계를 형성하고 발표(활동)의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 지역과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활동을 형성하기도 한다. 특히 오늘날 기술의 발전(SNS와 온라인플랫폼 등)은 이러한 소규모 풀뿌리 생활문화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⁴⁾.

2) 최근 신자유주의의 시장경제 위기와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서 유럽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사회적경제란 경제적인 이윤보다는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의 연계를 더욱 중시하며, 정부의(위에서부터의) 지원보다는 조직구성원의(아래로부터의) 자발성을 중요시 여기는 경제구조이다(배채운, 2012).

3) 프로슈머는 생산자를 뜻하는 영어 프로듀서 'producer'와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 'consumer'의 합성어로, 생산에 참여하는 소비자를 의미한다. 1980년에 출간한 '제3의 물결(The Third Wave)'에서 이 신조어를 처음 사용했다. 국내 문화예술 부분에서는 2006년 문화관광부에서 「예술현장을 위한 역점 추진과제」의 '지역사업 협력과 생활예술 활성화' 정책에서 시민을 '프로슈머'의 개념을 도입하여 언급하였다.

4) 시민 자체적으로 형성된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살펴보면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부분(공간이나 인적자원, 혹은 공유 및 홍보, 넓게는 유지를 위한 펀딩 등)을 공공지원 외 인적네트워크나 민간영역을 통해 확보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 도구로서 SNS나 온라인플랫폼이 활용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생활문화 활동 영역의 확대를 지역문화, 그리고 문화공동체와 관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체에 대한 의식은 과거 자연발생적으로 지리적, 사회적 상호작용, 연대를 배경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현대에는 생활권의 확대와 개별화, 다각화된 삶의 형태는 생활 속에서 공동의 관심사를 발견하고 생활공동체의 형태로 발전되기 쉽지 않았다. 오히려 최근에는 온라인과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의 목표, 가치의 공유 등 사회·문화 맥락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생활 유형으로 구성된 문화공동체의 형성이 보여 진다. 이것은 과거 장소기반 공동체(place-based community)에서 공간기반 공동체(space-based community)로 대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공간(space)은 물리적 경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동질적인 자아를 인식 및 공유하는 비물리적 관계와 의식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윤소영, 2014).

최근 많은 연구결과에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문화예술이 주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시사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공동체에서 문화적 요소가 보이는데, 문화는 일상 전반에 녹아있으며 예술은 개인의 문화적 표현과 소통이자 욕구로 작용하는 것이 투영되기 때문이다(박진영, 2014). 또한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활동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과 공동체의식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와 자치활동을 이끌어내는데 문화예술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개발이 야기한 지역격차와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정책 사업이 시도되었다. 한편으로는 창조사회와 문화예술의 파급효과가 커지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논의가 형성되었다. 특히 2000년대 후반 리차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의 『도시와 창조계급』이 발간된 이후 문화와 예술은 도시발전 전략의 주요 수단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서윤경, 2017). 오늘날에는 지역사회와 문화공동체, 사회적경제 등의 개념들이 부상하면서 산업화·전문화된 예술영역 바깥에서 형성되는 가능성과 파급력이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마을모임이나 축제, 문화 활동을 주민이 직접 만들고 활동하는 활발한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생적 지역문화가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사회가치를 형성하면서 마을공동체 회복이 지역 도시개발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다(박수현 외, 2013). 또한 지난 재개발사업으로 야기된 본도심과 신도심의 격차, 마을과 이웃에 대한 공동체 상실과 이로 인한 사회문제들이 삶의 질과 연결되면서 생활 속 공동체 회복의 필요성이 한층 더 주목되고 있다.

2.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의 정의

본 연구의 대상인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의 정의는 최근 떠오른 개념으로 행정기관별, 연구기관별, 학자별 유사한 개념으로 다양하게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다.

최근 성남문화재단(2019)에서는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성’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였다.

○ 행정적 개념

국무총리 훈령 제2조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하 ‘생활SOC’)이란 보육시설·의료시설·교통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이라고 말하고 있다.

2020~2022 생활SOC 3개년 계획(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에서는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로 해석하고 있다⁵⁾.

5)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의 ‘2020~2022 생활SOC 3개년계획’ 정책의 추진배경은 양적성장 중심 투자에서 탈피,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자 한다.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중 국토교통부(2013)는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및 세부 시설 기준>을 통하여 도보 10분 거리라는 시간개념을 도입하여 기초생활인프라의 최저기준을 제정하고 기초 생활권 단위의 시설 확충을 추진한 바 있다.

[표 1-1] 시간개념을 적용한 기초 생활권 최저기준 (국토교통부, 2013)

단위	분류	시설	세부시설	최저기준
마을 (도보)	교육	유치원	국공립·민간	5~10분
		초등학교	-	10~15분
	학습	도서관	공공·사립·작은도서관	10~15분
	돌봄	어린이집	국공립·민간, 놀이터	5분
		마을노인복지	경로당, 노인교실	5~10분
	의료	기초의료시설	의원, 약국	지역 보건 의료 수요를 고려하여 서비스 전달추진
	체육	생활체육시설	건강생활지원센터	10분
	휴식	근린공원	수영장, 간이운동장 체육도장 등	10분
	생활편의	주거편의시설	도시공원	10~15분
		소매점	무인택배함, 폐기물수거시설 등	5분
지역 거점 (차량)	교통	마을 주차장	-	10분
			시군구 운영 노상·노외· 시설 주차장	주거지역내 주차장확보를 70%이상
	학습	공공도서관	국공립도서관	10분
	돌봄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20~30분
	의료	보건소	-	20분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	30분
	문화	공공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전시시설	20분
	체육	공공체육시설	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15~30분
	휴식	지역거점공원 (10만㎡이상)	-	10분

앞서 살펴본 바대로 생활문화공간에 대한 접근은 최근 ‘생활SOC라는 개념 및 사업으로 모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2018)에서 공개한 혁신성장회의 안건 <10대 지역밀착형 생활SOC 투자 확대>에는 생활SOC 추진 배경으로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욕구 증대, 사회간접자본의 수도권 과밀 해소와 균형 발전이라는 목적과 함께 의식주 중심에서 삶의 질 중심으로의 인식 변화를 그 첫 번째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박지훈, 김영주 외, 2018).

○ 문헌적 개념

‘생활SOC’ , ‘생활밀착형 공간’ 과 유사한 개념은 학계와 문헌에서 다양하게 거론된다.

먼저 도시계획의 측면에서 ‘400m 법칙(400-metro rule)’ 을 들어 생활과 도시를 설명한다. 도시의 주 교통수단으로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이전인 20세기 전 도시의 구성은 가로와 평균 길이가 300~400m 이하였으나 20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도시는 이보다 두 배 이상 길게 조성되었다. 이로서 보행 친화적으로 여겨지는 도시의 보편적인 특징은, 더 활동 친화적이고 일상적인 보행이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이라 정의하고 있다(김세훈, 2017).

국내에서는 도시의 사회적가치 측면을 중심으로 ‘소생활권’⁶⁾의 개념이 주로 등장한 바 있다. ‘소생활권’ 은 보행을 비롯하여 비교적 느린 속도의 이동수단과 자전거만으로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누릴 수 있는 공간, 비교적 조밀하게 짜인 블록 위에 상당한 밀도의 주거, 업무, 상업공간을 포함하여 각종 생활 편의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공간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경기연구원(2019)에서는 ‘생활밀착형 생활SOC’ 을 정의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 문헌을 연구하고 교차되는 개념과 정의의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⁷⁾.

6) 김세훈. (2017). 『도시에서 도시를 찾다』. 한숲. 41.

7) 남지현, 조희은. (2019). 「일상에서 누리는 최소한의 복지, 생활SOC」. 이슈&진단. 362, 1-27.

[표 1-2] 생활밀착형 SOC 및 관련 용어의 정의

명칭	출처	개념 및 정의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1)	일상생활 속에서 가까이 위치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생활밀착형 인프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4)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고 일상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인프라
생활밀착형 SOC	국토연구원 윤하중 (2018)	국민들이 먹고, 자고, 쉬고,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

※남지현, 조희은. (2019). 「일상에서 누리는 최소한의 복지, 생활SOC」. 이슈&진단, 362, 1-27p.

경기연구원은 위의 정의들을 종합하여 ‘생활밀착형 생활SOC’의 개념을 도출하였는데 ‘생활SOC란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생활 인프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성남문화재단의 정의⁸⁾를 빌리면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이란 일상적인 보행이나 비교적 느린 속도의 이동수단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상생활 속에 위치하여, 지역의 주민·동호회·커뮤니티 누구나 문화예술의 교육·창작·향유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의 개념과 정의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문화권 신장을 배경으로 ‘생활문화’, ‘문화예술공동체’, ‘생활SOC’ 등 교차하는 주요 개념들의 복합적 흐름에서 폭넓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8) 성남문화재단(2019)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개념’ 자료.

제 3절 연구의 내용

성남 문화예술공동체 사업 현황 분석

- 성남 문화예술공동체 사업의 동향 연구 및 분석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과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의 전개와 추진 동향을 연구하여 시사점을 분석하고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정책적 논의를 배경으로 재점검
- 성남문화재단 문화정책 사업의 정책적 이슈를 점검하고 지역적 상황 연구를 통하여 본 과업 연구에 고려가 필요한 환경적 시사점 도출

전수조사 된 성남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DB 및 성남 특성 분석

- 전수조사 된 ‘성남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사’ DB 분석을 통한 문화자원 분석 및 활용 방안 연구 진행
- 전수조사 된 ‘성남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사’ DB 분석과 성남 기초조사 DB 및 현황 연구를 접목하여 성남 내 지역별 현황을 비교 분석
- 연구·분석 된 자료를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및 생활문화의 논의와 정책의 이슈를 접목하여 성남 환경을 반영한 시사점 도출

성남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수립

- 전수조사 된 ‘성남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사’의 표본 중 사례 공간을 선정하고 대상 공간 방문연구를 통하여 공간 조성 점검사항 확인
- 앞서 도출된 시사점을 배경으로 활용 가능한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성,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 추진 로드맵 제안

제 4절 기대효과

성남의 문화예술 공간자원을 점검하고 상대적으로 문화공간이 부족한 지역을 연구하여 지역 간 격차 없는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조성 방안을 분석,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제공 방안 연구

공공 및 민간 문화공간에 대해 성남시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간의 활성화 방안 제시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간 운영모델, 운영체계, 운영 프로그램 연구 및 제안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활용한 문화지도를 제작하여 성남시민의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의 정보 접근에 대한 편의성 제공

제2장

현황조사

제 1절 성남 문화예술공동체 사업 추진 현황

1. 문화예술공동체 사업의 전개
2. 성남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의 시사점
3.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성 계획

제 2절 성남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DB 현황

1. 문화예술 공간 현황
2. 공간 운영 현황
3. 공간 이용 현황

제 3절 성남 기초 현황

1. 기본 현황
2. 면적 및 주택 유형(수)
3. 인구 현황
4. 교육기관 현황

제2장 현황 조사

제 1절 성남 문화예술공동체 사업 추진 현황

1. 문화예술공동체 사업의 전개

1) 성남 문화정책의 배경

성남시는 1960년 대 말 이주민 정착 도시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어 1990년대 분당과 2000년대 판교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오늘날 경기도의 핵심도시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성남의 도시구조가 본도심과 신도심으로 이분화 되어 지역격차가 형성되었다. 성남의 본도심과 신도심 간 지역격차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도시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 국내에서 창조산업과 콘텐츠산업의 성장, 문화예술의 파급력 확대, 삶의 질 개선과 사회적 가치 창출의 대두, 생활문화와 지역문화의 활성화 등의 흐름으로 국가차원에서 문화예술 분야가 국가발전계획과 정책의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 이것은 지자체에도 반영이 되었는데 성남도 동일하였다. 특히 성남문화재단은 본도심과 신도심의 다양성을 포용하면서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성남문화재단이 우리동네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밝힌 성남문화재단의 역할(본도심과 신도심 각각의 다양성이 살아남과 동시에 문화도시, 성남의 구현을 통한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방향(본도심과 신도심 간 이질적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에 드러나 있다⁹⁾.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 개선과 동시에 문화도시로 도약하는데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그리고 공동체의 가능성에 주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 성남문화재단(2006) '예술, 태평동에서 노닐다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성남인의 창작진흥 워크숍>' 워크숍 자료.

성남문화재단은 시민주체의 형성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시민주체, 문화예술 창조도시’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2004년 출범하였다. 2005년에는 성남아트센터가 개관하여 성남의 대표 문화거점공간으로서 자리하였다. 2006년에는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만들기 기본계획 연구’를 통하여 2006년~2020년에 걸친 3단계 중장기 문화정책을 수립하였다.

당시의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성남문화재단의 정책과 사업성과는 전국적으로 선구적인 활동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추진된 사례들은 최근에도 타 지자체에서 정책과 추진 연구를 위한 사례로서 종종 거론되어지고 있다.

2)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 창조도시 발전 계획

성남문화재단의 중장기 문화정책은 생활문화 활성화와 문화공동체 육성을 중심으로 계획되었다. 이것은 ‘시민주체, 문화예술 창조도시’라는 비전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진다. 성남문화재단은 성남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에 참여,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단계별 발전 계획을 설정하였다. 이는 문화예술과 문화공동체를 통하여 성남이 지닌 지역격차와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문화예술 창조도시’로서 문화도시의 모델을 달성하려는 발전적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창조도시 실현’을 위한 단계별 발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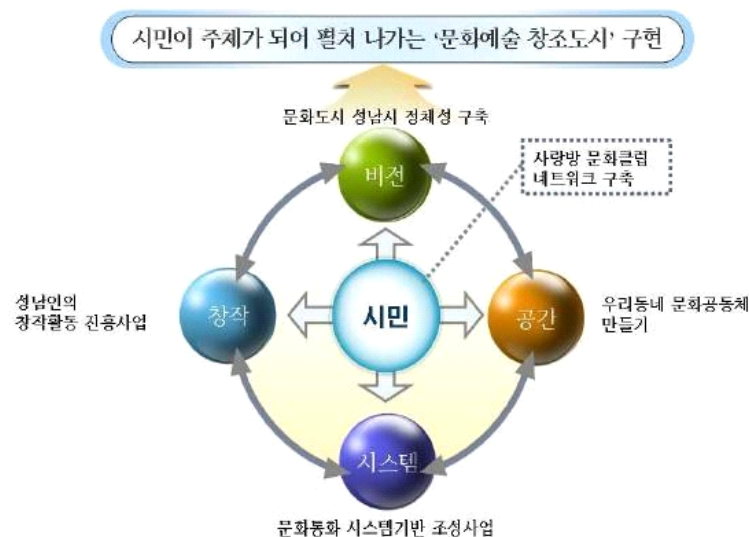
단계	시기	목표	핵심추진과제
1단계 3개년 (기초다지기)	2006 ~ 2008	시민주체 형성을 위한 기반 마련	· 문화클럽 발굴 및 교류 활동 네트워크구축 · 문화클럽 외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 · 동네 유형별 커뮤니티 육성 모델 개발
2단계 5개년 (구조세우기)	2009 ~ 2013	문화공동체 시스템 구축	· 동네 단위 커뮤니티 활성화 및 교류 활동 확산 · 문화클럽 외 지역사회참여활동 네트워크 활성화 · 문화공동체 발전 시스템 구축 · 문화예술 창조도시 포지셔닝
3단계 7개년 (몸체만들기)	2014 ~ 2020	세계 속의 ‘예술시민의 도시’ 실현	· 전체 지역사회의 문화공동체 확대 및 발전 네트워킹 확대 · 국제 교류 네트워크 확대 및 강화

※고성영 외. (2013). 「성남시 생활예술공동체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중장기(2014~2020) 발전계획 연구」. 성남문화재단 1p.

성남문화재단은 이와 같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5대 문화정책 사업’을 설정하였는데, ①비전(조사·연구사업), ②시민(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구축), ③공간(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④시스템(문화통화), ⑤창작(창작활동 진흥사업)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무엇보다 ‘5대 문화정책사업’의 각 주체는 개별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에 시민이 핵심 주체로 계획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시민(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구축)’의 사업은 ‘5대 문화정책사업’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른 4가지 사업의 주체로 연결되어 있다. 시민주체로 형성된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가 다른 4가지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 간 연계, 확대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이다. 지역문화 측면에서 문화예술 소비자로서의 시민으로 인식되던 것에서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성남문화재단은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만들어가는 생산자, 즉 문화 프로슈머로서 자주적 시민의 가능성을 배경으로 문화정책에 접근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림 2-1] 성남문화재단 5대 문화정책사업 개념도 (2006)

※고성영 외. (2013). 「성남시 생활예술공동체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중장기(2014~2020) 발전계획 연구」. 성남문화재단 1p.

성남문화재단이 3단계 15년으로 계획한 중장기 문화정책은 1단계 3개년(2006~2008), 2단계 5개년(2009~2013), 3단계 7개년(2014~2020)의 단계로 구성되었다.

[표 2-2] 1단계 3개년(2006~2008) 계획 개요

구분	내용 및 목표
비전 및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 시민이 주체가 되어 펼쳐나가는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에 의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예술시민의 도시 만들기 - 생활예술이 꽃피는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남의 문화적 역량조사를 실시하고, 단기성과 지향의 문화사업 보다는 중장기적 시각의 문화발전 전략을 통하여 자원과 재원, 인력,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만들기 사업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정체성 제고 및 정립 - 문화기반시설운영 활성화 및 확충 - 문화복지증진 사업개발 및 기반조성 - 지속가능한 문화발전 추진체계 구축
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대 문화정책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도시 성남시의 정체성 구축 사업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구축 사업 - 문화통화 시스템 기반 조성 사업 -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 - 성남인의 창작활동 진흥 사업

※고성영 외. (2013). 「성남시 생활예술공동체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중장기(2014~2020) 발전계획 연구」. 성남문화재단 7-16p.

[표 2-3] 2단계 5개년(2009~2013) 계획 개요

구분	내용
비전 및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 시민이 만드는 문화도시 • 목표 :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의 창조자가 되어 인간다운 삶을 함께 누리는 것, 즉, 문화공동체의 구현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세우기 : 문화공동체의 시스템 만들기 • 문화예술 창조도시 포지셔닝 전략 수립 <div style="text-align: center;"> <p>문화비전 포지셔닝</p> <p>문화프로젝트 포지셔닝</p> <p>문화지원체계 포지셔닝</p> </div>
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대 문화정책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도시 성남시의 정체성 구축 사업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구축 사업 - 문화통화 시스템 기반 조성 사업 -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 - 문화예술아카데미 문화시민 육성 사업

※고성영 외 (2013). 「성남시 생활예술공동체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중장기(2014~2020) 발전계획 연구」. 성남문화재단 7-16p.

1단계, 2단계 추진 사업이 진행되면서 특히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시민주체적 활동의 활성화 사례로 국내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는 생활문화 활동이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거론되면서 생활문화의 다양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은 마을이라는 생활권 내에서 문화를 매개로 주민을 공동체로 이끌며 마을과 문화공동체에 대한 명성을 얻었다. 그리고 사업의 추진 계획에서 대상을 획일화 하지 않고, 마을 특성을 고려한 5개 유형(골목길, 공단, 시장, 상가, 아파트)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성남의 주요 사업으로 일컬어지는 두 가지 사업은 발전 과정에서 서로 주체적 생활문화와 문화공동체의 개념으로 연계되면서 자주적 생활문화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업 추진 중, 예기치 못하게 대외적 상황과 지역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분위기 변화의 영향으로 사업이 정체되는 상황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200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국내경기가 위축되면서 민선 4기부터 성남시가 긴축재정에 돌입하게 되었고 성남문화재단의 재정이 큰 폭으로 축소되었다. 이로 인해 5대 문화정책사업 중 선택과 집중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에 따라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와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를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민선 5기에 들어선 2011년에는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을 정치적 동원자원으로 인식한 의원들의 의견으로 결국 대폭 예산삭감이 이루어졌다.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와 공동체사업이 연계된 사랑마루를 비롯하여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예산은 총 2억 3천만 원이었으나, 4천 3백만 원을 제외한 모든 사업예산이 삭감되었다. 다만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은 예산삭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중앙정부차원의 우수 사례 수상과 전국차원의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배경으로 지역 생활공간을 생활문화와 연계해 성남 전역에서 생활문화 활동을 일상화하겠다는 초기 계획은 무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박지훈, 김영주 외, 2018).

결국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와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은 현재 정체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성남문화재단은 그동안 생활문화 및 문화공동체사업의 현장과 행정, 그리고 활성화 연구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보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지난 1단계~2단계 추진 과정에서 얻은 성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문제점 개선을 통한 활성화를 위하여 3단계 7개년(2014~2020) 추진 목표와 과제를 보완하였다.

이에 당초 3단계 7개년 계획으로 제시한 ‘국내외 교류 네트워크의 확대, 강화’를 지속 추진하면서 ‘생활예술공동체 네트워크 확산’을 목표로 설정하고 세부 추진 목표를 계획하였다(고성영 외, 2013).

[표 2-4]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 3단계 7개년(2014~2020) 추진 목표

단계	목표	시기	세부추진목표
구조 강화하기	생활예술공동체 네트워크 확산	2014 ~ 2020	• 시민 생활예술을 통한 사회적 창의성과 공동체 문화의 확산
			• 취향공동체와 지역 기반 생활공동체들의 협력과 교류 강화
			• 생활예술 및 문화공동체 활동의 시민 참여 영역 확대, 강화
			• 생활예술 및 문화공동체활동의 자발성 강화 및 자생성 기반 조성
			• 기존 5대 정책사업의 정비와 조정
			• 전국 단위 생활예술 교류 확대
			• 국제 생활예술 교류 네트워크 구축

※고성영 외. (2013). 「성남시 생활예술공동체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중장기(2014~2020) 발전계획 연구」. 성남문화재단. 41p.

하지만 성남이 당착한 현황 속에서 변화한 국내와 지역의 상황을 반영할 새로운 사업은 추진되지 못하였다. 또한 기존 사업 역시 혁신적 변화를 시도할 계기를 가질 수 없었다. 이렇게 부분적 보완과 유지 증점의 사업으로 정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와 우리동네문화공동체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정책은 시민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성남문화재단의 정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한 성남시의 정체성 확립,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 문화창달 활동 등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함’¹⁰⁾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2006년 사업의 구체화를 위해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373개 기관에서 1,103개의 문화예술 동호회가 확인되었다. 또한 2007년 ‘성남시 문화 공간 실태조사’를 통해 성남지역 내 160여개의 문화공간을 확인하였다. 당시 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연습공간제공, 활동장소, 타 클럽과의 교류, 예산지원 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남문화재단은 ‘시민주체’의 문화정책을 바탕으로 사랑방문화클럽을 꾸준히 지원하였다.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은 성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클럽들이 주체가 되어 친목도모, 활동강화, 정보교류 등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문화공동체 기량향상과 문화예술로 다양한 공헌활동을 유도함으로써 도시 전반에 생활문화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무엇보다 생활문화에 접근하는 시민들의 활동이 관람형(audience)에서 참여형(performance)으로 발전되면서, 문화생산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자발적 생활문화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회복에 많은 성과가 나타난 것이다(전경화, 2017).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는 전국적 클럽축제로 발전하여 명성을 얻으면서 성남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로 성장하였다.

10)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2004), 제1조(목적)

[표 2-5]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 추진 계획과 과정

중장기 발전 계획	연도	추진 계획
1단계 ‘3개년 계획’ 2006년~2008년	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남지역 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조사 실시 1,103개 문화클럽 조사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발전방안 연구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의 웹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웹사이트오픈 및 클럽파티 : (www.clubsb.or.kr)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리더협의회 구성 • 사랑방(문화공간) 활성화와 프로그램 개발 • 핵심 문화클럽의 지원과 공연 등 발표활동 • 탄천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사랑방 문화클럽의 클럽주간 발표축제의 장 개최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회 사랑방문화클럽페스티벌 개최 • 문화클럽 DB화를 통한 체계적 지원활동 및 On/Off활동 시스템 정착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확산 및 클럽지원을 통한 발표 및 활동확대 • 사랑방-사랑마루-사랑마당과의 연계 확대로 문화클럽활동 기반 조성 체계화
2단계 ‘5개년 계획’ 2009년~2013년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를 기반으로 한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기반 조성 • 문화공헌 지원 프로젝트와 안정적 체계 준비 • 전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사랑방문화축제의 준비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클럽 네트워크 외 동네별 확산 작업 • 문화공헌 지원 프로젝트를 지원조직과 골간조직 체계로 발전 • 장르별 전국 사랑방클럽축제추진과 세계 클럽의 축제 참여 • 본 시가지의 사랑방 활동거점인 ‘사랑방센터’와 아트센터의 연계발전 방안 추진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구별로 핵심 동네클럽을 구축하고 모범적인 활동을 정착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외 지원조직과 골간조직의 체계화로 조직시스템 강화 • ‘예술시민 현장’과 실천전략 및 규율채택 등 사랑방 문화클럽이 세계 시민과 함께 하는 체계 준비 •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각 구별 ‘사랑방 센터’ 개설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구별 3개동의 동네클럽을 안정화시키고 동네클럽 네트워크의 체계 확립 • 지원조직에서 장르별과 사업별 지원체계 확립 • 장르별 전국과 세계의 클럽연계를 형성하고, 도시와 동네 차원의 세계교류의 기반조성 • 아트센터가 ‘사랑마루’로서 각 구별 사랑방 연계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동네에서 동네클럽이 활동 할 수 있는 동네클럽 네트워크의 활성화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의 지원조직과 골간조직의 상호연계 체계 확립 • 전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조직을 바탕으로 한

3단계 ‘7개년 계획’ 2014년~2020년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참여 예산제 시행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발전기금 추진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장르별 활동의 시스템 구축 • 사랑방문화클럽한마당/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문화공헌 프로젝트 시행 • 클럽데이 시범적 추진과 평가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구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 • 제2회 전국시민문화클럽한마당 개최(참여지역, 클럽 확대)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생활예술활동가 양성 기반 조성 • 사랑방 생활예술학교 시범사업 프로그램 개발 • 중원구 후보지 선정 및 공론화(분당, 수정 등도 추가 후보지 조사) • 생활예술지원 조례 제정 공론화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생활예술활동가 아카데미 • 장르별 전국 네트워크 시범 사업 계획 • 지역별(거점별) 클럽데이 확대, 지속 추진 • 구별 사랑방문화클럽운영위원회 구성 •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차원의 전국 생활예술 네트워크구성 및 출범을 성남에서 공식화 • 사랑방 생활예술학교 시범사업 추진(사랑방아트홀, 시민사랑방) • 문화부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사업 지원과 계획 수립 • 성남시 생활예술지원조례 제정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장르별 조직 사업 확산 • 구별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활동 협력 체계 확대 • 제1회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주최 ‘전국 생활예술 네트워크 축제’를 성남시에서 개최 • 장르별/기업체 클럽의 전국 단위 네트워크 사업 확대 • 대한민국 국민문화제 추진의 공론화 및 선도적 역할 담당 • 구별 1개소 운영 체계 구축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별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의 장르별, 선택적 활동 확대 •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민간국제생활예술 교류를 통한 국제기구 설립 및 공동 작업을 통한 온라인 공간 창출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별 그리고 전체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독립화 논의공론화 • 동북아 지역 민간 국제생활예술 교류 추진(성남에서 제1회 개최)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별 그리고 전체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독립화 추진 계획 수립 • 전국 생활예술활동가 대회 개최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별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독립화 추진 • 제1회 대한민국 국민문화제 성남시 개최 추진 • 세계 생활예술활동가 대회 개최

※고성영 외. (2013). 「성남시 생활예술공동체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중장기(2014~2020) 발전계획 연구」. 성남문화재단 (재구성)

하지만 여러 보완점도 확인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는 구성원의 고령화와 자체적 행정 진행에 대한 피로도 누적이 원인이 되어 재단 의존성 증가, 활동 내용의 정형화로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클럽활동은 자발성을 띄어갔지만 클럽네트워크 활동은 재단이 매개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자발적 활동 측면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가지지 못하였다. 이렇게 클럽네트워크사업이 재단중심의 기획과 행정으로 진행되고 특정(참여도가 높은) 클럽에 집중되면서 클럽네트워크사업 참여와 활동이 또 다른 피로감 누적으로 이어졌다.

오늘날 사랑방문화클럽은 2007년 52개 클럽 864명에서, 2019년 217개 클럽 4,500명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였다. 특히 지역의 자발적 생활문화 확산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었는데, 매년 자체적으로 그 해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회를 선출 및 조직하여 문화 축제, 사회 공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전경화, 2017).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는 앞으로 성남의 생활문화와 문화예술공동체 정책 추진에 있어 주요한 자원임이 분명하다.

○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표 2-6]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 추진 계획과 과정

중장기 발전 계획	연도	추진 계획
1단계 '3개년 계획' 2006년~2008년	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평4동 문화공동체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개선 : 한평쉼터, 학교벽화, 화단시상식 - 시민참여 : 문화상징만들기, 우리동네는달라요, 상가아트리폼, 예술장터 등 - 문화행사 : 태평동영화제, 움직이는 사진관, 문화놀이터 아트 클럽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공동체 2개 모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지역문화공동체 - 공단지역 문화공동체 • 문화공동체 만들기 컨설팅 • 동 단위 문화축제 지원 및 실무자 워크숍 •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공동체 2개 모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가지역 문화공동체 - 시장지역 문화공동체 - 문화공동체 매뉴얼 보급 • 문화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2단계 ‘5개년 계획’ 2009년~2013년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전략수립 및 기반 조성 • 지원센터 ‘4개의 날개 사업’ 기초다지기 • 지속사업의 강화를 통한 1단계 3개년의 연계 발전 •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확산 작업의 전개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동네별 확산 작업 • 지원센터 ‘4개의 날개 사업’ 사업체계의 확립 • 전국의 ‘마을만들기’와 연계하여 전국적 협력체계의 기반 조성 • 세계의 동네만들기에 대한 자료조사와 연구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구별로 지원센터와 연계한 모범적인 활동 정착 • 동네에서 추진조직 체계와 지원센터의 날개사업 체계 상호 정립의 미연계 활성화 • 성남의 동네만들기 프로세스 매뉴얼 개발과 워크숍을 통한 전국 연계 • 세계의 동네와 정보교류 시스템 및 네트워크 준비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구별 지원센터 활동을 안정화 시키고 ‘동네만들기 지원센터’의 체계 확립 • 지속사업 유형(골목길, 아파트, 기업, 시장/상가) 및 1동네 집중사업의 성과를 개별동네와 연계시켜 동네별 사업의 시너지 확보 • 워크숍의 체계화를 통한 네트워크가동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동네에 ‘동네만들기 지원센터’가 연계되어 동네별 동네만들기 체계 기초 형성 • 각 동네별 사랑방 및 동네클럽과 결합하여 동네추진조직 주체 형성의 기반 조성 • 전국 및 세계의 동네와 정보교류 시스템 및 워크숍을 발전시킨 포럼의 체계화
3단계 ‘7개년 계획’ 2014년~2020년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체 문화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3개 - 지역 협력네트워크 구축 추진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체문화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2개, 예비사업 1개 - 지역 협력네트워크구축 - 컨설팅사업 추진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체문화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2개, 예비사업 1개 - 지역 협력네트워크 연계활동 - 컨설팅사업 추진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체문화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2개, 예비사업 1개 - 지역 협력네트워크 연계활동 - 컨설팅사업 추진 - 1차 3년 지원사업 종료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체문화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3개, 예비사업 1개 - 조합형 마을조직 1개 조직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체문화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3개, 예비사업 1개 - 조합형 마을조직 2개 조직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체문화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3개, 예비사업 1개 - 조합형 마을조직 3개 조직

※고성영 외 (2013). 「성남시 생활예술공동체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중장기(2014~2020) 발전계획 연구」. 성남문화재단 (재구성)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은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과 함께 ‘주민주도형 대안적 정책모델 제시’, 동네별 주민자치 모임 및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민관협력 추진체계 및 운영체계 구축’, ‘주민의 자아실현과 사회공헌의 장으로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 등 성남의 문화공동체 정책을 성장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박수현 외, 2013).

특히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은 마을의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공동체 회복에 대한 실천적 접근 중 하나로 이야기 되고 있다.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은 중장기 계획 초기부터 마을유형을 5가지 유형으로 접근하여 특성을 반영한 계획 설정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당시 마을(주민)의 자주적 활동의 구체적 모델 설정이 부족하였고, 이에 조직화된 주체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또한 참여 주체들 간 분명한 역할 규정이 약하다 보니 일부 과도한 업무나 중복된 책무에 피로도가 누적되는 상황이 일어나면서 여러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어려웠던 주요 이유로 ‘문화예술’이 공동체의 만남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만,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와 같은 관심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마을공동체처럼 삶을 공유하는 지역공동체에서는 ‘문화예술’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일이 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고려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고성영 외, 2013).

한편으로는 커다란 예산 삭감을 겪으면서 공모 지원의 형태로 변화를 시도하였지만 다른 사업과 유사하게 정체기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최근 지역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2. 성남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의 시사점

3단계 7개년(2014~2020) 정책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 평가분석을 시도하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으나, 최근 국내 전반의 사회변화와 성남의 정치적 상황은 그동안 정체화 된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정책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3단계 발전 계획의 끝머리에서 그동안 성남문화재단에서 추진했던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고 오늘날 분위기를 반영한 시사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성남문화재단은 2단계 중장기 계획을 마무리하던 2013년부터 체계적인 사업성과 평가를 위해 생활문화공동체 평가 지표 개발 및 검증 과정을 2018년까지 지속해 왔다. 그 결과로 2018년 「성남 생활문화정책평가 및 발전 방안」¹¹⁾을 통하여 지난 사업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 까지 3년 간 실시된 조사를 배경으로 데이터를 종합하고 5개 요인(진입여건, 창의적 학습, 공동체 참여, 소통과 신뢰, 개인의 행복)으로 분석하였다.

종합적으로 성남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은 ‘공동체 참여’와 ‘개인의 행복’ 영역에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진입여건’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참여자들은 사업과정 중 느끼는 만족에 비해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환경적 측면에서 상대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표 2-7] 성남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평가 내용 분석 요약(2016~2018)

분석 요약
① 성남문화재단 생활문화공동체의 특성과 지난 3년 간 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남문화재단 생활문화공동체는 전반적으로 중년 이상 여성이 중심이 된 보수적이고 안정적 성격의 공동체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 - 점차적으로 남성 참여가 증가 추세임 - 상대적으로 장기 거주자가 증가하는 점은 새로 이주한 주민의 유입이 어렵다는 뜻으로 정체화 되는 징후로 생각 할 수 있음

11) 박지훈, 김영주 외. (2018). 「성남 생활문화정책평가 및 발전 방안」, 성남문화재단.

- 신도심(분당구, 판교) 거주자 증가 추세임(경제적 여력이 있는 중산층 은퇴자 증가 영향으로 추정)
- 지난 3년간 가장 유의할 부분은 리더십에 대한 신뢰도와 공동체 유대감 약화임
 - : 공동체가 환대 한다고 느끼는 수치는 점차 낮아짐
 - : 공동체 내 갈등이 생겼을 때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경향이 높아짐
- 본 데이터를 일반 국민의 신뢰도 조사 결과¹²⁾와 비교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생활 문화활동이 사회적 통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됨

② 지역민의 정서 순화 및 창의성 개발로 교육적 효과

- 지역문화진흥원 조사의 ‘행복온도’ 를 참고하여 분석 결과 사업 참여자들의 행복 수준이 일반 국민보다 더 높았음
- 상대적으로 사업을 통한 정서적 회복(정서조절력, 자존감보호 등) 보다는 장기적인 심리적 변영(행복감, 낙관성) 부분이 더 큰 효과를 보였음
- 창의적 학습 부분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었음

③ 미래 세대에 남길 유산으로서의 문화예술

-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관련 부분에서 공동체의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짐
- 특히 2018년 들어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과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 모두에서 50대 참여자의 비율이 높아졌고 전반적으로 30대 이하 응답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줄어 듦
- 청년층 유입이 어려워지는 현상은 장기적으로 생활문화공동체 구성에 취약점으로 판단 됨
- 그 원인으로 대외적으로는 최근 청년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과 육아,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공동체의 보수적·권위적 문화 등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④ 문화예술인의 창작의욕 고취, 문학적 창조력 향상을 통해 지역 전반적인 문화적 능력 제고

- 문화전문성의 기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생활문화 분야에서 예술교육 과정을 이수한 참여자를 생활문화 전문가로 여길 수 있는지 논의 필요
- 이들 중 일부 생활문화 리더로 발전한 경우가 있는데, 코디네이터나 퍼실리테이터의 호칭이 사용되기도 함

- 생활문화 전문가는 공동체 측면에서 관계적 측면을 조율하는 역할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의 내용적 수월성 역량이 생활문화의 질적인 부분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있음
- 생활문화동호회 참여자는 상대적으로 일반 국민에 비해 인류 사회 보편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에 관련된 대화나 활동 참여에도 활발한 것으로 분석 됨

⑤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통해 소모임 활동을 촉발시킴으로써 생활예술지원 효과, 이를 통한 주민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고 사회의 문화적 수준 제고

- 사업 참여자는 참여기간이 길수록 ‘창의적 학습’ 효과, ‘공동체 참여’ 효과, 개인적 삶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사업 참여 후 1년 이상이면 발생 하는 것으로 보여 짐
- 사업 참여를 지속시키는 힘은 활동의 질과 관련된 ‘창의적 학습’ 요인으로 나타남
- ‘진입조건’ 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지표로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은 활동 지속 보다 진입이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조사에서 시간 부족 현상의 심각함을 알 수 있었는데, 단순히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파편화가 문제임을 알 수 있음
- 공간 사용의 어려움에 대하여 가장 높은 부분은 저녁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시간의 파편화와 관련지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생활문화 활동성이 높을수록 ‘진입여건’ 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즉, 고립된 개인이 생활문화공동체에 진입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공동체의 활동성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자생성도 높아질 것이라 추론할 수 있음

※박지훈, 김영주 외. (2018). 「성남 생활문화정책평가 및 발전 방안」. 성남문화재단. 28-34p.

위 연구를 통하여 지난 3년 사업성과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보면 성남문화재단 생활문화공동체에서 중요한 지점은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로 생각된다. 사업 참여 지속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생성을 높이는 생활권 주변 관계 형성이 사업 활성화에 주요 요건으로 나타난다. 현재 사업의 현황은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상태로 정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양한 계층의 유입과 참여자 순환을 통해 분위기를 환기할 필요성이 여겨진다.

12) 한국행정연구원. (2017). 「사회통합실태 조사」. 한국행정연구원.

무엇보다 높은 진입장벽과 고령화의 해소가 절실하다. 그리고 공동체(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책임감을 부여받기 전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관계를 탐색할 수 있는 공간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사점이 생활밀착형 공동체 공간 조성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된다면 발전적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성 계획

성남문화재단은 지역 간 격차 없이 시민들이 쉽게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누리고 문화적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성남 문화공간 조성 및 기능적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성남문화재단은 생활SOC를 활용한 생활문화 공간 조성을 통해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의 거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배경으로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별 문화격차 해소 및 시민의 문화향유 증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2019년 2개소를 시범운영으로 총 3년간 15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성남시 전 지역으로 확산할 장기적 방안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15개소로 성남 전체의 생활권역을 촘촘히 잇기 어렵기 때문에 거점형, 준거점형, 생활밀착형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 간 연계체계를 갖추어 공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성을 추진하면서 지역 예술가와 주민, 청년 등 시민을 주체로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작은도서관, 그리고 관련 부처 등 지역자원과 연계성 형성하고자 한다. 즉 하드웨어 보다 휴먼웨어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표 2-8] 성남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성 사업 개요

사업명	성남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성										
사업기간	2018. 07 ~ 2021. 12										
사업내용	공간 조성 운영 및 활용										
추진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 1차 문화공간 조성 시범 사업 추진 계획 수립 ○ 2019 :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전수조사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 문화공간 조성(2개소 예정) 시범 사업 추진 ○ 2020 : 문화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공간 조성(8개소로 확대) ○ 2021 : 시범지역 확대를 통한 '5분 거리 문화예술 공간' 구축 성과를 바탕으로 성남시 전 지역으로 확산 방안 마련 										
기대효과	동네 생활권 단위의 시민 누구나가 생활문화예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망을 조성하여 삶의 질 증진에 기여										
추진 로드맵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별</th><th>사업 내용</th></tr> </thead> <tbody> <tr> <td>사전 준비</td><td>○ 마을단위 공간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td></tr> <tr> <td>1단계</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현황 및 분포 전수조사 ○ 공간 활용 방안 연구(사업 방향 설정) ○ 시범 지역 공간 조성(2개소) ○ 청년기획자 공간 운영 프로젝트 ○ 네트워크(협의체) 구성 및 운영 </td></tr> <tr> <td>2단계</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 지역 공간 조성(8개소) ○ 문화공간 및 프로그램 활용 시스템 구축 - 앱과 인터넷을 통해 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청년기획자 공간 운영 프로젝트 </td></tr> <tr> <td>3단계</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소외 지역 공간 조성(5개소) ○ 청년 및 마을기획자 확대 프로젝트 ○ '걸어서 5분 거리' 시범마을 지정 </td></tr> </tbody> </table>	단계별	사업 내용	사전 준비	○ 마을단위 공간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현황 및 분포 전수조사 ○ 공간 활용 방안 연구(사업 방향 설정) ○ 시범 지역 공간 조성(2개소) ○ 청년기획자 공간 운영 프로젝트 ○ 네트워크(협의체) 구성 및 운영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 지역 공간 조성(8개소) ○ 문화공간 및 프로그램 활용 시스템 구축 - 앱과 인터넷을 통해 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청년기획자 공간 운영 프로젝트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소외 지역 공간 조성(5개소) ○ 청년 및 마을기획자 확대 프로젝트 ○ '걸어서 5분 거리' 시범마을 지정
단계별	사업 내용										
사전 준비	○ 마을단위 공간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현황 및 분포 전수조사 ○ 공간 활용 방안 연구(사업 방향 설정) ○ 시범 지역 공간 조성(2개소) ○ 청년기획자 공간 운영 프로젝트 ○ 네트워크(협의체) 구성 및 운영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 지역 공간 조성(8개소) ○ 문화공간 및 프로그램 활용 시스템 구축 - 앱과 인터넷을 통해 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청년기획자 공간 운영 프로젝트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소외 지역 공간 조성(5개소) ○ 청년 및 마을기획자 확대 프로젝트 ○ '걸어서 5분 거리' 시범마을 지정 										

※ 성남문화재단, 2018

이 사업은 그동안 정체기에 있던 문화정책과 사업의 추진에 있어 최근 국내 문화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사업성과의 시사점 반영과 동시에 새로운 정책 시도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현재 생활문화 공간의 포화상태(생활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다양화된 요구층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의 확충은 더딘 상황임)를 해소하고 접근과 진입의 제약을 낮추고자 하는 의도가 나타난다. 이로서 기존 사업에 새로운 젊은층의 참여가 유도된다면 활동 주체층이 확대되고 나아가 생활문화 활동의 다양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방향성은 자생적 그룹들이 문화공간을 중심으로 형성하는 사회가치와 파급력이 주목되는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앞서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본 바 있다. 실효성 있는 공간 조성 및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최근 논의되는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에 대한 사회적 배경과 국내 정책의 흐름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성남의 문화자원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지역 특성을 이해하고 계획 수립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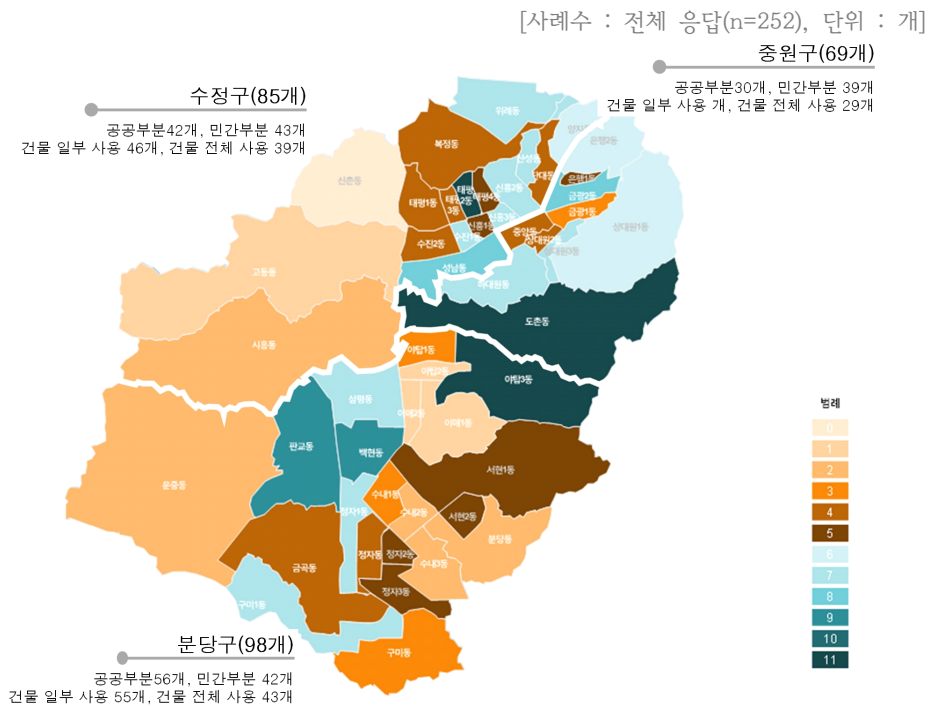
제 2절 성남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DB 현황

「성남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사 결과 보고서(2019)」 참고

1. 문화예술 공간 현황

1) 성남 문화공간 지역구 기준 분포도

- ‘성남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사 결과’ 를 배경으로 성남에 소재한 기관/단체의 문화공간 분포도는 다음과 같다.
- 분당구는 98개로 가장 많은 문화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정구는 85개, 중원구 69개를 보유하고 있다.
- 태평2동, 도촌동, 야탑3동은 모두 11개의 문화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50개 행정동 중 가장 많은 기관/단체를 보유하고 있다.
- 반면, 신촌동 내 문화공간은 0개로, 50개 행정동 중 유일하게 기관/단체 및 문화공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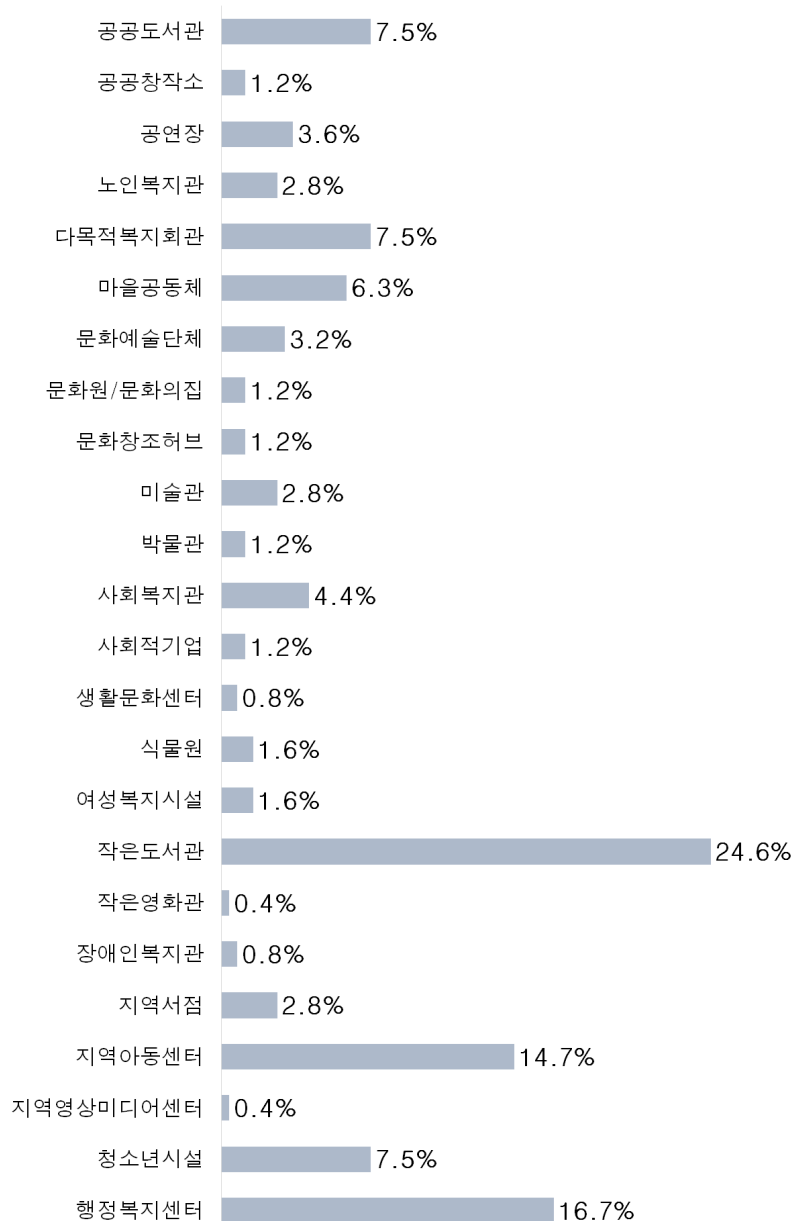


[그림 2-2] 성남 지역구별/행정동별 문화공간 분포도 (응답 기준)

2) 기관/단체의 유형 구분(24개 기관/단체)

○ 성남 소재 문화공간 중 조사에 응답한 기관/단체가 운영되는 유형을 살펴보면, 작은도서관 24.6%, 행정복지센터 16.7%, 지역아동센터 14.7%의 순으로 많았다.

[사례수 : 전체 응답(n=252), 단위 :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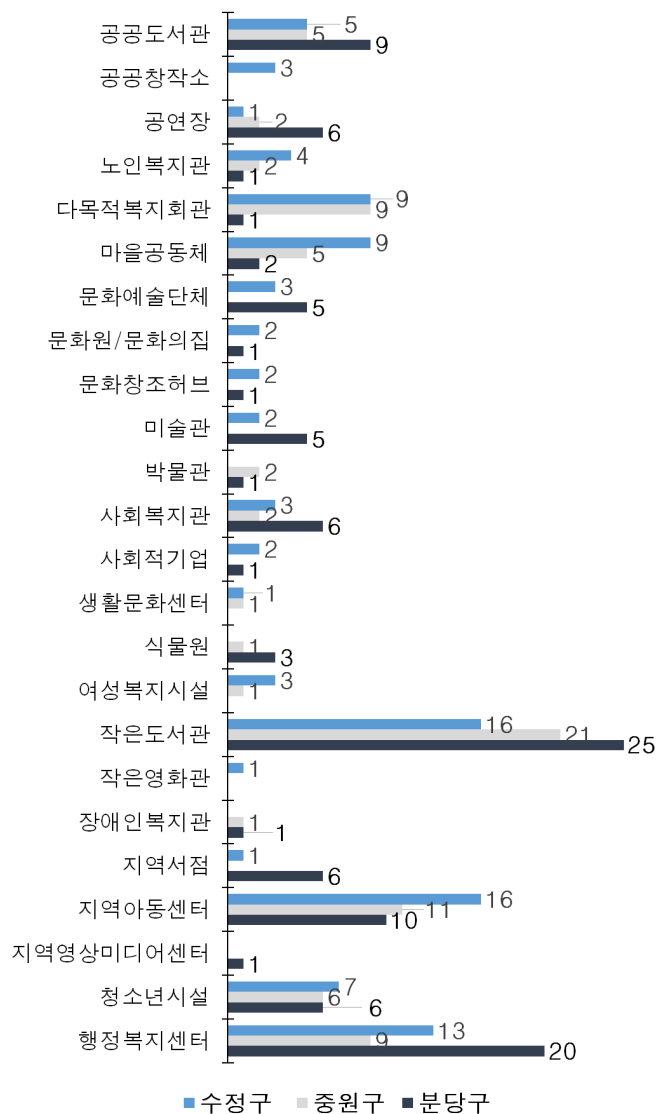


[그림 2-3] 기관/단체 유형

○ 지역구별로 살펴보면

- 수정구는 상대적으로 지역아동센터(16건), 마을공동체(9건), 청소년시설(7건), 노인복지관(4건)의 유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 중원구는 상대적으로 박물관(2건)의 유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 분당구는 상대적으로 작은도서관(25건), 행정복지시설(20건), 공공도서관(9건), 사회복지관(6건), 문화예술단체(5건), 미술관(5건), 공연장(6건), 지역서점(6건)의 유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사례수 : 전체 응답(n=252), 단위 : 개, 중복응답]



[그림 2-4] 지역구별 기관/단체 유형

○ 또한 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 행정복지센터, 다목적복지회관, 마을공동체, 청소년시설, 공공도서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공연장의 유형은 3개 지역구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9] 지역구별 기관/단체 (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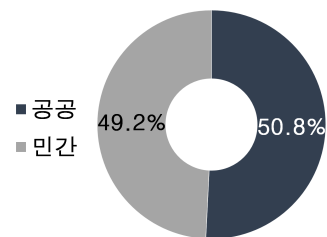
[사례수 : 전체 응답(n=252), 단위 : 건]

유형 구분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응답건수	응답건수	응답건수
전체		(103)	(78)	(111)
기관/단체 유형	작은도서관	16	21	25
	지역아동센터	16	11	10
	행정복지센터	13	9	20
	다목적복지회관	9	9	1
	마을공동체	9	5	2
	청소년시설	7	6	6
	공공도서관	5	5	9
	노인복지관	4	2	1
	사회복지관	3	2	6
	공연장	1	2	6
	문화예술단체	3		5
	여성복지시설	3	1	
	공공창작소	3		
	미술관	2		5
	문화창조허브	2		1
	사회적기업	2		1
	문화원/문화의집	2		1
	지역서점	1		6
	생활문화센터	1	1	
	작은영화관	1		
	장애인복지관		1	1
	박물관		2	1
	식물원		1	3
	지역영상미디어센터			1

3) 기관/단체 운영 구분

- 전체 운영 유형을 살펴보면, 공공기관/단체와 민간기관/단체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비율은 공공기관/단체 50.8%, 민간기관/단체 49.2%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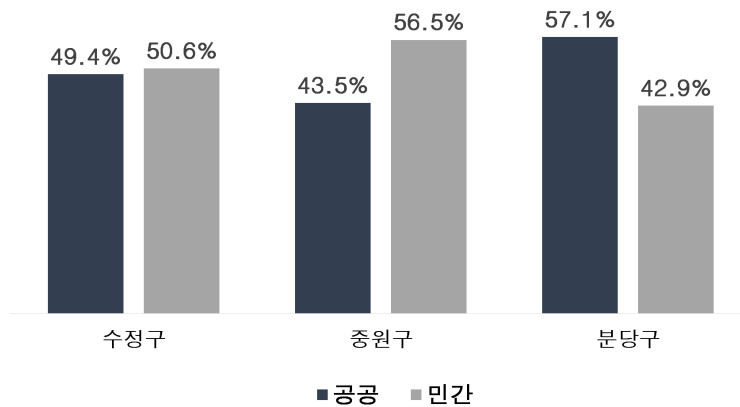
[사례수 : 전체 응답자(n=252), 단위 : %]



[그림 2-5] 기관/단체 운영 구분

○분당구는 상대적으로 공공영역 기관/단체가 57.1%로 가장 많았고, 수정구와 중원구는 민간영역 기관/단체가 각각 50.6%와 56.5%로 상대적으로 높게 구성되어 있다.

[사례수 : 지역구별 전체 응답자, 단위 : %]



[그림 2-6] 지역구별 기관/단체 운영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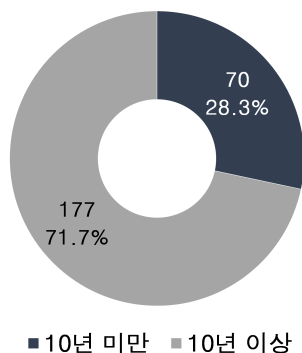
4) 기관/단체의 사용 건물의 건축연도와 운영기간

○현재 기관/단체가 사용 중인 건물의 건축연도를 살펴보면, 기관/단체의 71.7%는 건립된 지 10년 이상 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28.3%는 건립된지 10년이 되지 않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기관/단체의 52.8%는 운영기간이 10년 이상이며, 47.2%는 10년 미만으로 비교적 신생 기관/단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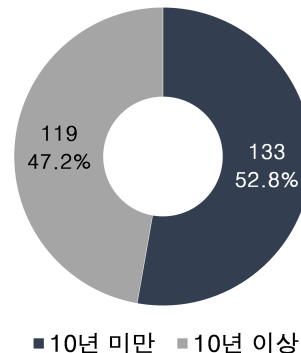
[사례수 : 건물 건축연도 전체 응답자(n=247)]

*전체 252개 중 총 5개 응답 거절



[그림 2-7] 기관/단체 사용 건물의 건축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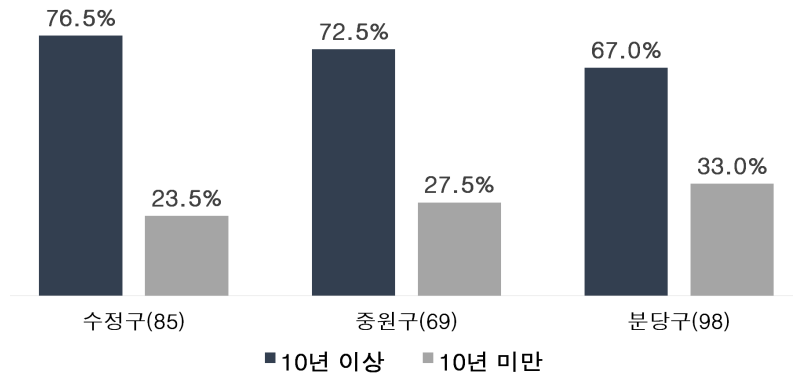
[사례수 : 전체 응답자(n=252), 단위 : %]



[그림 2-8] 기관/단체 운영기간

○ 기관/단체가 사용하는 건물의 건축연도를 지역구별로 살펴보면, 수정구는 76.5%가 10년 이상 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중원구는 72.5%, 분당구는 67.0%가 각각 10년 이상 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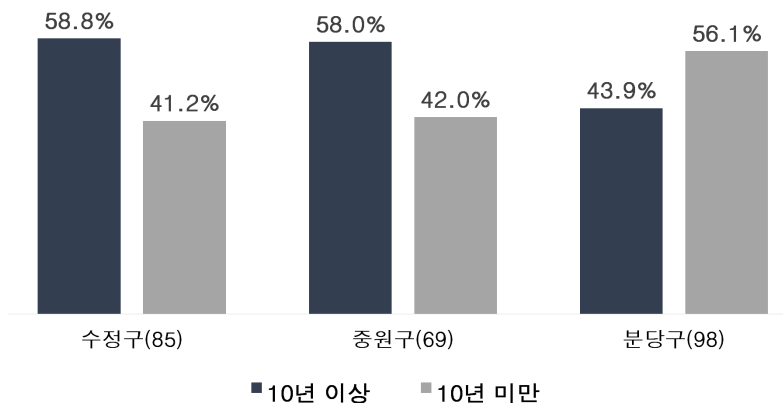
[사례수 : 지역구별 건물 건립연도 전체 응답자, 단위 : %]



[그림 2-9] 지역구별 기관/단체의 사용 건물의 건축연도

○ 기관/단체의 지역구별 운영기간은, 10년 이상 운영 중인 곳은 수정구 58.8%, 중원구가 58.0%로 더 많았으며, 분당구는 10년 미만 운영 중인 곳이 56.1%로 더 많았다.

[사례수 : 지역구별 전체 응답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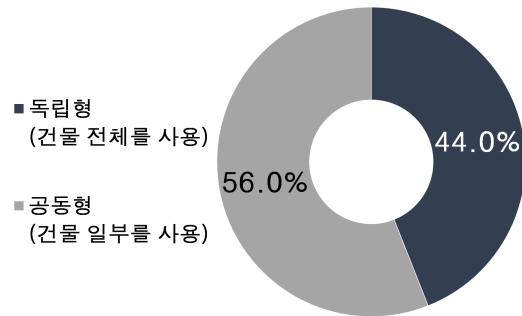


[그림 2-10] 지역구별 기관/단체 운영기간

5) 기관/단체의 건물 형태

○ 기관/단체가 건물을 사용하는 형태의 유형으로 44.0%는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56.0%는 건물의 일부만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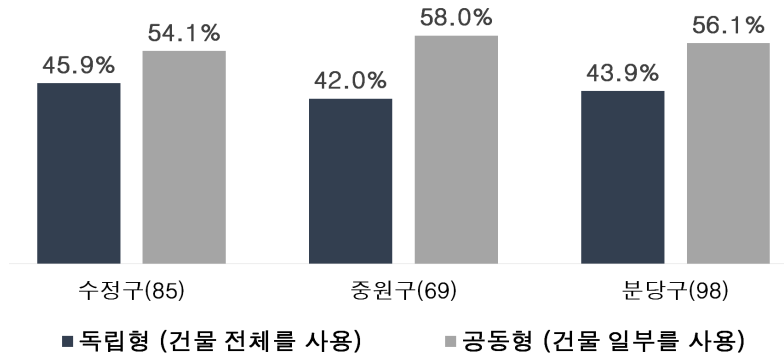
[사례수 : 전체 응답자(n=252), 단위 : %]



[그림 2-11] 기관/단체 건물 형태

○ 사용하는 건물 형태의 유형을 지역구별로 살펴보면 독립형(건물 전체 사용)의 유형 비율은 3개구 모두 낮았으며, 수정구는 45.9%, 중원구는 42.0%, 분당구는 43.9%로 확인되었다.

[사례수 : 지역구별 전체 응답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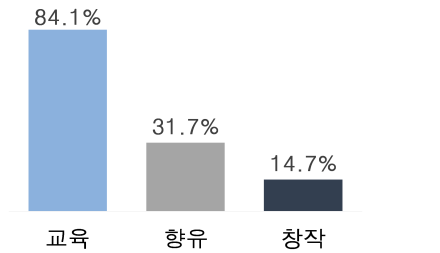


[그림 2-12] 지역구별 기관/단체 건물 형태

6) 기관/단체의 문화예술 활동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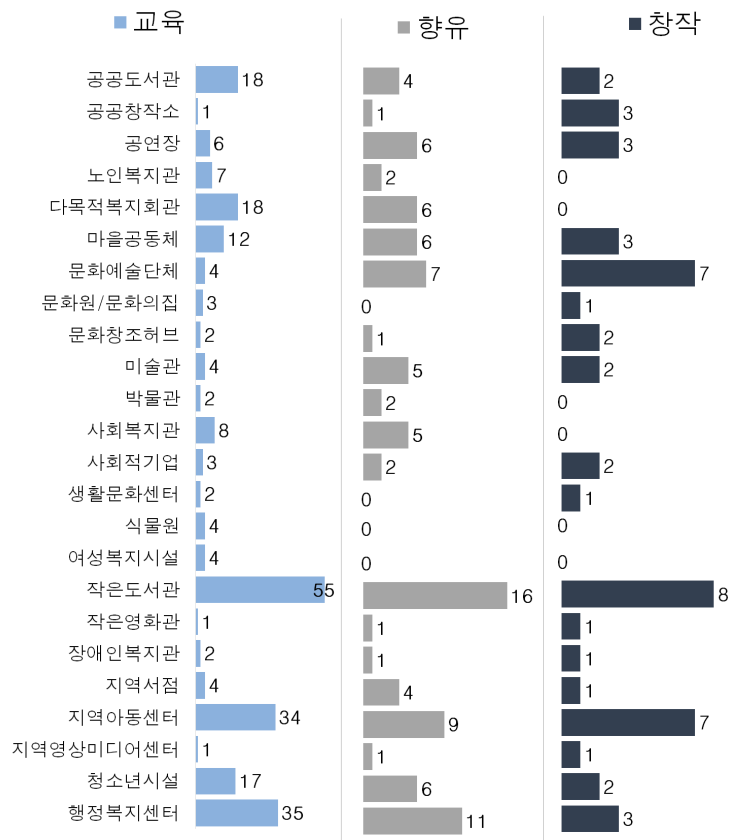
○ 기관/단체의 활동유형을 살펴보면, 84.1%는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31.7%는 향유활동, 14.7%는 창작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수 : 전체 응답자(n=252), 단위 : %, 중복응답]



[그림 2-13] 기관/단체 문화예술 활동 유형

[사례수 : 지역구별 전체 응답자, 단위 : %, 중복응답]



[그림 2-14] 기관/단체 유형별 문화예술 활동 유형

○ 기관/단체의 유형별 문화예술 활동을 살펴보면, 교육활동은 노인복지관, 문화원/문화의집, 사회적기업, 생활문화센터, 식물원, 여성복지시설, 작은영화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향유활동은 작은영화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창작활동은 공공창작소, 작은영화관,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각각 100.0%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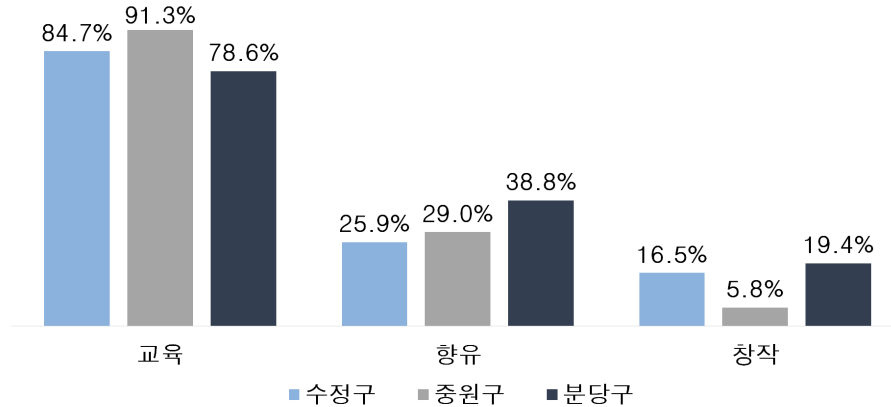
[표 2-10] 기관/단체 유형별 문화예술 활동 유형

[사례수 : 기관/단체 유형별 전체 응답자, 단위 : %]

		사례수	교육		향유		창작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전 체		(252)	84.1	(212)	31.7	(80)	14.7	(37)
기관/단체 유형	공공도서관	(19)	94.7	(18)	21.1	(4)	10.5	(2)
	공공창작소	(3)	33.3	(1)	33.3	(1)	100.0	(3)
	공연장	(9)	66.7	(6)	66.7	(6)	33.3	(3)
	노인복지관	(7)	100.0	(7)	28.6	(2)	0.0	(0)
	다목적복지회관	(19)	94.7	(18)	31.6	(6)	0.0	(0)
	마을공동체	(16)	75.0	(12)	37.5	(6)	18.8	(3)
	문화예술단체	(8)	50.0	(4)	87.5	(7)	87.5	(7)
	문화원/문화의집	(3)	100.0	(3)	0.0	(0)	33.3	(1)
	문화창조허브	(3)	66.7	(2)	33.3	(1)	66.7	(2)
	미술관	(7)	57.1	(4)	71.4	(5)	28.6	(2)
	박물관	(3)	66.7	(2)	66.7	(2)	0.0	(0)
	사회복지관	(11)	72.7	(8)	45.5	(5)	0.0	(0)
	사회적기업	(3)	100.0	(3)	66.7	(2)	66.7	(2)
	생활문화센터	(2)	100.0	(2)	0.0	(0)	50.0	(1)
	식물원	(4)	100.0	(4)	0.0	(0)	0.0	(0)
	여성복지시설	(4)	100.0	(4)	0.0	(0)	0.0	(0)
	작은도서관	(62)	88.7	(55)	25.8	(16)	12.9	(8)
	작은영화관	(1)	100.0	(1)	100.0	(1)	100.0	(1)
	장애인복지관	(2)	100.0	(2)	50.0	(1)	50.0	(1)
	지역서점	(7)	57.1	(4)	57.1	(4)	14.3	(1)
	지역아동센터	(37)	91.9	(34)	24.3	(9)	18.9	(7)
	지역영상미디어센터	(1)	100.0	(1)	100.0	(1)	100.0	(1)
	청소년시설	(19)	89.5	(17)	31.6	(6)	10.5	(2)
	행정복지센터	(42)	83.3	(35)	26.2	(11)	7.1	(3)

○ 기관/단체의 활동 유형을 지역구별로 살펴보면, 교육활동은 중원구가 91.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향유, 창작활동은 분당구가 각각 38.8%와 19.4%로 높게 형성되어 있다.

[사례수 : 지역구별 전체 응답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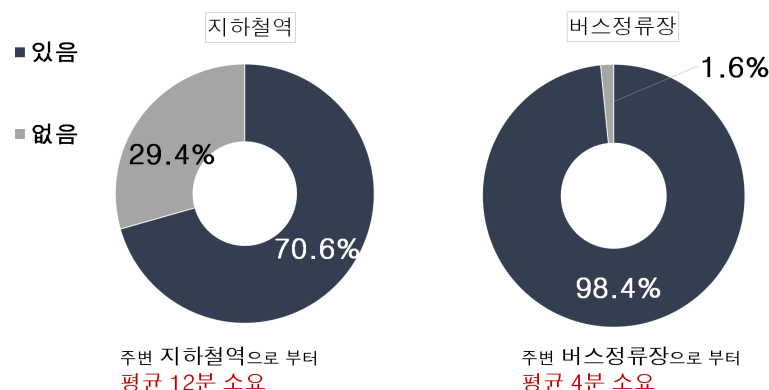
[그림 2-15] 지역구별 기관/단체 문화예술 활동 유형

7) 기관/단체의 대중교통 연계 현황

○ 기관/단체의 70.6%는 주변에 지하철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간에서 인접한 지하철역까지 평균적으로 12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 기관/단체의 98.4%는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간에서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 평균적으로 4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례수 : 전체 응답자(n=252),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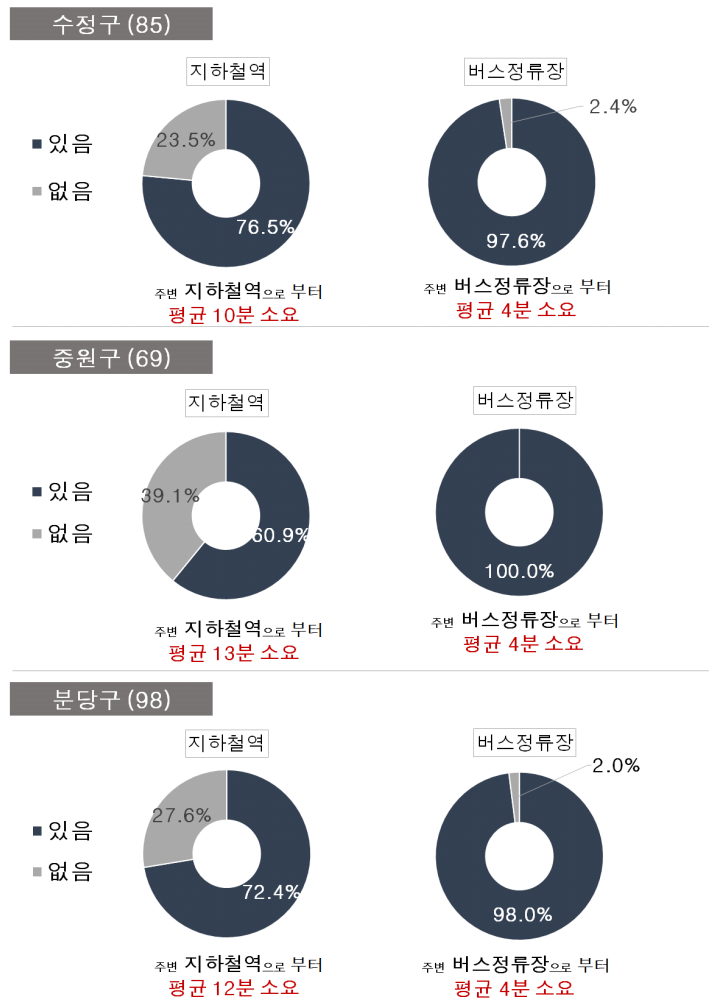


[그림 2-16] 기관/단체 대중교통 연계 현황

○ 지역구별로 살펴보면, 주변에 지하철역이 있는 기관/단체는 수정구 76.5%, 중원구 60.9%, 분당구 72.4%로 조사되었으며, 공간에서 인접한 지하철역까지 평균적으로 수정구 10분, 중원구 13분, 분당구 12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지역구별로 살펴보면,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는 기관/단체는 수정구 97.6%, 중원구 100.0%, 분당구 98.0%로 조사되었으며, 공간에서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 모두 평균적으로 4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례수 : 지역구별 전체 응답자, 단위 : %]



[그림 2-17] 지역구별 기관/단체 대중교통 연계 현황

8) 기관/단체 내 공간 보유 여부

○ 기관/단체가 활용 중인 공간의 보유 현황은, 화장실 98.8%, 사무실 88.5%, 강의실 79.0%, 창고 71.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형 특성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공간의 종류 차이가 나타난다.

[사례수 : 전체 응답자(n=252), 단위 : %, 개, 중복응답]

	공간 보유 비율(%)	평균 보유 개수(개)
화장실	98.8%	4개
사무실	88.5%	2개
강의실	79.0%	3개
창고	71.0%	2개
주차장	67.5%	2개
회의실	65.1%	1개
엘리베이터	55.2%	2개
탕비실	41.3%	2개
물품보관함	38.1%	3개
다목적홀	37.7%	1개
연습실	32.9%	2개
샤워실	31.3%	2개
탈의실	27.4%	2개
체력단련실	25.4%	1개
창작실	24.2%	1개
공연장	22.6%	1개
카페	20.6%	1개
전시장	16.3%	1개
유아놀이방	10.7%	1개
녹음실	8.7%	1개
영상편집실	7.9%	1개
요리공방	7.5%	1개
목공방	2.8%	1개
도예공방	0.8%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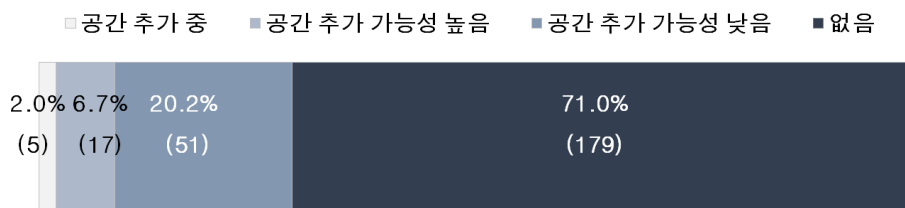
[그림 2-18] 기관/단체 내 공간 보유 여부

9) 1년 이내 공간 추가 확보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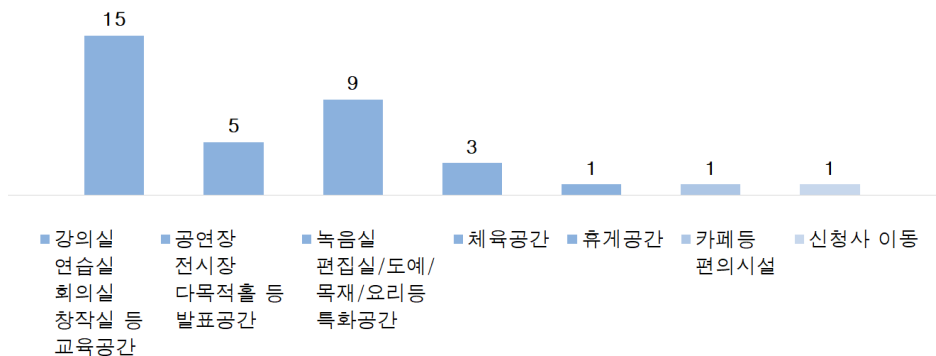
○ 기관/단체의 91.2%는 공간 추가 가능성이 없거나 낮다고 응답하였으며, 공간의 추가 가능성이 높거나 추가중이라고 응답한 기관/단체는 8.7%로 확인되었다. 또한 교육공간 68.2%, 특화공간 40.9%, 발표공간 22.7%의 순으로 공간을 추가하거나, 추가할 것으로 나타난다.

[사례수 : 전체 응답자(n=252), 단위 : %]

향후 1년 이내 공간 추가 확보 가능성 여부(252)



향후 1년 이내 공간 추가 확보 가능성 여부(22)



향후 추가 확보 가능한 공간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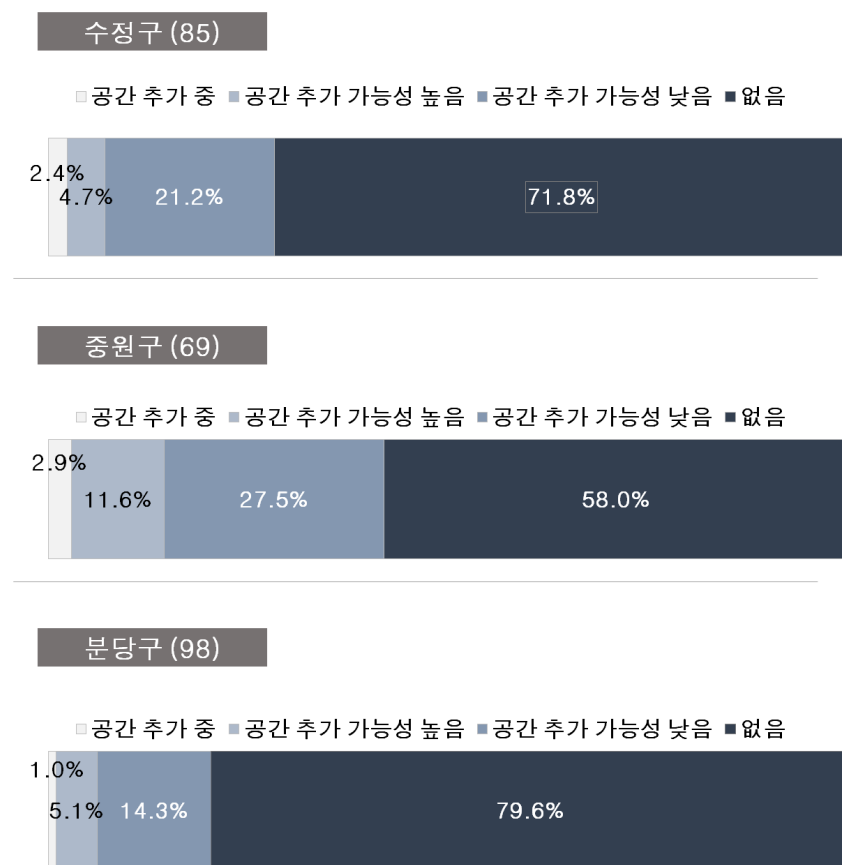
약 231.45㎡, 25석

[그림 2-19] 향후 1년 이내 공간 추가 확보 가능성

○ 지역구별로 1년 이내에 공간 추가 확보 가능성을 살펴보면, 중원구 14.5%, 수정구 7.1%, 분당구 6.1% 순으로 나타난다.

중원구의 경우, 11.6%가 추가 확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 이는 수정구 대비 6.9%, 분당구 대비 6.5%가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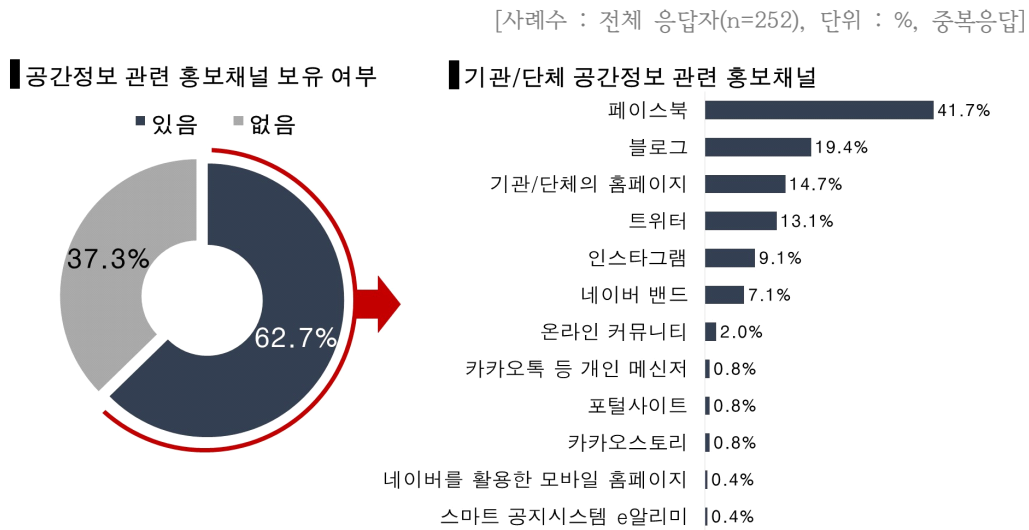
[사례수 : 지역구별 전체 응답자, 단위 : %]



[그림 2-20] 지역구별 향후 1년 이내 공간 추가 확보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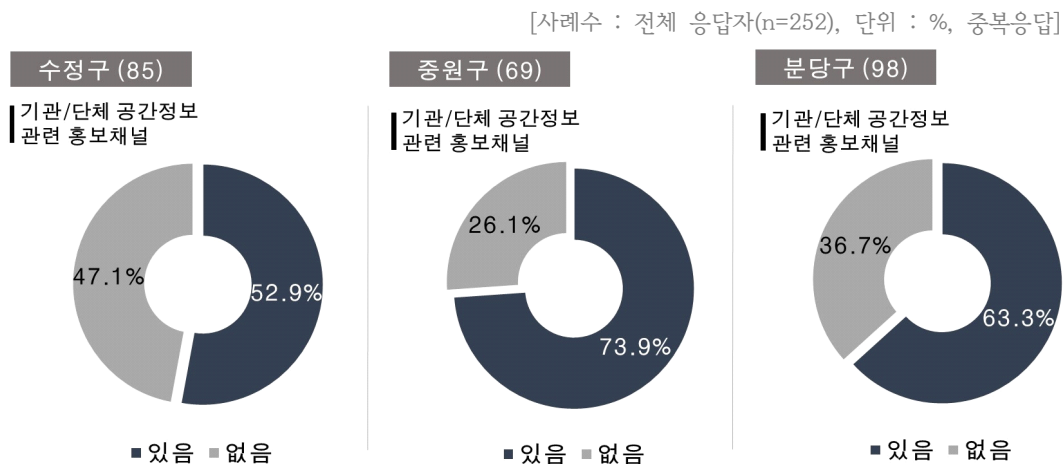
10) 공간 정보 관련 홍보채널

○ 기관/단체의 62.7%는 공간정보 관련 홍보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페이스북(47.7%)과 블로그(19.4%)를 홍보채널을 이용하고 있다.



[그림 2-21] 공간정보 관련 홍보채널 보유 여부

○ 지역구별로 공간정보 관련 홍보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을 살펴보면, 중원구가 73.9%로 채널 보유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분당구 63.3% , 수정구 52.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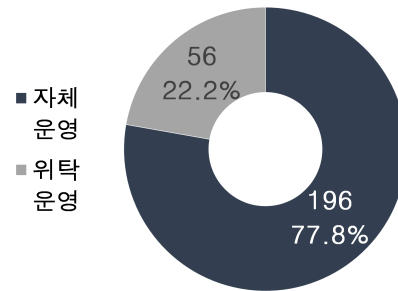
[그림 2-22] 지역구별 공간정보 관련 홍보채널 보유 여부

2. 공간 운영 현황

1) 공간 운영 방식

[사례수 : 전체 응답자(n=252),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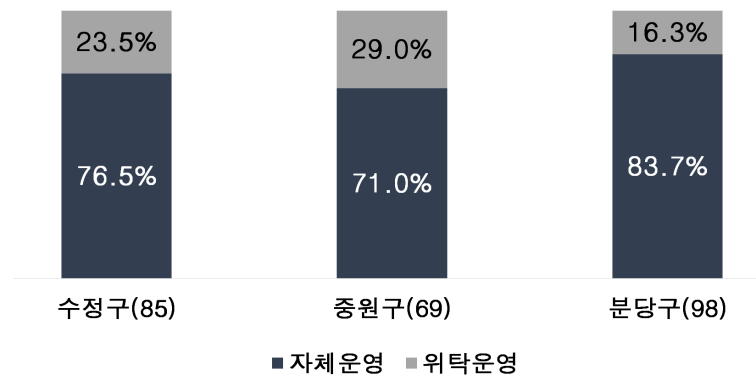
○ 성남 소재 기관/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간은 주로 위탁운영보다 자체운영이 77.8%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23] 공간 운영 방식

○ 3개구 모두 위탁운영보다 자체운영 방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분당구가 83.7%, 수정구 76.5%, 중원구 71.0%의 순으로 나타난다.

[사례수 : 지역구별 전체 응답자, 단위 : %]



[그림 2-24] 지역구별 공간 운영 방식

○ 기관/단체 유형별 공간 운영 방식은, 노인복지관은 위탁운영으로만 그리고 공공창작소, 공연장, 문화예술단체, 문화창조허브, 사회적기업, 생활문화센터, 작은영화관, 지역서점,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자체운영으로만 운영되며 나머지는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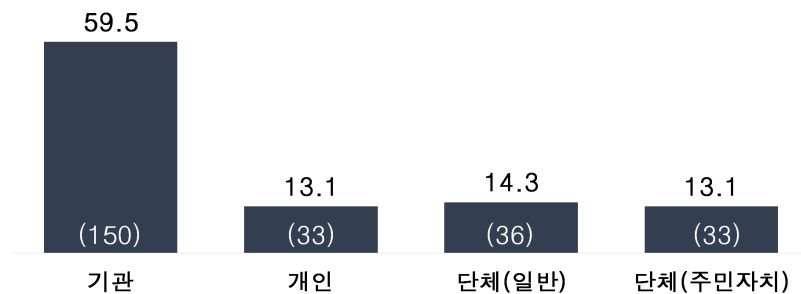
[표 2-11] 기관/단체 유형별 공간 운영 방식

		사례수	자체운영		위탁운영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전 체		252	77.8	(196)	22.2	(56)
기관/단체 유형	공공도서관	(19)	89.5	(17)	10.5	(2)
	공공창작소	(3)	100.0	(3)	0.0	(0)
	공연장	(9)	100.0	(9)	0.0	(0)
	노인복지관	(7)	0.0	(0)	100.0	(7)
	다목적복지회관	(19)	31.6	(6)	68.4	(13)
	마을공동체	(16)	87.5	(14)	12.5	(2)
	문화예술단체	(8)	100.0	(8)	0.0	(0)
	문화원/문화의집	(3)	33.3	(1)	66.7	(2)
	문화창조허브	(3)	100.0	(3)	0.0	(0)
	미술관	(7)	85.7	(6)	14.3	(1)
	박물관	(3)	66.7	(2)	33.3	(1)
	사회복지관	(11)	45.5	(5)	54.5	(6)
	사회적기업	(3)	100.0	(3)	0.0	(0)
	생활문화센터	(2)	100.0	(2)	0.0	(0)
	식물원	(4)	25.0	(1)	75.0	(3)
	여성복지시설	(4)	50.0	(2)	50.0	(2)
	작은도서관	(62)	87.1	(54)	12.9	(8)
	작은영화관	(1)	100.0	(1)	0.0	(0)
	장애인복지관	(2)	50.0	(1)	50.0	(1)
	지역서점	(7)	100.0	(7)	0.0	(0)
	지역아동센터	(37)	70.3	(26)	29.7	(11)
	지역영상미디어센터	(1)	100.0	(1)	0.0	(0)
	청소년시설	(19)	84.2	(16)	15.8	(3)
	행정복지센터	(42)	97.6	(41)	2.4	(1)

2) 공간 운영주체

○ 공간을 운영하는 주체는 기관운영 59.5%, 단체(일반)운영 14.3%, 개인운영 13.1%, 단체(주민자치)운영 13.1%의 순으로 확인된다.

[사례수 : 전체 응답자(n=252), 단위 : %,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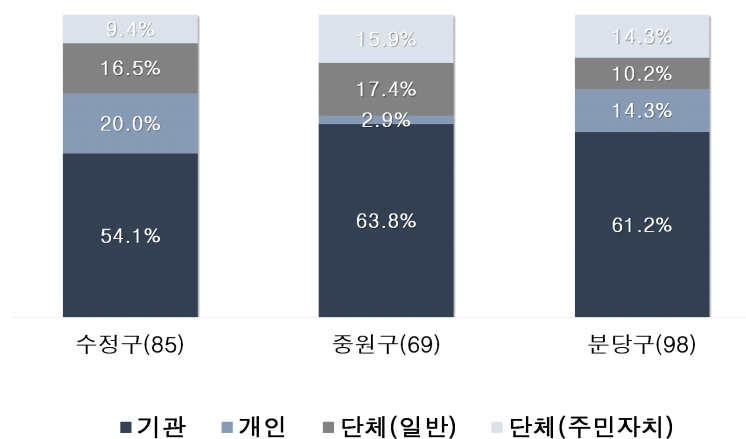


[그림 2-25] 공간 운영주체

○ 지역구별 공간 운영주체를 살펴보면

- 수정구는 지역구중 상대적으로 개인 비율이 20.0%로 가장 높았고, 단체(주민자치)운영은 9.4%로 가장 낮았다.
- 중원구는 지역구중 상대적으로 기관운영 63.8%, 단체(일반)운영 17.4%, 단체(주민자치)운영 15.9%의 비율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은 2.9%로 가장 낮았다.

[사례수 : 지역구별 전체 응답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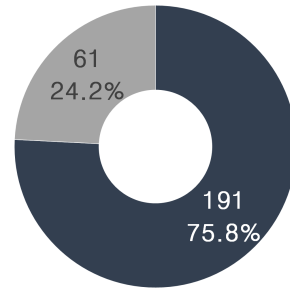


[그림 2-26] 지역구별 공간 운영주체

3) 공간 운영규정 마련 여부

[사례수 : 전체 응답자(n=252), 단위 : %]

○ 기관/단체의 75.8%는 공간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나머지 24.2%는 그렇지 않았다.



■ 운영규정 있음 ■ 운영규정 없음

[그림 2-27] 공간 운영규정 마련 여부

○ 기관/단체의 유형별 운영규정 여부는, 공공창작소, 노인복지관, 문화원/문화의 집, 박물관, 식물원, 여성복지시설, 작은영화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영상미디어 센터는 모든 기관/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을 보유하고 있다.

[표 2-12] 기관/단체 유형별 공간 운영규정 마련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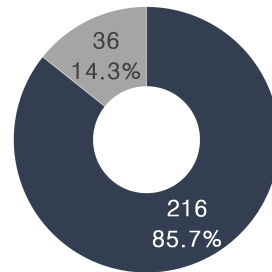
[사례수 : 기관/단체 유형별 전체 응답자, 단위 : %]

	사례수	운영규정 있음		운영규정 없음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전 체	(252)	75.8	(191)	24.2	(61)
기관/단체 유형	공공도서관	(19)	94.7	(18)	5.3
	공공창작소	(3)	100.0	(3)	0.0
	공연장	(9)	88.9	(8)	11.1
	노인복지관	(7)	100.0	(7)	0.0
	다목적복지회관	(19)	78.9	(15)	21.1
	마을공동체	(16)	68.8	(11)	31.3
	문화예술단체	(8)	62.5	(5)	37.5
	문화원/문화의집	(3)	100.0	(3)	0.0
	문화창조허브	(3)	66.7	(2)	33.3
	미술관	(7)	42.9	(3)	57.1
	박물관	(3)	100.0	(3)	0.0
	사회복지관	(11)	90.9	(10)	9.1
	사회적기업	(3)	33.3	(1)	66.7
	생활문화센터	(2)	50.0	(1)	50.0
	식물원	(4)	100.0	(4)	0.0
	여성복지시설	(4)	100.0	(4)	0.0
	작은도서관	(62)	74.2	(46)	25.8
	작은영화관	(1)	100.0	(1)	0.0
	장애인복지관	(2)	100.0	(2)	0.0
	지역서점	(7)	14.3	(1)	85.7
	지역아동센터	(37)	75.7	(28)	24.3
	지역영상미디어센터	(1)	100.0	(1)	0.0
	청소년시설	(19)	73.7	(14)	26.3
	행정복지센터	(42)	73.8	(31)	26.2

4) 공간 내 프로그램 운영 여부

[사례수 : 전체 응답자(n=252), 단위 : %]

○ 기관/단체의 85.7%는 공간 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나머지 14.3%는 그렇지 않았다.



■ 운영 프로그램 있음 ■ 운영 프로그램 없음

[그림 2-28] 공간 내 프로그램 운영 여부

○ 기관/단체의 유형별 프로그램 운영 여부는, 공공창작소, 문화예술단체, 문화원/문화의집, 문화창조허브, 박물관, 사회복지관, 식물원, 여성복지시설, 작은영화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모든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2-13] 기관/단체 유형별 공간 내 프로그램 운영 여부

[사례수 : 기관/단체 유형별 전체 응답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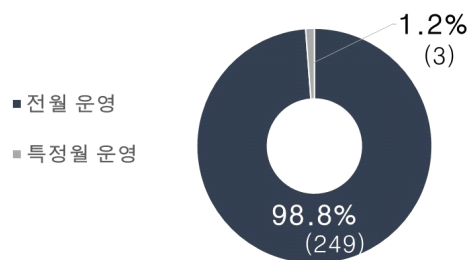
	사례수	운영 프로그램 있음		운영 프로그램 없음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전 체	(252)	85.7	(216)	14.3	(36)
기관/단체 유형	공공도서관	(19)	78.9	(15)	21.1
	공공창작소	(3)	100.0	(3)	0.0
	공연장	(9)	77.8	(7)	22.2
	노인복지관	(7)	85.7	(6)	14.3
	다목적복지회관	(19)	94.7	(18)	5.3
	마을공동체	(16)	87.5	(14)	12.5
	문화예술단체	(8)	100.0	(8)	0.0
	문화원/문화의집	(3)	100.0	(3)	0.0
	문화창조허브	(3)	100.0	(3)	0.0
	미술관	(7)	71.4	(5)	28.6
	박물관	(3)	100.0	(3)	0.0
	사회복지관	(11)	100.0	(11)	0.0
	사회적기업	(3)	33.3	(1)	66.7
	생활문화센터	(2)	50.0	(1)	50.0
	식물원	(4)	100.0	(4)	0.0
	여성복지시설	(4)	100.0	(4)	0.0
	작은도서관	(62)	82.3	(51)	17.7
	작은영화관	(1)	100.0	(1)	0.0
	장애인복지관	(2)	100.0	(2)	0.0
	지역서점	(7)	42.9	(3)	57.1
	지역아동센터	(37)	91.9	(34)	8.1
	지역영상미디어센터	(1)	100.0	(1)	0.0
	청소년시설	(19)	73.7	(14)	26.3
	행정복지센터	(42)	95.2	(40)	4.8

5) 공간 운영시간

○ 공간 운영시간은 98.8%가 전월 운영되며, 46.4%가 평일 주5일 운영으로 나타난다. 또한 1일 평균 10시간 동안 운영되고 있다.

[사례수 : 전체 응답자(n=252), 단위 : %]

월별 공간 운영(252)



월별 공간 운영(252)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단위: 건]
평일(월~금)	○	○	○	○	○			46.4%	117
주6일(월~토)	○	○	○	○	○	○		25.0%	63
주6일(화~일)		○	○	○	○	○	○	7.9%	20
일주일(월~일)	○	○	○	○	○	○	○	17.1%	43
주말(토, 일)						○	○	0.4%	1
특정 요일								3.2%	8

월별 공간 운영(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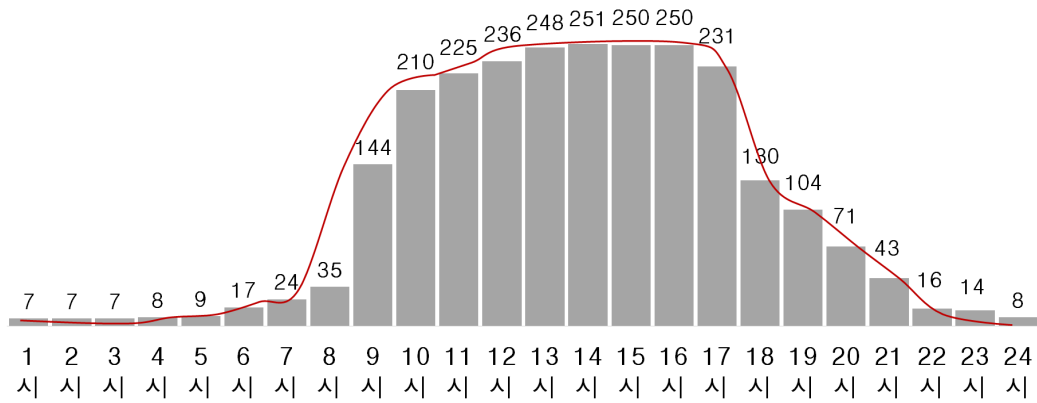
공간 1일 평균 운영시간
약 10시간



[그림 2-29] 공간 운영시간

○ 일별 공간 운영시간을 살펴보면 9시부터 18시 사이가 집중적으로 많은 공간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10시부터 17시 사이에는 252개 공간 중 200개 이상이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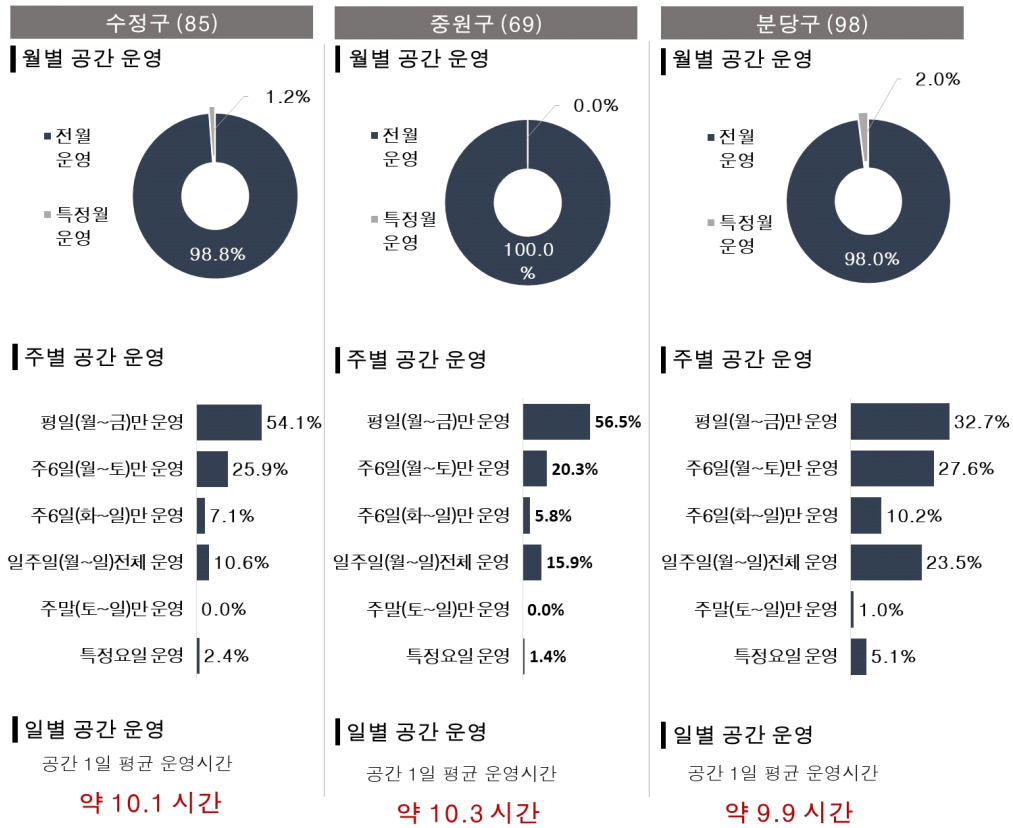
[사례수 : 전체 응답자(n=252), 단위 : 개]



[그림 2-30] 공간 운영시간 - 일별 집중 운영시간

- 지역구별 공간 운영시간은 대부분 전월 운영하고 있으며, 주 5일 이상 근무하는 비율이 높다.
- 수정구는 98.8%가 전월운영, 54.1%가 평일(월~금) 운영으로 가장 많았으며, 1일 평균 약 10.1시간 동안 운영된다.
- 중원구는 모두가 전월운영하며, 56.5%가 평일(월~금) 운영으로 가장 많았으며, 1일 평균 약 10.3시간 동안 운영된다.
- 분당구는 98.0%가 전월 운영, 32.7%가 평일(월~금) 운영으로 가장 많았으며, 1일 평균 약 9.9시간 운영된다.

[사례수 : 지역구별 전체 응답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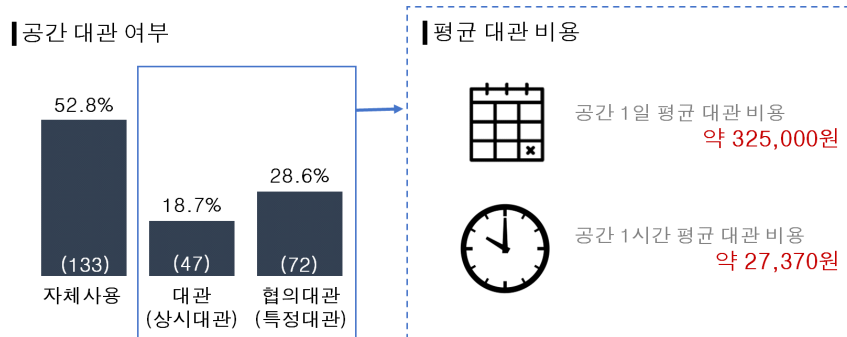


[그림 2-31] 지역구별 공간 운영시간

6) 공간 대관 여부(유형)

○ 기관/단체의 18.7%는 상시대관을 하고 있으며, 공간의 평균 1일 대관 비용은 325,000원, 평균 1시간 대관 비용은 27,370원으로 확인되었다.

[사례수 : 전체 응답자(n=252), 단위 : %]



[그림 2-32] 공간 대관 여부(유형)

○ 기관/단체 유형별 공간 대관여부(유형)를 살펴보면, 박물관은 모두 자체 사용하고 있으며, 생활문화센터, 작은영화관,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상시대관만, 노인복지관은 협의대관만 진행되고 있다.

[표 2-14] 기관/단체 유형별 공간 대관여부(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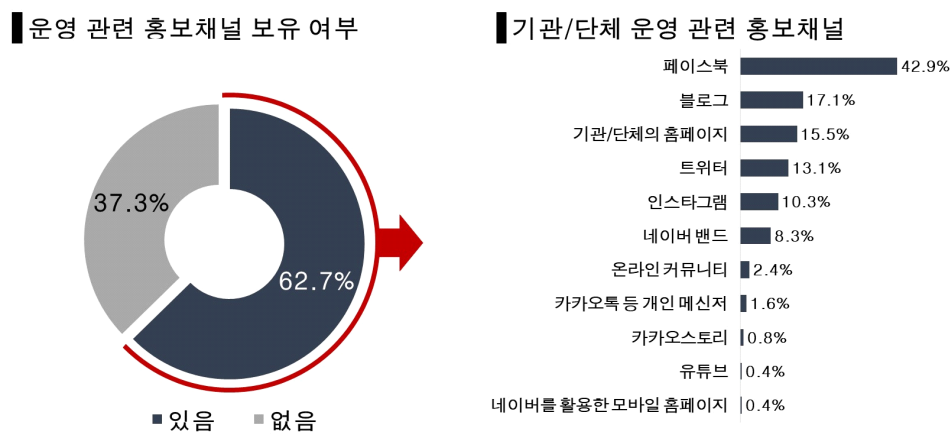
[사례수 : 기관/단체 유형별 전체 응답자, 단위 : %]

		사례수	자체사용		대관(상시대관)		협의대관(특정대관)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전 체		(252)	52.8	(133)	18.7	(47)	28.6	(72)
기관/단체 유형	공공도서관	(19)	31.6	(6)	36.8	(7)	31.6	(6)
	공공창작소	(3)	66.7	(2)	33.3	(1)	0.0	(0)
	공연장	(9)	11.1	(1)	77.8	(7)	11.1	(1)
	노인복지관	(7)	0.0	(0)	0.0	(0)	100.0	(7)
	다목적복지회관	(19)	42.1	(8)	21.1	(4)	36.8	(7)
	마을공동체	(16)	50.0	(8)	12.5	(2)	37.5	(6)
	문화예술단체	(8)	25.0	(2)	37.5	(3)	37.5	(3)
	문화원/문화의집	(3)	0.0	(0)	66.7	(2)	33.3	(1)
	문화창조허브	(3)	33.3	(1)	33.3	(1)	33.3	(1)
	미술관	(7)	57.1	(4)	28.6	(2)	14.3	(1)
	박물관	(3)	100.0	(3)	0.0	(0)	0.0	(0)
	사회복지관	(11)	27.3	(3)	27.3	(3)	45.5	(5)
	사회적기업	(3)	33.3	(1)	0.0	(0)	66.7	(2)
	생활문화센터	(2)	0.0	(0)	100.0	(2)	0.0	(0)
	식물원	(4)	75.0	(3)	25.0	(1)	0.0	(0)
	여성복지시설	(4)	75.0	(3)	0.0	(0)	25.0	(1)
	작은도서관	(62)	71.0	(44)	12.9	(8)	16.1	(10)
	작은영화관	(1)	0.0	(0)	100.0	(1)	0.0	(0)
	장애인복지관	(2)	50.0	(1)	0.0	(0)	50.0	(1)
	지역서점	(7)	71.4	(5)	0.0	(0)	28.6	(2)
	지역아동센터	(37)	81.1	(30)	2.7	(1)	16.2	(6)
	지역영상미디어센터	(1)	0.0	(0)	100.0	(1)	0.0	(0)
	청소년시설	(19)	52.6	(10)	31.6	(6)	15.8	(3)
	행정복지센터	(42)	23.8	(10)	26.2	(11)	50.0	(21)

7) 운영 관련 홍보채널

○ 기관/단체의 62.7%는 운영 관련 홍보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기관/단체가 이용하는 홍보채널은 페이스북이 42.9%로 가장 많으며, 그 외 블로그 17.1%, 홈페이지 15.5%, 트위터 13.1%, 인스타그램 10.3% 등의 순으로 이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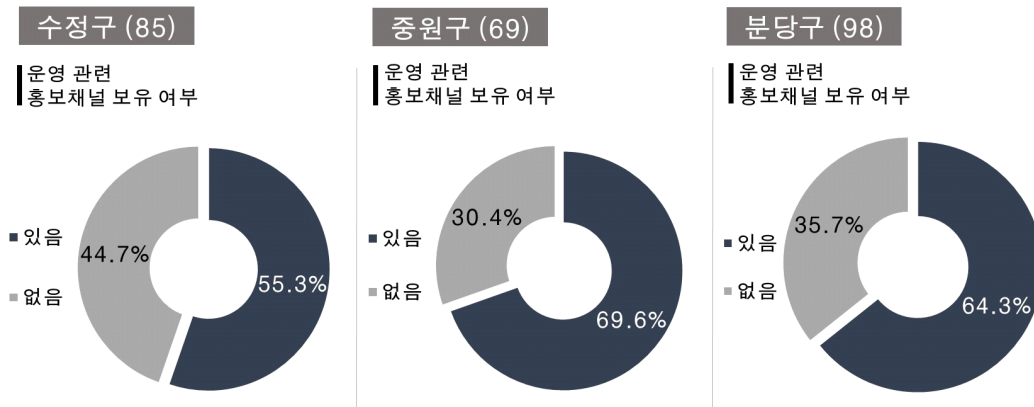
[사례수 : 전체 응답자(n=252), 단위 : %]



[그림 2-33] 운영 관련 홍보채널 보유 여부

○ 지역구별로 기관/단체의 공간정보 관련 홍보채널을 살펴보면, 중원구가 69.6%로 채널 보유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분당구 64.3%, 수정구 55.3%로 홍보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사례수 : 지역구별 전체 응답자, 단위 : %]



[그림 2-34] 지역구별 운영 관련 홍보채널 보유 여부

8)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

○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공간, 예산, 인력, 프로그램, 홍보, 기타 6개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았으며, 예산, 인력, 프로그램, 홍보, 기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5]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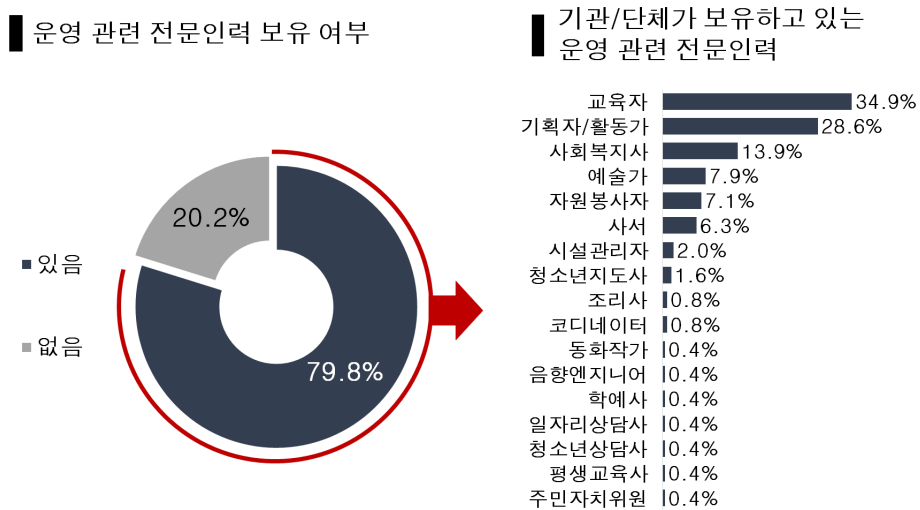
구분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	사례수
공간	공간 증축 및 분리를 통한 확충, 인테리어, 리모델링 등 시설 유지/보수, 공간 대여, 청사 신축 및 이전 공간 안전성 관리 등 공간과 관련된 의견이 가장 많음	27건
예산	프로그램 운영비, 냉난방비, 인건비, 임대료 등 다양한 형태의 예산 자원을 필요로 함	13건
인력	전문인력, 보조인력 등 인력에 대한 보강을 필요로 함	9건
프로그램	공간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함	7건
홍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시간 대관 등에 대한 홍보를 필요로 함	6건
기타	그 외, 주차공간 확장 지역주민들의 관심 및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9건

3. 공간 이용 현황

1) 운영 관련 전문인력 보유 여부

○ 기관/단체의 79.8%는 운영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보유 인력은 34.9%로 교육자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외 기획자/활동가 28.6%, 사회복지사 13.9%, 예술가 7.9%, 자원봉사자 7.1%, 사서 6.3%의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사례수 : 전체 응답자(n=252), 단위 :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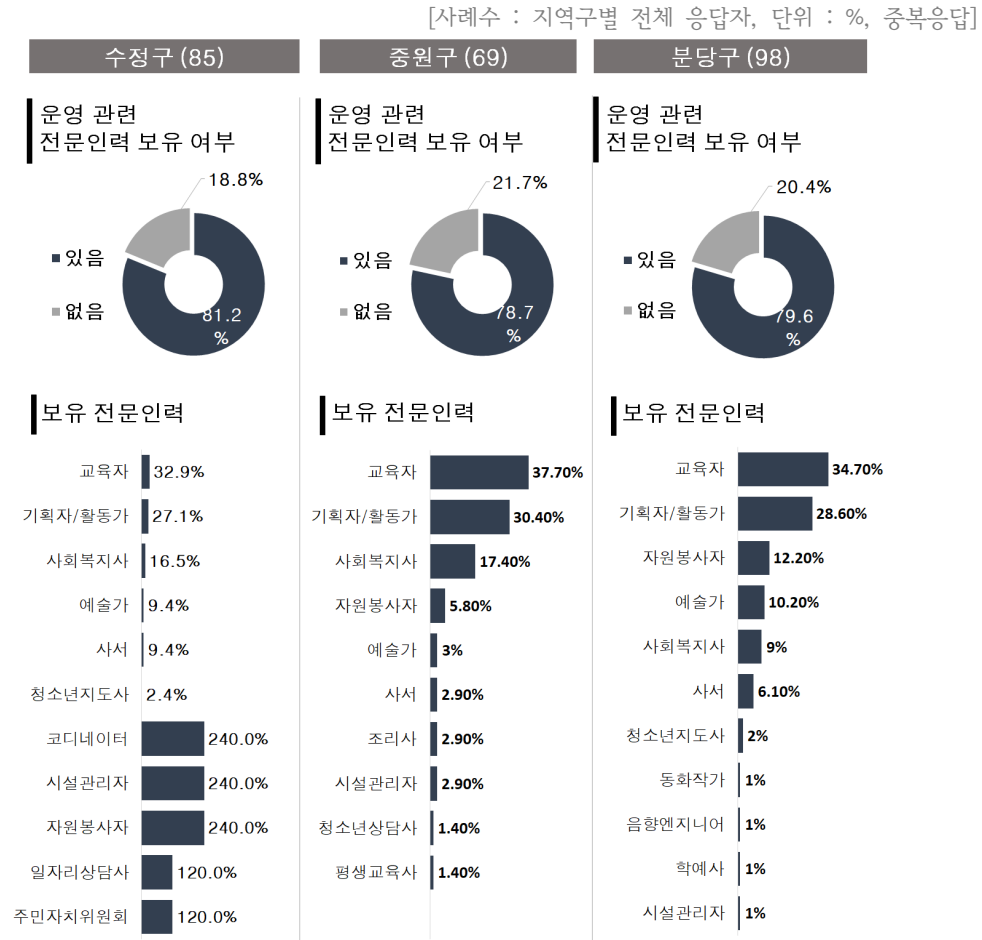
[그림 2-35] 운영 관련 전문인력 보유 여부

○ 지역구별 운영 관련 전문인력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수정구가 81.2%로 가장 높았지만, 분당구 79.6%, 중원구 78.3%의 비율을 보이며 3개구 모두 비슷하게 나타난다.

○ 지역구 모두 주로 교육자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수정구는 교육자 32.9%, 기획자/활동가 27.1%, 사회복지사 16.5% 등의 순으로 운영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 중원구는 교육자 37.7%, 기획자/활동가 30.4%, 사회복지사 17.4% 등의 순으로 운영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 분당구는 교육자 34.7%, 기획자/활동가 28.6%, 자원봉사자 12.2% 등의 순으로 운영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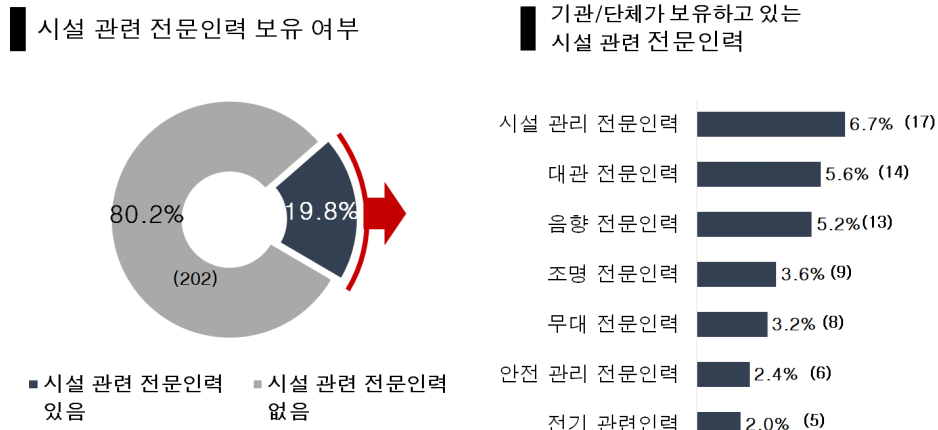


[그림 2-36] 지역구별 운영 관련 전문인력 보유 여부

2) 시설 관련 전문인력 보유 여부

- 기관/단체의 19.8%는 시설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설 관리 전문인력이 6.7%로 가장 많았고, 대관 전문인력 5.6%, 음향 전문인력 5.2%, 조명 전문인력 3.6%, 무대 전문인력 3.2%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례수 : 전체 응답자(n=252), 단위 :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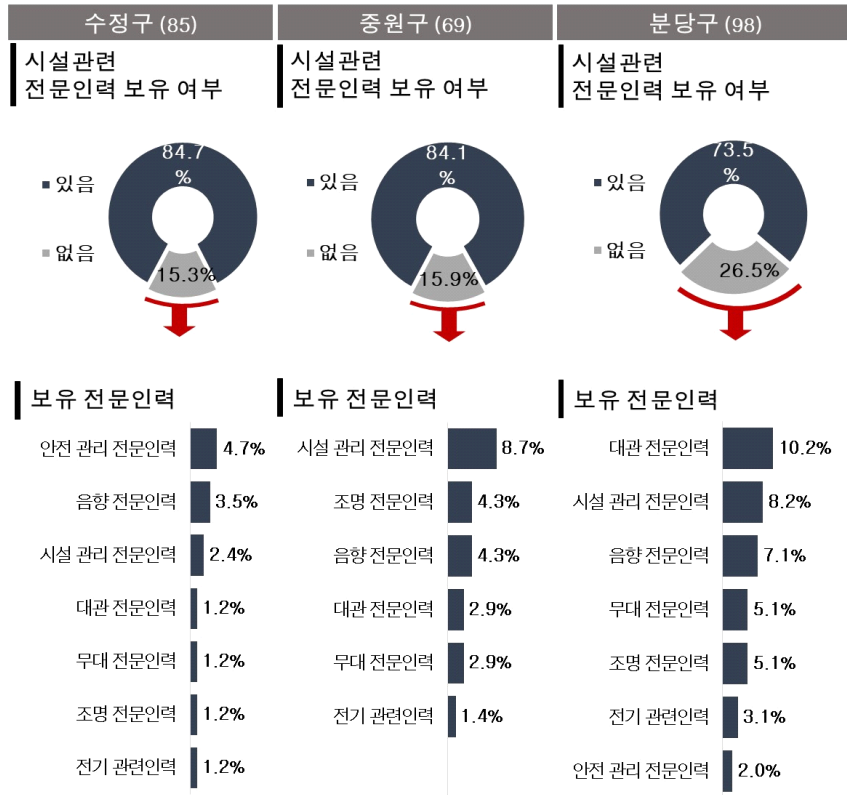


[그림 2-37] 시설 관련 전문인력 보유 여부

○ 지역구별 시설 관련 전문인력 보유 현황은 분당구가 26.5%로 가장 높고, 중원구 15.9%, 수정구 15.3%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구에 따라서 구성의 차이가 있다.

- 수정구는 안전 관리 전문인력 4.7%, 음향 전문인력 3.5%, 시설 관리 전문인력 3.5% 등으로 보유하고 있다.
- 중원구는 시설 관리 전문인력 8.7%, 조명 전문인력 4.3%, 음향 전문인력 4.3% 등으로 보유하고 있다.
- 분당구는 대관 전문인력 10.2%, 시설 관리 전문인력 8.2%, 음향 전문인력 7.1% 등으로 보유하고 있다.

[사례수 : 지역구별 전체 응답자, 단위 :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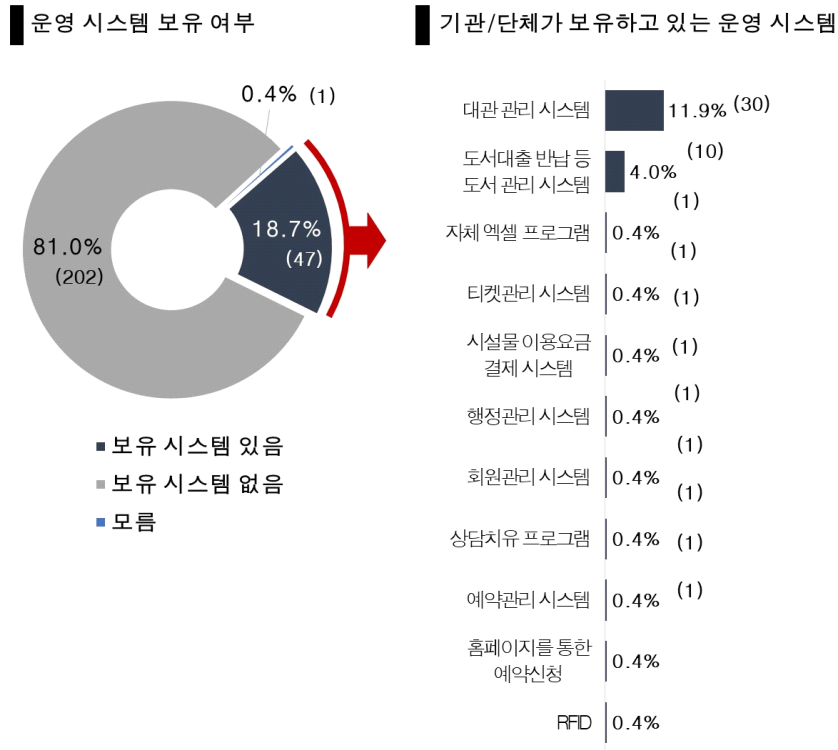
[그림 2-38] 지역구별 시설 관련 전문인력 보유 여부

3) 운영 시스템 보유 여부

○기관/단체의 81.0%는 운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보유하고 있는 시설은 18.7%로 나타난다.

○보유한 운영 시스템은 대관관리 시스템(11.9%)과 도서대출 반납 등 도서관리 시스템(4.0%)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례수 : 전체 응답자(n=252), 단위 : %, 중복응답]



[그림 2-39] 운영 시스템 보유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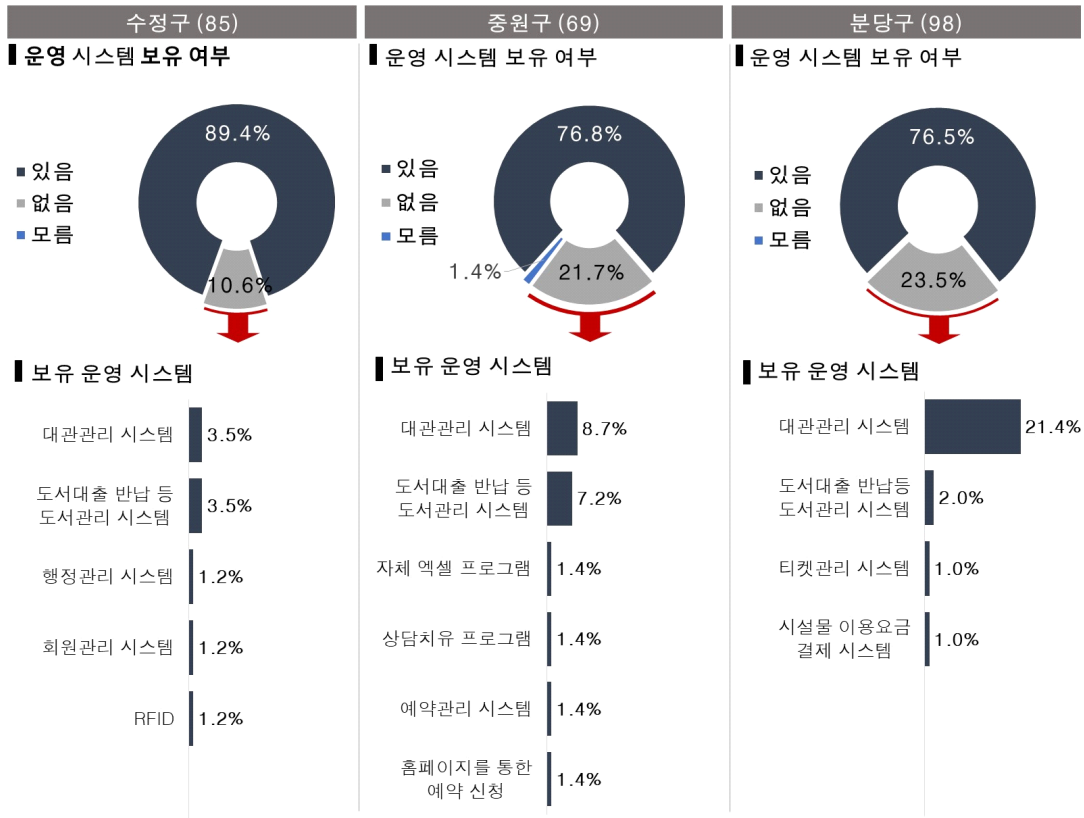
○지역구별 운영 시스템 보유 현황은 분당구가 23.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원구 21.7%, 수정구 10.6% 순으로 나타난다.

○또한 지역에 상관없이 주로 대관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 수정구는 대관관리 시스템과 도서대출 반납 등 도서관리 시스템이 3.5%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 중원구는 대관관리 시스템 8.7%, 도서대출 반납 등 도서관리 시스템 7.2% 등의 순으로 보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분당구는 대관관리 시스템 21.4%의 보유 비율이 독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례수 : 지역구별 전체 응답자, 단위 :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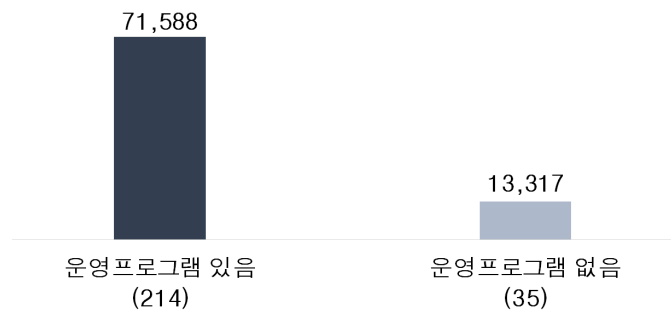


[그림 2-40] 지역구별 운영 시스템 보유 여부

4) 2018년 공간 이용자수 현황

○ 2018년 문화공간 평균 이용자수는 프로그램 운영 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운영 프로그램이 있는 공간의 이용자수는 약 71,558명으로 운영 프로그램이 없는 공간의 이용자수 13,317명에 비해 약 6배 차이가 나타난다.

[사례수 : 2018년 공간 이용자(n=249), 단위 : 명]
 **전체 252개 중 총 3개 응답 제외(19년 신규 기관 2곳, 거절 1곳)



[그림 2-41] 2018년 운영 프로그램 운영 여부에 따른 공간 이용자수 현황(평균)

○ 2018년 문화공간 평균 이용자수를 지역구별로 분류하여 보면 분당구가 80,773명으로 가장 많고, 중원구 58,306명, 수정구 47,376명의 순으로 나타난다.

[표 2-16] 2018년 지역구별 공간 이용자수 현황(평균)

[사례수 : 지역구별 전체 응답자, 단위 : 명]
 *전체 252개 중 총 3개 응답 제외(19년 신규 기관 2곳, 거절 1곳)

		사례수	2018년 공간 이용자수 평균
성남시		(249)	63,371
지역구별	수정구	(84)	47,376
	중원구	(68)	58,306
	분당구	(97)	80,773
*2018년 성남시 공간 이용자수 전체 : 15,759,423			

○ 2018년 문화공간 평균 이용자수를 기관/단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생활문화센터’의 연간 이용자수가 평균 350,02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도서관 293,551명, 노인복지관 266,94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7] 2018년 기관/단체 유형별 공간 이용자수 현황(평균)

[사례수 : 18년 공간 이용자(n=249),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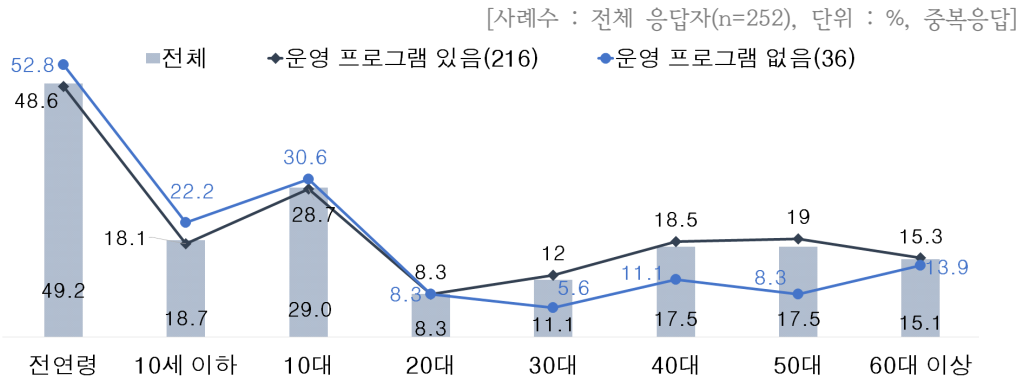
*전체 252개 중 총 3개 응답 제외(19년 신규 기관 2곳, 거절 1곳)

		사례수	이용자수 평균
전 체		(249)	63,371
기관/단체 유형	공공도서관	(19)	293,551
	공공창작소	(3)	2,667
	공연장	(9)	146,109
	노인복지관	(7)	266,944
	다목적복지회관	(19)	12,136
	마을공동체	(16)	12,815
	문화예술단체	(8)	13,280
	문화원/문화의집	(3)	49,133
	문화창조허브	(3)	33,130
	미술관	(7)	77,641
	박물관	(3)	23,105
	사회복지관	(11)	113,455
	사회적기업	(3)	917
	생활문화센터	(2)	350,025
	식물원	(4)	15,443
	여성복지시설	(3)	867
	작은도서관	(62)	16,157
	작은영화관	(1)	2,500
	장애인복지관	(2)	70,800
	지역서점	(6)	8,700
	지역아동센터	(37)	6,923
	지역영상미디어센터	(1)	7,486
	청소년시설	(19)	180,159
	행정복지센터	(41)	29,481

5) 기관/단체 공간 이용 주 연령층

○공간의 이용 연령층은 전 연령층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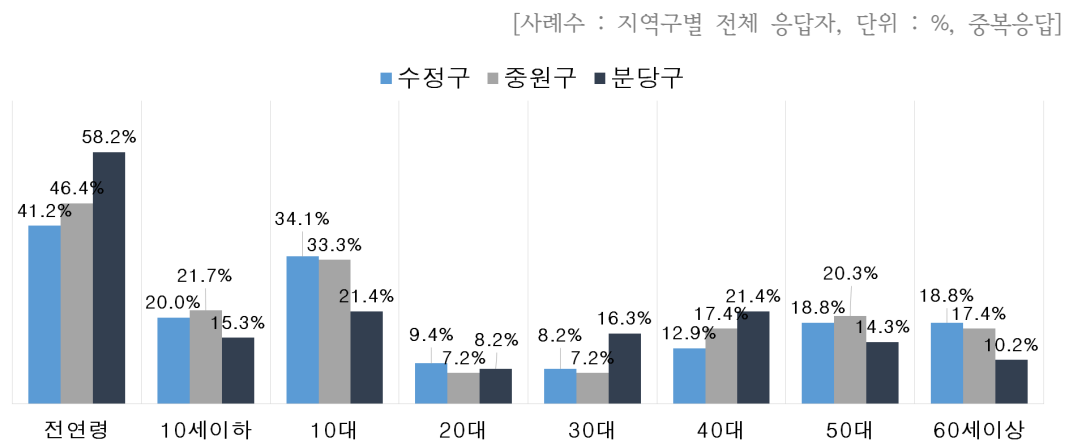
○특히 프로그램의 여부에 따라 30~50대 이용자의 차이가 보인다.



[그림 2-42] 기관/단체 공간 이용 주 연령층

○지역구별 주 이용 연령층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상이하게 분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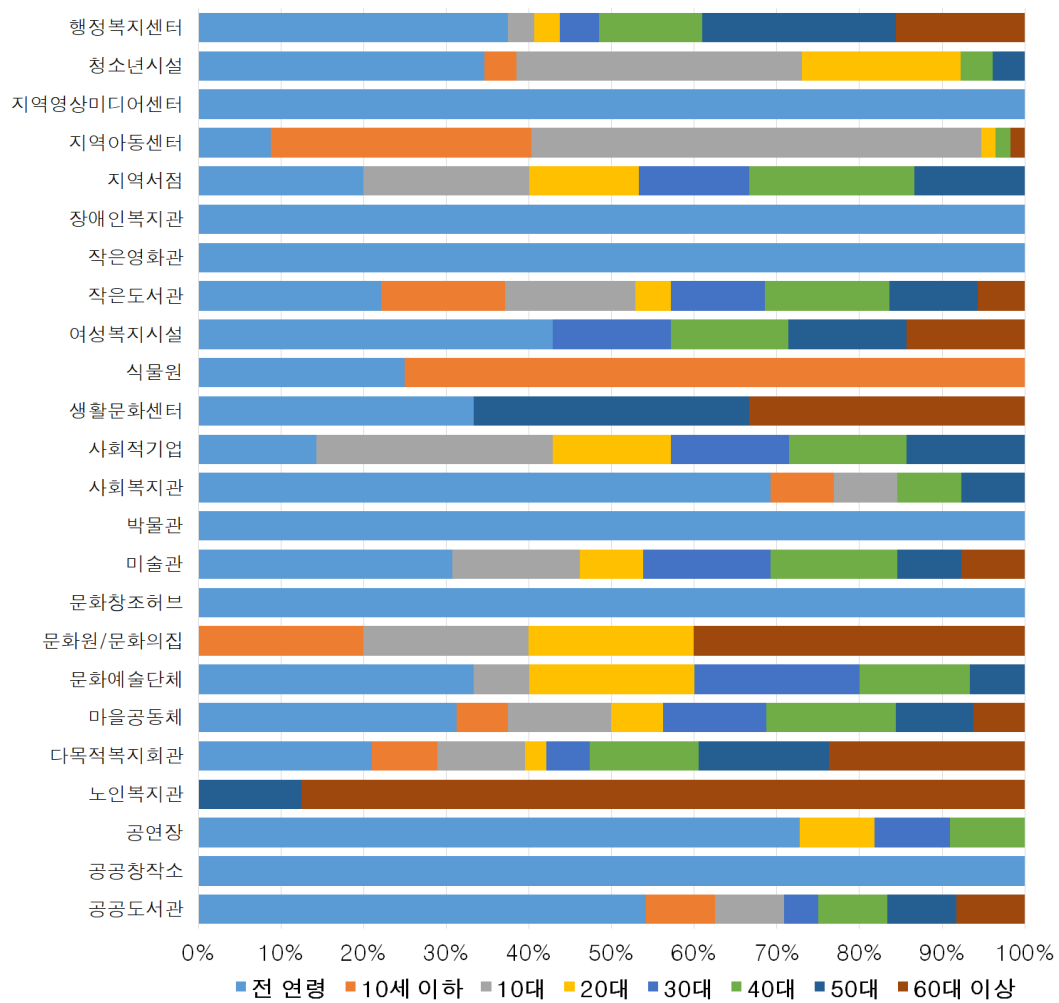
- 수정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10대 34.1%, 20대 9.4%, 60대 18.8%로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중원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10세 이하 21.7%와 50대 20.3%로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분당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 연령 58.2%, 30대 16.3%와 40대 21.4%로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43] 지역구별 공간 이용 주 연령층

○ 기관/단체 유형별 이용자를 살펴보면, 유형 특성에 따라 공간 이용 주 연령층의 큰 차이가 나타난다.

- 문화원/문화의집은 20대 이하 이용 비율이 높게 확인 된다.
- 생활문화센터, 행정복지센터는 40대 이상의 이용 비율이 높게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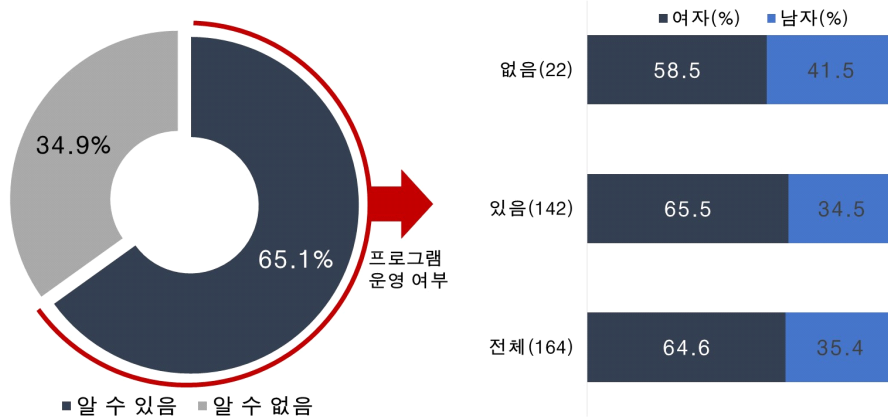
[그림 2-44] 기관/단체 유형별 공간 이용 주 연령층

6) 기관/단체 내 공간 이용자 성별 비율

○ 성별 이용자는 여자가 64.6%로 남자 35.4% 대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영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 성별 차이가 소폭 크게 나타난다.

[사례수 : 전체 응답자(n=252), 단위 : %]

■ 기관/단체 내 공간 이용자 성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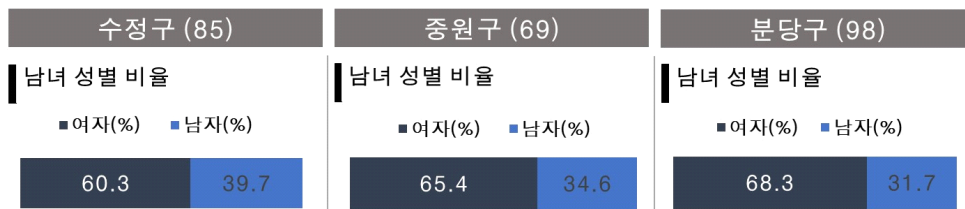
[그림 2-45] 기관/단체 내 공간 이용자 성별 비율

○ 성별을 알 수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기준의 지역구별 기관/단체 내 공간 이용자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 수정구의 경우, 여자 이용자의 비율이 60.3%로 남자 39.7% 대비 높게 나타난다.
- 중원구의 경우, 여자 이용자의 비율이 65.4%로 남자 34.6% 대비 높게 나타난다.
- 분당구의 경우, 여자 이용자의 비율이 68.3%로 남자 31.7% 대비 높게 나타난다.

[사례수 : 지역구별 전체 응답자, 단위 : %]

※ 이용자 성별 비율을 알 수 있음으로 답한 응답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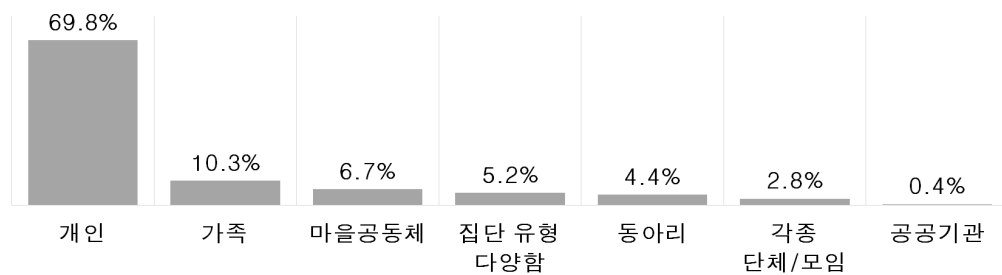


[그림 2-46] 지역구별 기관/단체 내 공간 이용자 성별 비율

7) 공간을 이용하는 대상의 집단 유형

○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 집단 유형은 개인이 69.8%로 가장 많았고, 가족 10.3%, 마을공동체 6.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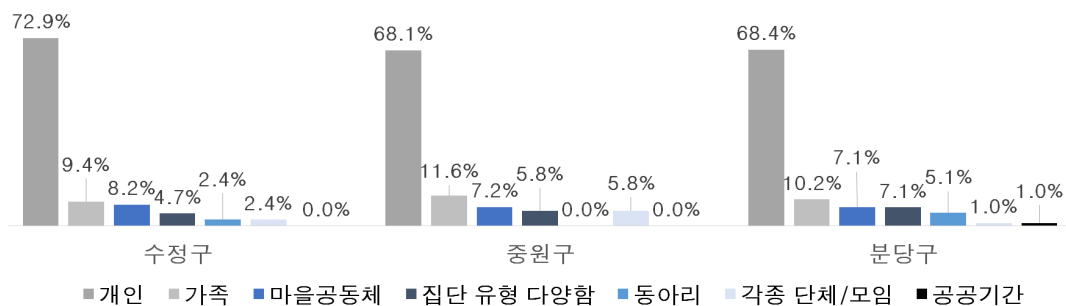
[사례수 : 전체 응답자(n=252), 단위 : %, 주요 응답만 제시]



[그림 2-47] 공간을 이용하는 대상의 집단 유형

○ 지역구별 이용자 집단 유형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개인이 많은 것으로 보여 진다.
○ 수정구의 개인 이용자가 72.9% 가장 높으며 분당구 68.4%, 중원구 68.1% 순으로 나타난다.

[사례수 : 지역구별 전체 응답자, 단위 : %]



[그림 2-48] 지역구별 공간을 이용하는 대상의 집단 유형

[표 2-18] 기관/단체 유형별 공간을 이용하는 대상의 집단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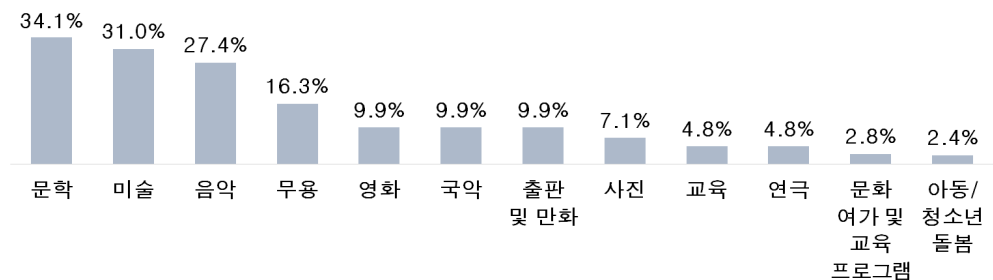
[사례수 : 전체 응답자(n=252), 단위 : %, 주요 응답만 제시]

		사례수	개인	가족	마을 공동체	집단 유형 다양함	동아리	각종 단체/ 모임	공공 기관
전 체		(252)	69.8	10.3	6.7	5.2	4.4	2.8	0.4
기관/단체 유형	공공도서관	(19)	52.6	5.3	10.5	10.5	5.3	10.5	5.3
	공공창작소	(3)	33.3	66.7	0.0	0.0	0.0	0.0	0.0
	공연장	(9)	66.7	22.2	0.0	11.1	0.0	0.0	0.0
	노인복지관	(7)	100.0	0.0	0.0	0.0	0.0	0.0	0.0
	다목적복지회관	(19)	57.9	0.0	26.3	5.3	5.3	5.3	0.0
	마을공동체	(16)	43.8	6.3	31.3	12.5	6.3	0.0	0.0
	문화예술단체	(8)	50.0	25.0	0.0	12.5	12.5	0.0	0.0
	문화원/문화의집	(3)	100.0	0.0	0.0	0.0	0.0	0.0	0.0
	문화창조허브	(3)	66.7	0.0	33.3	0.0	0.0	0.0	0.0
	미술관	(7)	57.1	42.9	0.0	0.0	0.0	0.0	0.0
	박물관	(3)	0.0	33.3	0.0	33.3	0.0	33.3	0.0
	사회복지관	(11)	45.5	0.0	9.1	18.2	27.3	0.0	0.0
	사회적기업	(3)	66.7	0.0	0.0	0.0	33.3	0.0	0.0
	생활문화센터	(2)	100.0	0.0	0.0	0.0	0.0	0.0	0.0
	식물원	(4)	75.0	0.0	0.0	25.0	0.0	0.0	0.0
	여성복지시설	(4)	50.0	50.0	0.0	0.0	0.0	0.0	0.0
	작은도서관	(62)	59.7	19.4	11.3	1.6	3.2	4.8	0.0
	작은영화관	(1)	100.0	0.0	0.0	0.0	0.0	0.0	0.0
	장애인복지관	(2)	50.0	0.0	0.0	50.0	0.0	0.0	0.0
	지역서점	(7)	85.7	14.3	0.0	0.0	0.0	0.0	0.0
	지역아동센터	(37)	89.2	2.7	5.4	0.0	2.7	0.0	0.0
	지역영상미디어센터	(1)	100.0	0.0	0.0	0.0	0.0	0.0	0.0
	청소년시설	(19)	84.2	5.3	0.0	5.3	5.3	0.0	0.0
	행정복지센터	(42)	90.7	0.0	4.7	0.0	2.3	0.0	0.0

8) 공간을 이용하는 대상의 이용 장르

- 공간을 이용하는 대상의 이용 장르는 문학 34.1%, 미술 31.0%, 음악 27.4%의 순으로 나타난다.

[사례수 : 전체 응답자(n=252), 단위 :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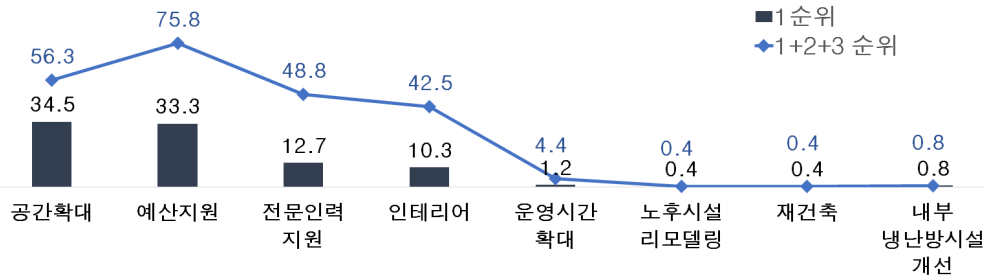


[그림 2-49] 공간을 이용하는 대상의 이용 장르

9) 공간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

○ 공간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 1순위로는 공간 확대가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예산지원 33.3%, 전문인력 지원 12.7%로 나타났다.

[사례수 : 전체 응답자(n=252), 단위 : %, 중복응답]



[그림 2-50] 공간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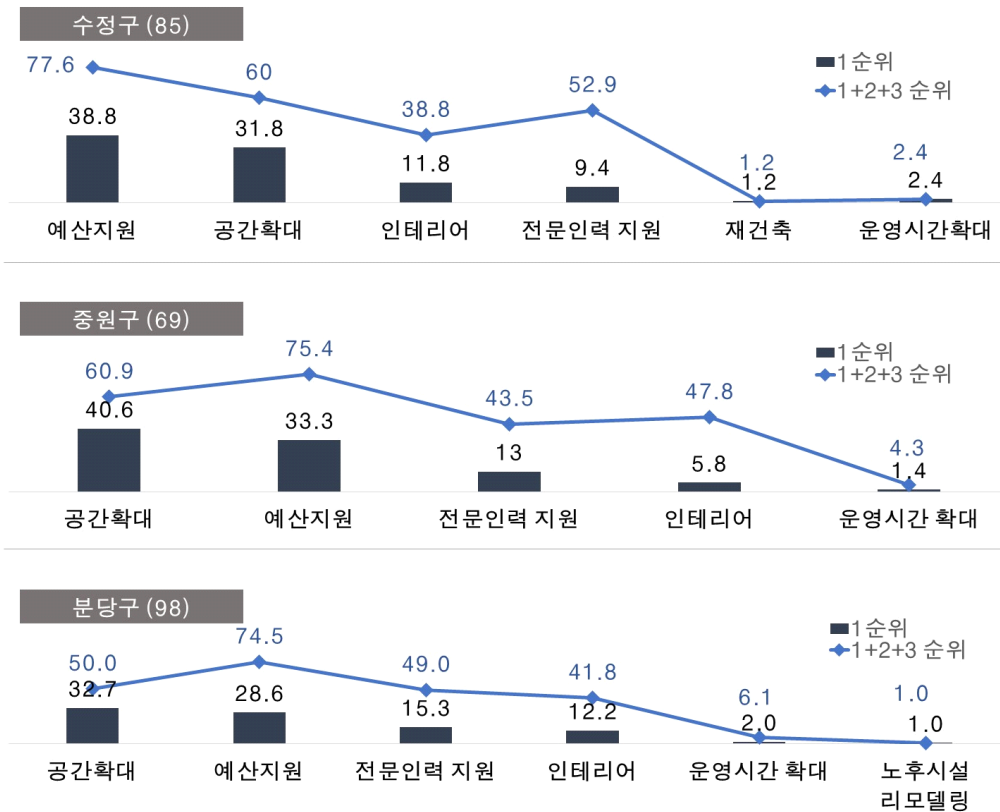
[표 2-19] 기관/단체 유형별 공간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

[사례수 : 전체 응답자(n=252), 단위 : %, 중복응답]

1순위 기준	사례수	공간 확대	예산 지원	전문인력 지원	인테리어	운영시간 확대	노후시설 리모델링	재건축
전 체	(252)	34.5	33.3	12.7	10.3	1.2	0.4	0.4
기관/단체 유형	공공도서관	(19)	21.1	21.1	15.8	0.0	5.3	0.0
	공공창작소	(3)	33.3	33.3	0.0	0.0	0.0	0.0
	공연장	(9)	11.1	55.6	22.2	0.0	0.0	0.0
	노인복지관	(7)	71.4	14.3	0.0	14.3	0.0	0.0
	다목적복지회관	(19)	42.1	36.8	10.5	10.5	0.0	0.0
	마을공동체	(16)	12.5	62.5	18.8	6.3	0.0	0.0
	문화예술단체	(8)	37.5	62.5	0.0	0.0	0.0	0.0
	문화원/문화의집	(3)	33.3	66.7	0.0	0.0	0.0	0.0
	문화창조허브	(3)	0.0	66.7	0.0	0.0	0.0	0.0
	미술관	(7)	28.6	71.4	0.0	0.0	0.0	0.0
	박물관	(3)	33.3	0.0	66.7	0.0	0.0	0.0
	사회복지관	(11)	54.5	27.3	0.0	18.2	0.0	0.0
	사회적기업	(3)	33.3	66.7	0.0	0.0	0.0	0.0
	생활문화센터	(2)	50.0	0.0	0.0	0.0	0.0	0.0
	식물원	(4)	75.0	25.0	0.0	0.0	0.0	0.0
	여성복지시설	(4)	50.0	0.0	0.0	50.0	0.0	0.0
	작은도서관	(62)	24.2	40.3	12.9	8.1	3.2	0.0
	작은영화관	(1)	0.0	100.0	0.0	0.0	0.0	0.0
	장애인복지관	(2)	50.0	50.0	0.0	0.0	0.0	0.0
	지역서점	(7)	0.0	57.1	0.0	28.6	0.0	0.0
	지역아동센터	(37)	29.7	37.8	13.5	13.5	0.0	0.0
	지역영상미디어센터	(1)	0.0	0.0	100.0	0.0	0.0	0.0
	청소년시설	(19)	26.3	47.4	5.3	15.8	0.0	0.0
	행정복지센터	(42)	51.2	11.6	18.6	4.7	2.3	2.3

- 지역구별 공간 활성화를 위해, 1순위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수정구는 예산지원이 38.8%, 중원구와 분당구는 각각 40.6%, 32.7%로 공간 확대에 대한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 3순위까지 고려한 개선 필요한 부분의 중요도는 지역구 상관없이 예산지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수정구 77.6%, 중원구 75.4%, 분당구 7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례수 : 지역구별 전체 응답자, 단위 : %, 중복응답]



[그림 2-51] 지역구별 공간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

제 3절 성남 기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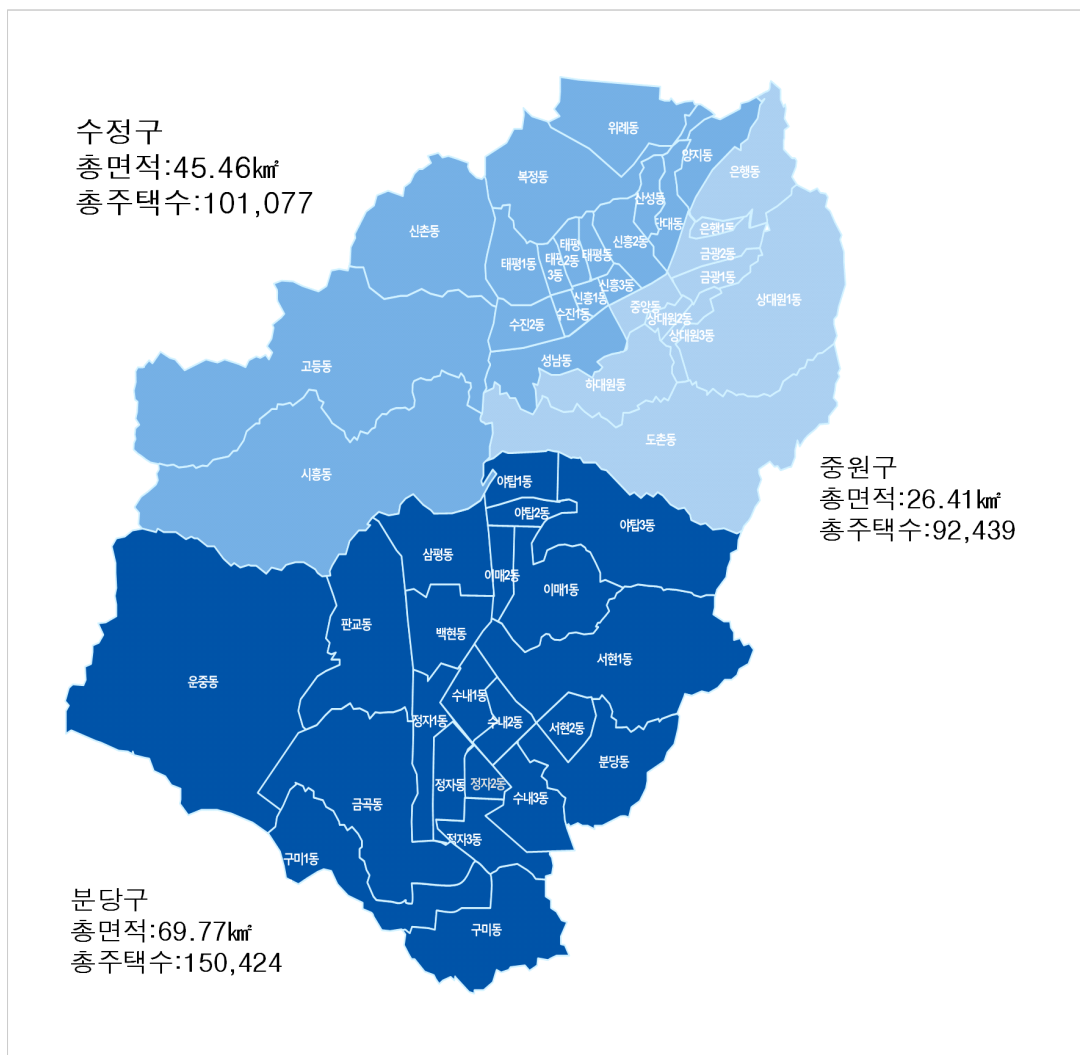
1. 기본 현황



2. 면적 및 주택 유형(수)

○ 성남의 총면적은 141.81km²이며, 분당구가 69.77km²로 가장 넓고, 수정구 45.46km², 중원구 26.41km²의 순으로 형성되어 있다.

○ 성남의 총주택수는 343,940호이며, 분당구가 150,424호로 가장 많고, 수정구 101,077호, 중원구 92,439호의 순으로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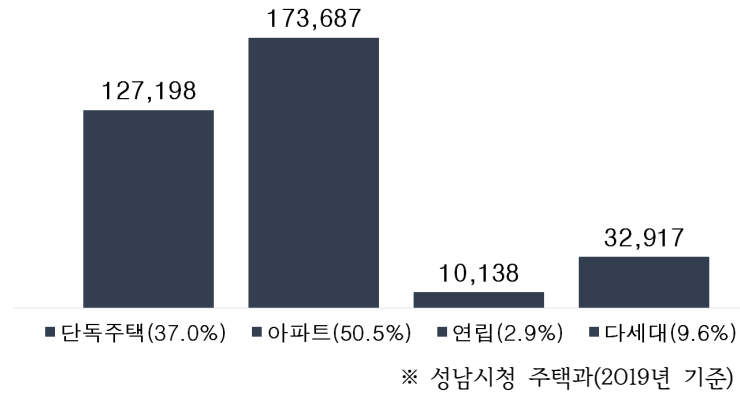


※ 면적 : 성남시홈페이지

※ 주택수 : 성남시청 주택과(201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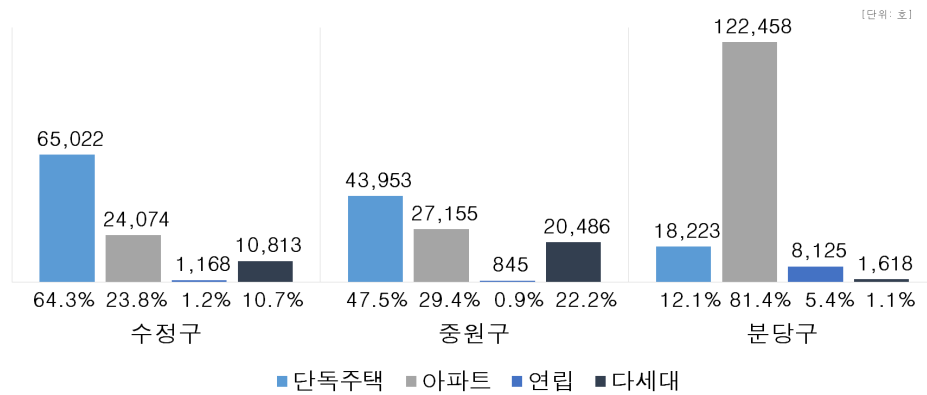
[그림 2-52] 성남시 면적 및 주택 유형(수)

○ 성남시의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50.5%로 가장 많으며, 단독주택 37.0%, 다세대 9.6%, 연립 2.9% 순으로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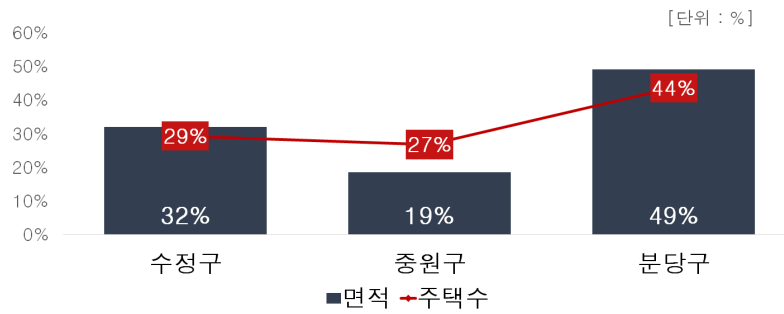
[그림 2-53] 성남시 유형별 주택수

○ 지역구별 주택 유형은, 수정구와 중원구가 가장 높은 단독주택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분당구는 아파트의 비율이 84.4%로 매우 높게 구성되어 있다.



[그림 2-54] 지역구별 주택 유형 현황

- 성남시 전체기준 지역구별 면적비율과 주택수 비율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중원구는 인구 비율은 19%인 것에 비하여 주택수 비율은 27%로, 면적대비 높은 주택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54] 지역구별 면적 및 주택 비율

3. 인구 현황

1) 전체 인구 및 세대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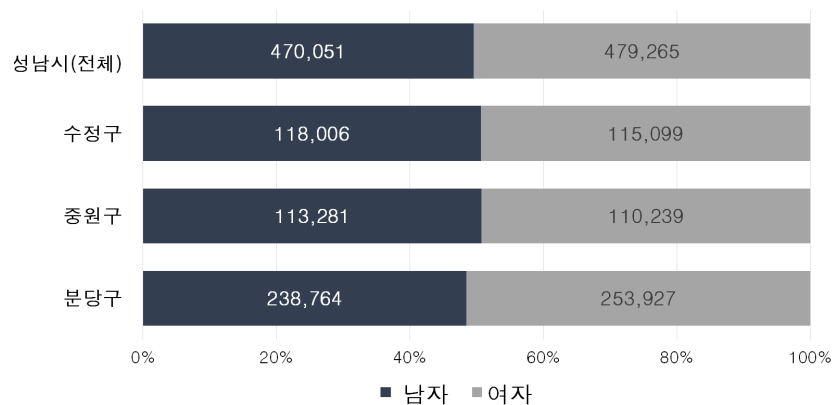
○ 성남시 전체 인구수는 949,316명, 세대수는 398,627가구이며, 전체 남녀 인구수는 여자 479,265명, 남자 470,051명으로 여자 인구수가 소폭 많다.

[표 2-20] 전체 인구수(명)/세대수(가구)/남, 여 인구수(명)

구분	인구수(명)	세대수(가구)	남자(명)	여자(명)
성남시(전체)	949,316	398,627	470,051	479,265
분당구	492,691	108,440	238,764	253,927
수정구	233,105	99,706	118,006	115,099
중원구	223,520	190,481	113,281	110,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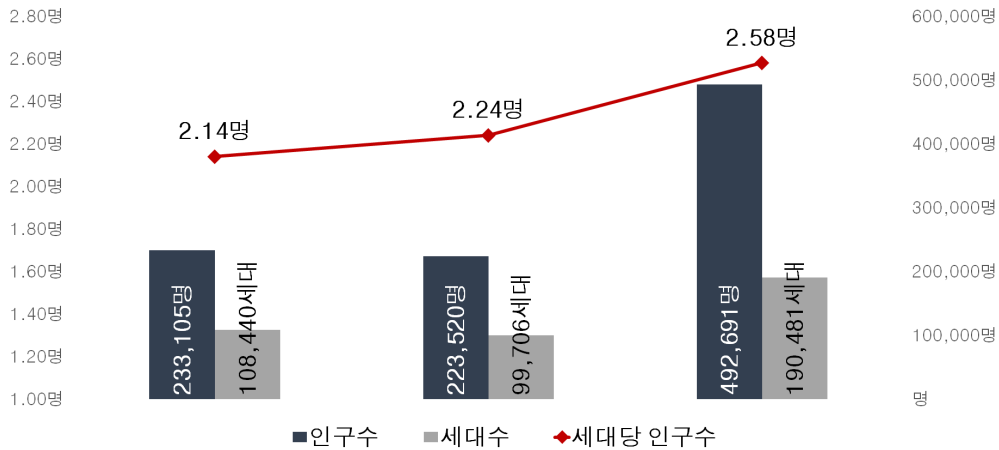
※ 성남통계정보 (2019.04.30.기준)

○ 지역구별 남녀 인구수를 살펴보면 수정구와 중원구는 남자 인구가 여자 인구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분당구는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보다 높다.



[그림 2-55] 지역구별 남자, 여자 인구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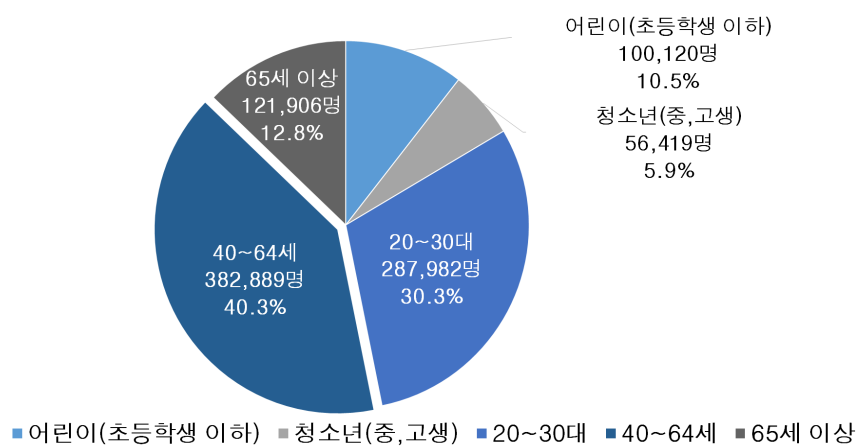
- 지역구별 인구수는 분당구가 가장 높으며, 세대당 인구수는 수정구 2.15명, 중원구 2.24명, 분당구 2.59명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56] 지역구별 인구수(명) · 세대수(가구) · 세대당 인구수(명)

2) 연령별 인구 현황

- 전체 연령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40~64세가 40.3%로 가장 많으며, 20~30대 30.3%, 65세 이상 12.8%, 어린이 10.5%, 청소년 5.9%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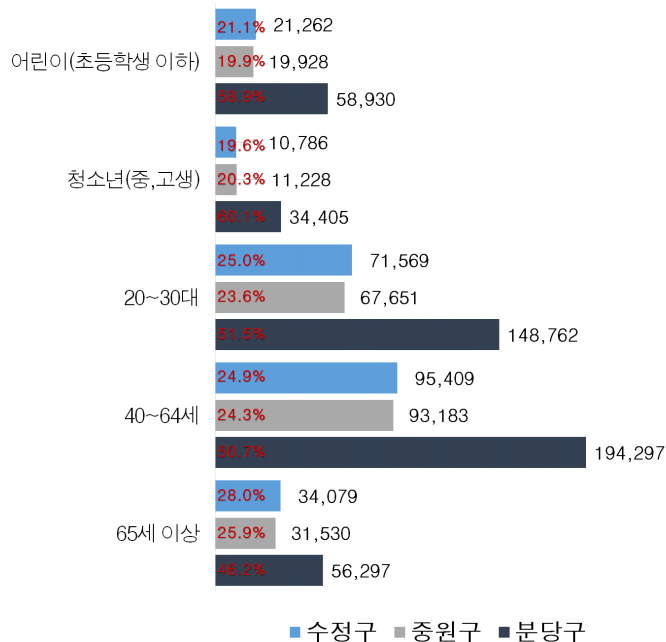
[그림 2-57] 성남시 전체 연령별 인구 현황

○ 지역구별 연령 인구는 수정구와 중원구에 비해 분당구의 어린이와 청소년 비율이 높고 65세 이상의 비율은 낮았다.

[표 2-21] 지역구별, 연령별 인구 현황

구분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인구수(명)	%	인구수(명)	%	인구수(명)	%	인구수(명)	%
어린이 (초등학생 이하)	100,120	10.5	21,262	9.1	19,928	8.9	58,930	12.0
청소년(중,고생)	56,419	7.2	10,786	5.7	11,228	6.2	34,405	8.3
20~30대	287,982	29.1	71,569	29.6	67,651	29.1	148,762	28.9
40~64세	382,889	40.3	95,409	40.9	93,183	41.7	194,297	39.4
65세 이상	121,906	12.8	34,079	14.6	31,530	14.1	56,297	11.4
합계	949,316	100.0	233,105	100.0	223,520	100.0	492,691	100.0

○ 앞서 확인한 바로, 상대적으로 분당구의 세대원수가 많고 어린이, 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현황을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분당구는 젊은 가구(세대)가 많으며 전반적으로 젊은 층의 인구가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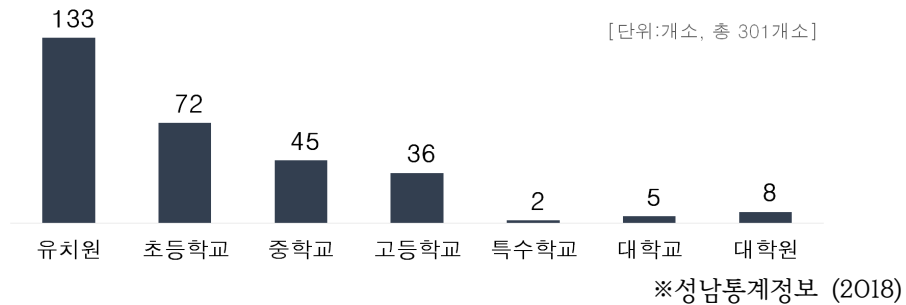


[그림 2-58] 지역구별 연령별 인구 현황

4. 교육기관 현황

1) 전체 교육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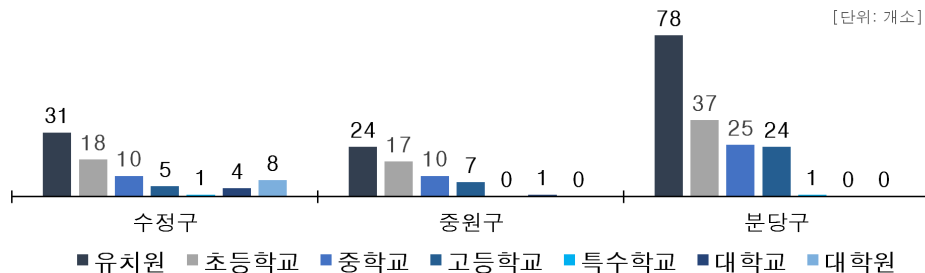
○ 성남시의 교육기관은 총 301개로 확인되었는데, 유치원이 133개로 가장 많으며, 초등학교 72개소, 중학교 45개소, 고등학교 36개소, 대학원 8개소, 대학교 5개소, 특수학교 2개소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60] 성남시 교육기관 현황

2) 지역구별 교육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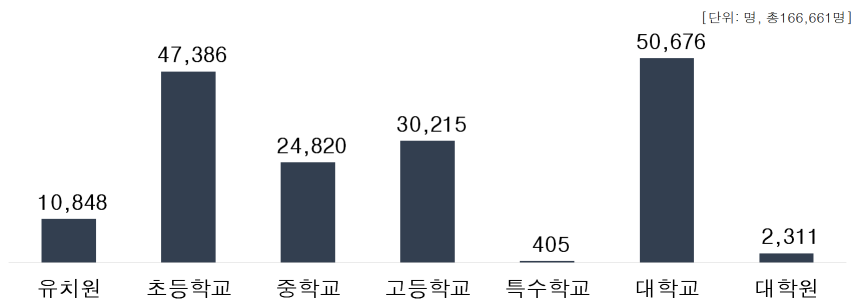
○ 지역구역별 교육기관은 수정구가 상대적으로 대학교 4개소, 대학원 8개소를 보유한 상태로 가장 많았고, 분당구는 상대적으로 유치원 78개소, 초등학교 37개소, 중학교 25개소, 고등학교 24개소로 가장 많으나 대학교와 대학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61] 지역구별 교육기관

3) 교육기관 유형별 학생 수

○ 상대적으로 대학교의 유형이 가장 많은 학생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수정구에 대부분의 대학교가 분포한 것을 반영하면 대학생 대부분은 수정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62] 교육기관 유형별 학생수

제 1절 분석을 위한 접근 관점

제 2절 공간 하드웨어(Hardware) 데이터
기반 환경 분석

1. 분석개요
2. 분석내용
3. 시사점

제 3절 공간의 소프트웨어(Software) 데이터
기반 환경 분석

1. 분석개요
2. 분석내용
3. 시사점

제 4절 공간의 휴먼웨어(Humanware) 데이터
기반 환경분석

1. 분석개요
2. 분석내용
3. 시사점

제 5절 종합 분석

1. 주요 쟁점
2. 생활밀착형 공간 방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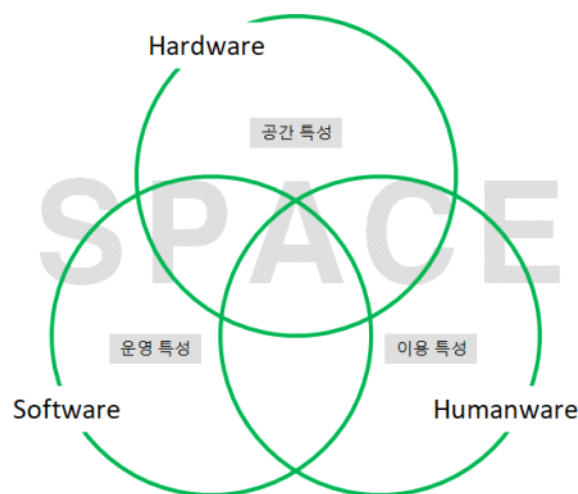
제3장 현황분석

제 1절 분석을 위한 접근 관점

앞서 조사된 성남의 기초현황과 문화자원을 배경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세 가지 측면의 관점으로 분석의 틀을 설정하고 교차분석을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연구에서 분석의 접근 관점으로 ‘하드웨어(hardware)-소프트웨어(software)-휴먼웨어(humanware)’의 상호매커니즘이 주로 이용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 이와 같은 분석의 틀을 적용함에 있어 좀 더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대상 중심 매커니즘으로서 수정·보완된 분석 관점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성’의 주제 대상이라 할 수 있는 ‘공간(space)’을 핵심요소로 접근하였다. ‘공간(space)’을 중심으로 그 위에 분석의 관점(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을 교차하여 ‘공간(space)’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요소의 매커니즘을 분석하는 접근 형태를 취하였다.



[그림 3-1] 공간을 중심으로 구성된 분석의 접근 형태

‘공간(space)’ 을 핵심요소로 설정된 분석 형태는 ‘공간의 공간 특성(하드웨어)’ ,
 ‘공간의 운영 특성(소프트웨어)’ , ‘공간의 이용 특성(휴먼웨어)’ 으로 구성하고 접
 근 관점마다 항목을 세분화 하여 분석하였다.

[표 3-1]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특성

SPACE

	Hardware	Software	Humanware
	공간 특성	운영 특성	이용 특성
기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명 · 공간유형 · 건립(운영)연도 · 공공구분 · 건립(운영)취지 · 공간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위탁 구분 · 운영주체 · 공공구분 · 인증구분 · 운영단체(인)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력 정보
주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규모 1(면적) · 공간규모 2(수량) · 시설 1(무대/조명/음향) · 시설 2(편의시설) · 시설 특이사항 ·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형태 · 가동률 · 운영규정 유무 · 대관 유무 · 프로그램 유무 · 이용비용 · 운영시간 · 이용가능 형태 · 운영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이용자 특성 · 운영 시스템 · 이용 특이사항
부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연락처 · 홍보채널 · 기타(유희)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주체 연락처 · 홍보채널 · 필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관담당 연락처 · 홍보채널

제 2절 공간의 하드웨어(Hardware) 데이터 기반 환경 분석

1. 분석개요

- 분석목적 : 성남 생활문화공동체 공간의 접근성과 연계한 분석
- 대상DB : 성남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실태조사, 성남 기초통계
- 분류체계 :
 - 기초통계 : 인구, 연령, 면적, 거주유형/지역구별, 행정동별
 - 하드웨어 데이터 : 공공/민간의 운영 유형, 유형별 시설 개수, 건립연도, 건물형태, 홍보(안내)채널
- 분석방법 : 데이터 교차분석
(기초데이터-하드웨어 데이터, 하드웨어 데이터-하드웨어 데이터)
- 교차분석 구조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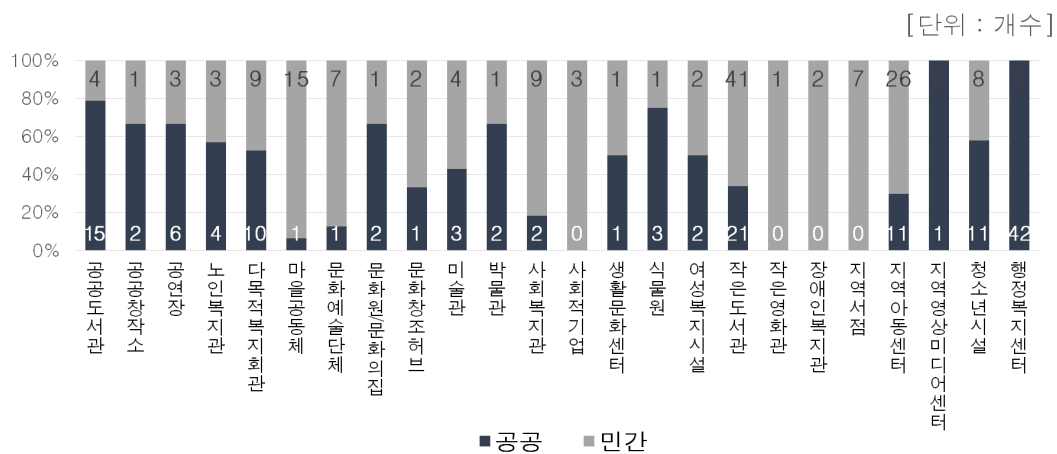
	분석 요약		분석 목적	
	데이터1-구분	데이터2-구분		
1)	기관/단체의 유형별 운영 구분		기관/단체의 유형별 공공/민간 운영 양상을 구분하여 비교	
	유형별	공공/민간		
	지역구별 기관/단체 운영 현황과 시설수 및 인구수			
2)	공공/민간-지역구별	인구수-지역구별	지역구별 인구대비 문화공간의 공공/민간 운영 현황과 비율 분석	
	기관/단체의 운영 구분과 구별/동별 인구통계 : 수정구			
	공공/민간-지역구별	인구수-행정동별		
	기관/단체의 운영 구분과 구별/동별 인구통계 : 중원구			
	공공/민간-지역구별	인구수-행정동별		
	기관/단체의 운영 구분과 구별/동별 인구통계 : 분당구			
3)	기관/단체 유형별 평균 건립연도 운영 구분		유형별 문화공간이 상주하는 건물의 노후정도를 분석	
	공공/민간	건립연도-평균		
4)	행정동별 시설개수와 인구수 및 면적 비교 분석 : 수정구		행정동별 면적 및 인구대비 문화공간의 밀집도 분석 (행정동별 시설1개 당 면적 도출)	
	행정동별-시설개수	행정동별-면적		행정동별-인구수
	행정동별 시설개수와 인구수 및 면적 비교 분석 : 중정구			
	행정동별-시설개수	행정동별-면적		행정동별-인구수
	행정동별 시설개수와 인구수 및 면적 비교 분석 : 분당구			
	행정동별-시설개수	행정동별-면적		행정동별-인구수
5)	지역구별 기관/단체 건물형태와 주택 유형 비교분석		지역구별 문화공간의 건물 형태와 건물 유형 비율의 특징 확인	
	독립형/공동형-지역구별	주택 유형-지역구별		
6)	운영 홍보채널 보유 기관/단체 운영 구분		문화공간의 운영홍보채널 보유 현황 분석	
	홍보채널 보유 유무	공공/민간		
	기관/단체 운영 홍보채널별 운영 구분			
	운영 홍보채널 구분	공공/민간	문화공간에서 이용되는 운영홍보채널 현황 분석	

2. 분석내용

1) 기관/단체의 유형별 운영 구분(공공/민간)과 인구통계 비교분석

○ 기관/단체의 유형별 운영(공공/민간) 구분

- 민간유형(마을공동체, 문화예술단체, 지역서점, 지역아동센터 등)은 공공유형(공공도서관, 박물관, 식물원 등)에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문화공간 시설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경향으로 보인다.
- 특히 상대적으로 많은 문화공간수가 나타나는 마을공동체와 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는 공공유형보다 민간유형이 큰 폭으로 많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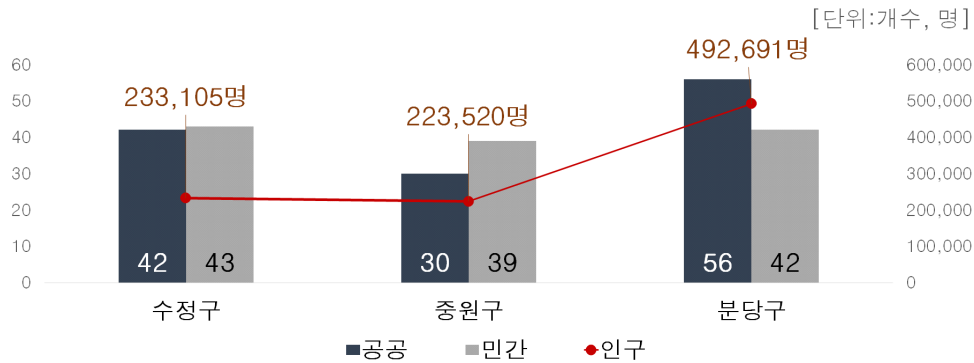


[그림 3-2] 기관/단체 운영 유형별 기관/단체 운영 구분

○ 지역구별 기관/단체 운영 현황과 시설 수 및 인구수

- 지역구별 인구수 대비 문화공간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구별로 기관/단체의 문화공간 1개소 당 인구수로 확인해 보면 분당구가 수정구보다 약 1.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분당구의 문화공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이해된다.
- 인구대비 공공유형 문화공간의 수는 수정구가 가장 많으며, 분당구는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인구대비 민간유형 문화공간의 수는 수정구가 가장 많으며, 분당구는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인구대비 문화공간의 수는 수정구가 가장 많으며, 분당구는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민간유형 문화공간의 비율은 수정구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중원구는 민간유형이, 분당구는 공공유형이 더 많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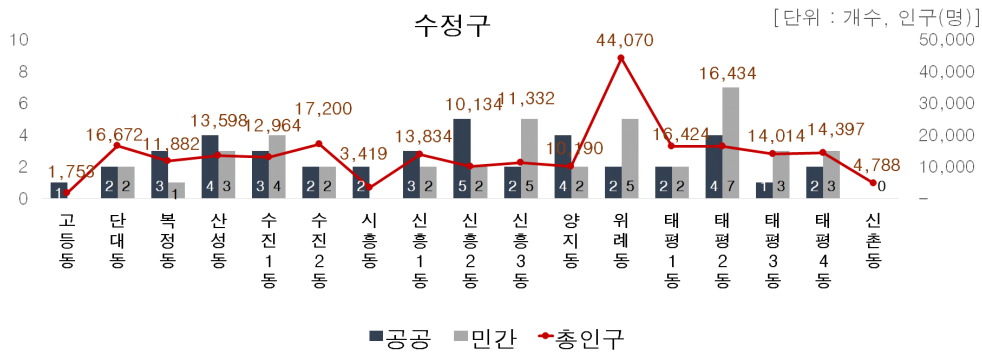
[그림 3-3] 지역구별 기관/단체 운영 구분 및 인구수

2) 기관/단체의 유형별 운영 구분(공공/민간)과 구별/동별 인구통계 비교분석

○ 수정구

- 인구수 대비 문화공간은 신흥2동, 태평2동, 신흥3동 순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위례동, 수진2동, 단대동, 태평1동 순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공공유형 문화공간은 신흥2동, 양지동, 태평2동, 산성동이 많게 나타났으며, 태평3동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간유형 문화공간은 태평2동, 위례동, 신흥3동, 수진1동이 많게 나타났으며, 복정동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 인구수 대비 공공유형 문화공간은 신흥2동, 양지동, 산성동, 복정동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례동, 태평3동, 수진2동, 단대동, 태평1동 순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인구수 대비 민간유형 문화공간은 상대적으로 신흥3동, 태평2동, 수진1동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정동, 위례동, 수진2동, 단대동 순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고등동과 신촌동, 시흥동은 상대적으로 문화공간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지리적 특성과 주거현황(인구 및 환경)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독립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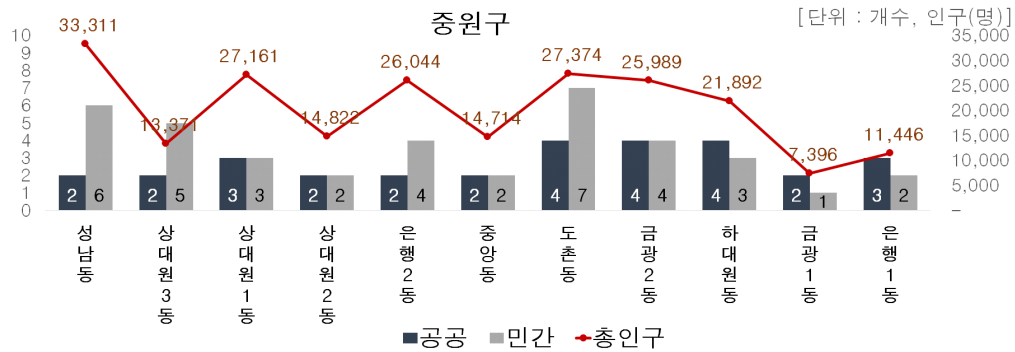
- 위례동은 최근 신도시개발로 인구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추측된다.
- 태평동(1~4동)은 전반적으로 민간유형 문화공간의 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수정구 기관/단체 운영 구분 및 인구수

○ 중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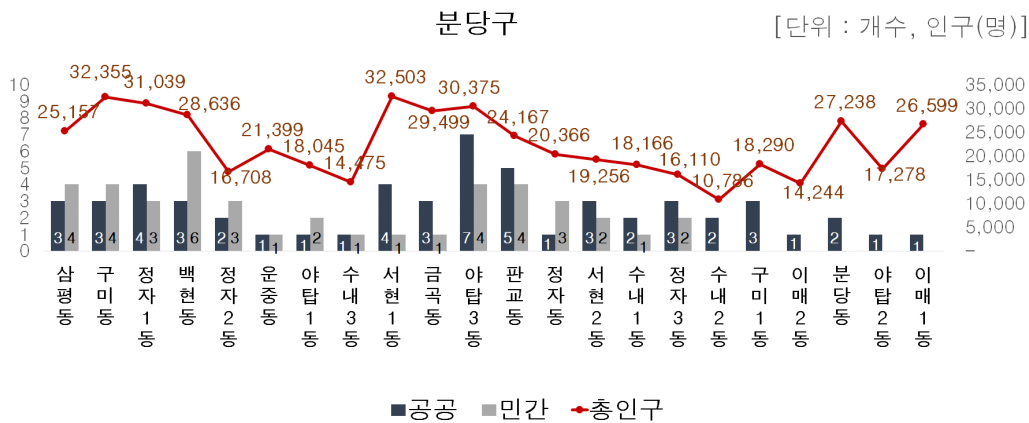
- 인구수 대비 문화공간은 상대원3동, 은행1동, 금광1동, 도촌동 순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상대원1동, 은행2동, 성남동 순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공공유형 문화공간은 도촌동, 금광2동, 하대원동이 많이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유사하였다.
- 민간유형 문화공간은 도촌동, 성남동, 상대원3동이 많이 나타났으며, 금광1동, 중앙동, 상대원2동, 은행1동은 적게 나타났다.
- 인구수 대비 공공유형 문화공간은 금광1동, 은행1동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남동, 은행2동 순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인구수 대비 민간유형 문화공간은 상대원3동, 도촌동, 은행1동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원1동은 가장 적게, 나머지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원구는 다른 지역구에 상대적으로 문화공간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중원구 기관/단체 운영 구분 및 인구수

○ 분당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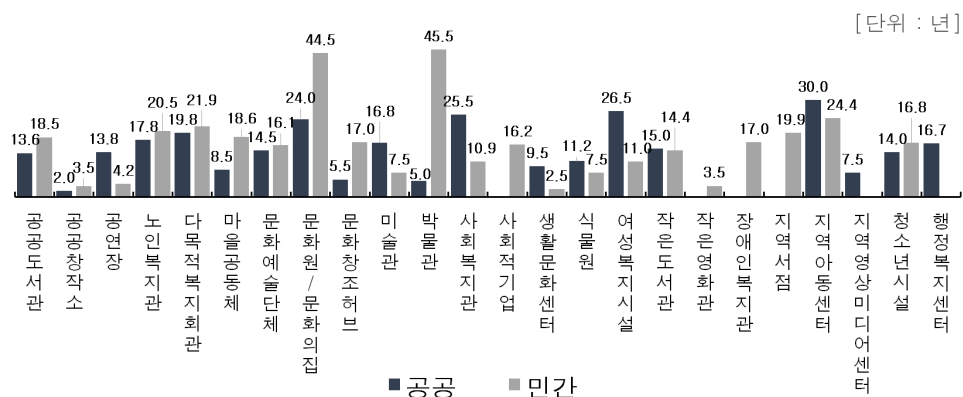
- 인구수 대비 문화공간은 판교동, 야탑3동, 정자2동, 백현동 순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매1동, 야탑2동, 이매2동, 분당동, 운중동 순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공공유형 문화공간은 야탑3동, 판교동, 정자1동, 서현1동이 많이 나타났으며, 야탑3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간유형 문화공간은 백현동, 삼평동, 구미동, 야탑3동, 판교동이 많이 나타났으며, 백현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인구수 대비 공공유형 문화공간은 상대적으로 야탑3동, 판교동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매1동, 운중동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인구수 대비 민간유형 문화공간은 상대적으로 백현동, 정자2동, 판교동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현1동, 금곡동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수내2동, 구미1동, 이매2동, 분당동, 야탑2동, 이매1동은 민간유형 문화공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분당구는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특정 행정동에서 주변 행정동의 문화공간 수요를 수용하고 있거나, 이용자가 다른 행정동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6] 분당구 기관/단체 운영 구분 및 인구수

3) 기관/단체 유형별 평균 건립연도 운영 구분(공공/민간) 분석

- 기관/단체의 상주건물 건립연도는 공공/민간유형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창작소와 작은영화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식물원이 상대적으로 건물이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유형 문화공간 건물 중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간유형 문화공간 건물 중 문화원/문화의집과 박물관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 박물관의 경우 공공/민간유형 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림 3-7] 기관/단체 유형별 건물 건립연도(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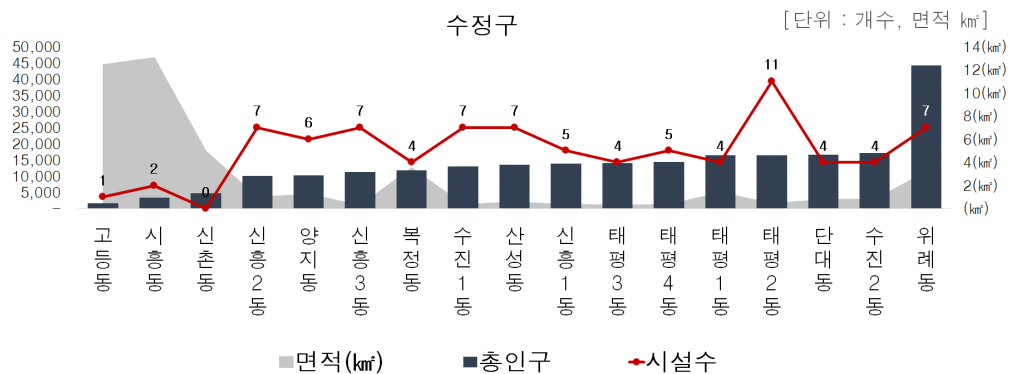
4) 지역구별 인구수, 면적, 시설 비교 분석

○ 수정구

- 고등동, 시흥동, 신촌동은 앞서 밝힌 바대로 특수한 지리적,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면적 대비 시설 밀집도는 상대적으로 태평2동, 신흥3동, 수진1동, 태평4동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복정동, 위례동, 태평1동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 면적과 인구통계를 복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상대적으로 위례동과 복정동의 시설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3-2] 수정구 인구, 면적, 시설수

구분	총인구(명)	면적(km ²)	시설수	시설 1개당 면적(km ²)
고등동	1,753	12.44	1	12.44
시흥동	3,419	13.05	2	6.53
신촌동	4,788	5.01	0	0
신흥2동	10,134	1.02	7	0.15
양지동	10,190	1.26	6	0.21
신흥3동	11,332	0.31	7	0.04
복정동	11,882	3.56	4	0.89
수진1동	12,964	0.39	7	0.06
산성동	13,598	0.59	7	0.08
신흥1동	13,834	0.39	5	0.08
태평2동	14,014	0.34	4	0.09
태평4동	14,397	0.37	5	0.07
태평1동	16,424	1.42	4	0.36
태평2동	16,434	0.47	11	0.04
단대동	16,672	0.8	4	0.20
수진2동	17,200	0.86	4	0.22
위례동	44,070	3.18	7	0.45
합계	233,150	45.46	85	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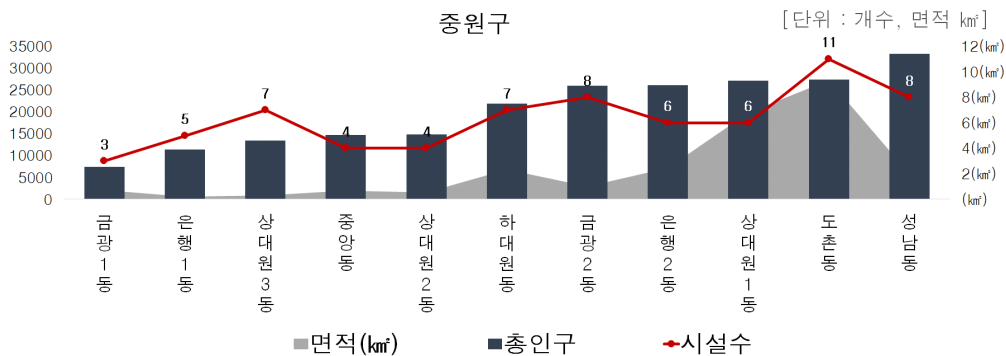
[그림 3-8] 수정구 인구수, 면적, 시설수

○ 중원구

- 중원구는 다른 지역구에 상대적으로 문화시설 및 공간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 면적 대비 시설 밀집도는 상대적으로 은행1동, 상대원3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상대원1동, 도촌동, 은행2동, 하대원동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 면적과 인구통계를 복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상대적으로 상대원1동과 도촌동의 시설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3-3] 중원구 인구, 면적, 시설수

구분	총인구 (명)	면적 (km ²)	시설수	시설 1개 당 면적 (km ²)
금광1동	7,396	0.72	3	0.24
은행1동	11,446	0.21	5	0.04
상대원3동	13,371	0.31	7	0.04
중앙동	14,714	0.68	4	0.17
상대원2동	14,822	0.54	4	0.14
하대원동	21,892	2.34	7	0.33
금광2동	25,989	1.01	8	0.13
은행2동	26,044	2.46	6	0.41
상대원1동	27,161	6.8	6	1.13
도촌동	27,374	9.35	11	0.85
성남동	33,311	1.99	8	0.25
합계	223,520	26.41	69	0.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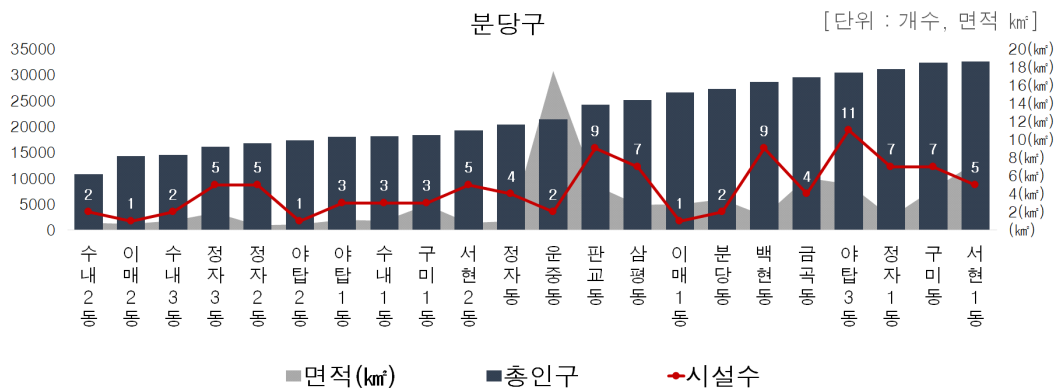
[그림 3-9] 중원구 인구수, 면적, 시설수

○ 분당구

- 분당구는 다른 지역구에 상대적으로 면적대비 인구수가 높은 편이며, 인구밀집도 대비 문화시설 및 공간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 면적 대비 시설밀집도는 상대적으로 정자2동, 서현2동, 백현동, 정자1동, 정자동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운중동, 이매1동, 분당동, 서현1동, 금곡동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 면적과 인구통계를 복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상대적으로 운중동, 이매1동, 분당동, 금곡동의 시설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3-4] 분당구 인구, 면적, 시설수

구분	총인구 (명)	면적 (km ²)	시설수	시설 1개 당 면적 (km ²)
수내2동	10,786	0.81	2	0.41
이매2동	14,244	0.68	1	0.68
수내3동	14,475	1.05	2	0.53
정자3동	16,110	1.92	5	0.38
정자2동	16,708	0.54	5	0.11
야탑2동	17,278	0.64	1	0.64
야탑1동	18,045	1.14	3	0.38
수내1동	18,166	1.03	3	0.34
구미동	18,290	2.78	3	0.93
서현2동	19,256	0.79	5	0.16
정자동	20,366	1	4	0.25
운중동	21,399	17.56	2	8.78
판교동	24,167	4.93	9	0.55
삼평동	25,157	2.8	7	0.40
이매1동	26,599	2.84	1	2.84
분당동	27,238	3.4	2	1.70
백현동	28,636	1.58	9	0.18
금곡동	29,499	5.76	4	1.44
야탑3동	30,375	5.08	11	0.46
정자1동	31,039	1.45	7	0.21
구미동	32,355	4.51	7	0.64
서현1동	32,503	7.48	5	1.50
합계	492,691	69.77	98	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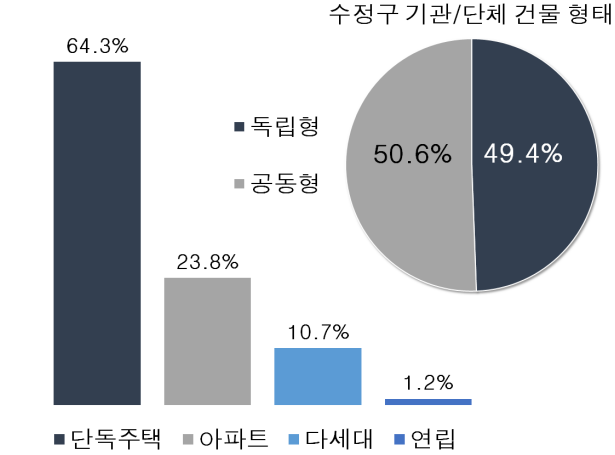


[그림 3-10] 분당구 인구수, 면적, 시설수

5) 지역구별 기관/단체 건물 형태와 주택 유형 비교 분석

○수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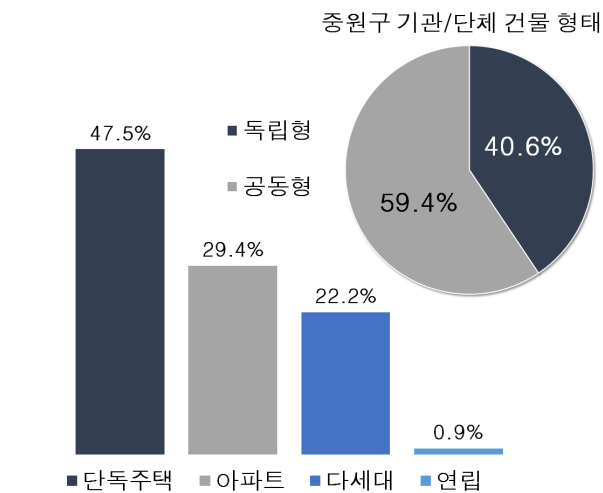
- 수정구의 주택 형태는 단독주택이 큰 폭으로 많은 것이 확인되었다.
- 수정구내 기관/단체의 문화공간은 독립형과 공동형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림 3-11] 수정구 기관/단체 건물 형태와 주택 유형

○중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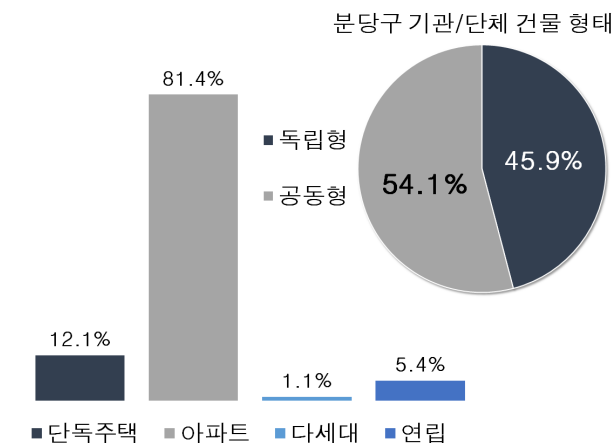
- 중원구의 주택 형태는 상대적으로 다세대주택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원구 내 기관/단체의 문화공간은 공동형이 더 많았고, 지역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2] 중원구 기관/단체 건물 형태와 주택 유형

○분당구

- 분당구의 주택 형태는 대부분이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단체의 문화공간 중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내 위치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 분당구내 기관/단체의 문화공간은 공동형이 소폭 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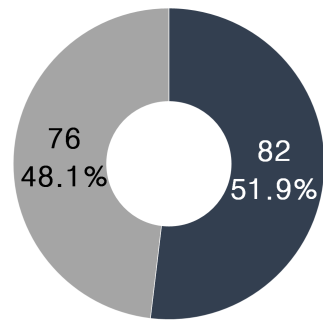


[그림 3-13] 분당구 기관/단체 건물 형태와 주택 유형

6) 운영 홍보채널 보유 기관/단체 운영 구분 분석

○홍보채널 보유 기관/단체 운영 구분

- 홍보채널을 보유한 기관/단체의 문화공간 중 유형별(공공/민간)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유형의 문화공간이 소폭 더 많이 홍보채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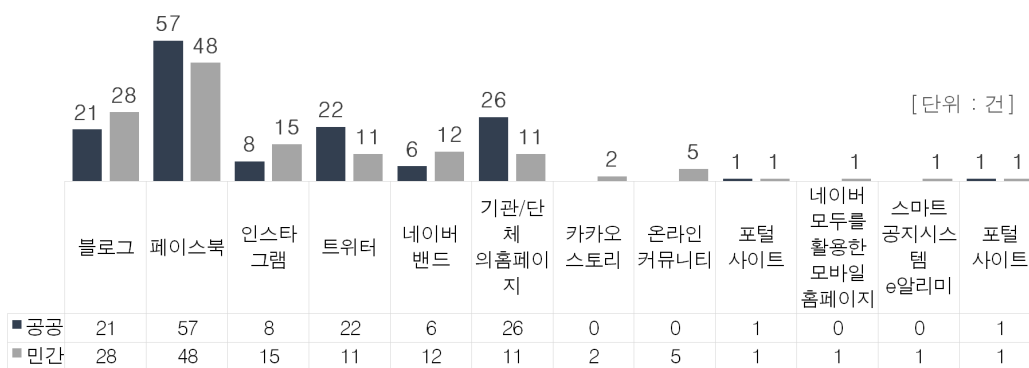


■ 공공 ■ 민간

[단위 : %, 건, 총 사례수 158건]

[그림 3-] 홍보채널 보유 기관/단체 운영 구분

- 기관/단체의 문화공간은 홍보채널로 ‘페이스북’ 과 ‘블로그’ 를 주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고유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는 공공유형이 민간유형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최근 대중적인 SNS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 은 민간유형이 공공유형보다 2배가량 높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변화와 유행에 민간유형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단위 : 건]

[그림 3-14] 운영 홍보채널별 기관/단체의 운영 구분 현황(중복응답)

3. 시사점

1)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 기관/단체의 유형별 운영 구분(공공/민간)과 인구통계 비교분석

- 기관/단체의 유형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작은 규모로 예상되는 문화공간은 민간유형이 많이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중형 이상 규모(거점형 문화공간)로 예상되는 문화공간은 공공유형이 많이 나타났다.
- 지역구별 인구수 대비 문화공간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구별로 기관/단체의 문화공간을 1개소 당 인구수로 확인해 보면 분당구가 수정구보다 약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분당구의 문화공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나타낸다.
- 한편으로는 분당구에 ‘소규모 마을단위 문화공간’ 보다 ‘광역 거점형 문화공간’ 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런 현황에 대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 중원구 문화공간의 수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구 대비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독 공공유형 보다 민간유형의 문화공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구별 인구수, 면적, 시설개수 비교 분석

수정구

- 위례동은 인구수와 면적 대비 문화공간이 가장 적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특히 민간유형의 문화공간이 5곳인 것에 비해 공공유형의 문화공간은 2곳으로 확인되었다. 위례동의 인구수를 고려하여 공공유형의 문화공간을 확충함과 동시에 민간유형에 대한 활성화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 또한 문화공간의 확충에 있어 인구밀도와 면적, 물리적 거리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수진2동, 단대동, 태평1동의 경우도 인구수 대비 문화공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었다. 또한 다른 행정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유형의 문화공간이 적은 편으로 확인되었는데, 민간영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민간유형의 문화공간을 유도하여 확충하는 방향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 고등동, 시흥동, 신촌동의 경우 본 조사 DB를 배경으로 연구하기에는 특수한 지리적, 환경적 상황이 뚜렷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독립적으로 추가 연구될 필요가 있다.

중원구

- 상대원1동은 인구수와 면적 대비 문화공간이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주거지역이 한정적인 환경에 비해 거주인구가 많으며 산업단지가 위치한 상황으로 매우 높은 생활인구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을 고려하여 주거인구와 생활인구(근로자)가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대원1동이 도시 외각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근 상대원2동과 상대원3동의 문화공간과 연계할 수 있는 대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은행2동의 경우 상대원1동과 유사하게 인구수와 면적 대비 문화공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은행2동의 면적 중 주거구역은 약 1/4수준으로 밀집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우선적으로 현재 보유한 문화공간의 물리적 거리와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공간크기와 운영 측면을 확대하여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접근이 우선된 후에 상황에 따라 공간 확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중원구는 다른 지역구 대비 문화공간이 고르게 분포되어있는 상황이다.
- 또한 다른 지역구와 상대적으로 민간유형의 문화공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민간유형 문화공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공공유형 문화공간이나 시스템이 필요하다.

분당구

- 야탑2동, 이매2동은 지리적 면적은 작지만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높은 인구밀도가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문화공간은 각 1개로 인구 대비 문화공간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이 지역의 문화공간 확충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이매1동, 분당동, 운중동은 인구수와 면적 대비 문화공간이 2곳 이하로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실제로 활용되는 생활면적은 전체 면적의 약 1/4 수준으로 인구밀도가 높게 형성되어있다. 이처럼 일부지역에 높은 인구밀도가 형성된 지역은 인구밀도를 중점으로 고려하여 문화공간 확충이 진행되어야 한다.
- 분당구는 다른 지역구에 상대적으로 인구수 대비 문화공간이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리적 거리보다 인구밀집도를 중점으로 문화공간의 포화도와 수용인원, 거점형 문화공간의 수용범위 등을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기관/단체 유형별 평균 건립연도(건물) 분석(공공/민간)

- 기관/단체가 상주하는 건물의 건립연도는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으로 건축노후에 따른 개선보다 내부 인테리어 및 시설/장비 개선의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지역구별 건물 형태와 주택 유형 비교 분석

- 지역구별 건물 형태를 보면 본도심과 신도심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분당구의 주택 형태는 아파트가 비약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형 아파트단지의 구성으로 주거구역의 인구밀도가 높게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아파트단위 생활권에 대한 공간과 공동체를 대상으로 추가 연구를 통하여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운영 홍보채널 보유 기관/단체 운영 구분 분석

- 상대적으로 민간유형의 문화공간은 SNS, 블로그, 온라인커뮤니티 등의 활용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체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부담과 한편으로는 사회적 매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특히 온라인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 3절 공간의 소프트웨어(Software) 데이터 기반 환경 분석

1. 분석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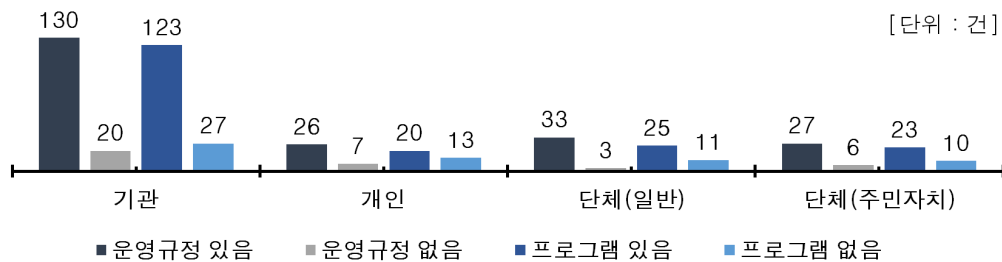
- 분석목적 : 성남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의 운영과 관련한 분석
- 대상DB : 성남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실태조사, 성남 기초통계
- 분류체계 :
 - 기초통계 : 인구, 연령별 구성(지역구별, 행정동별)
 - 휴먼웨어 데이터 : 전문인력 보유 현황, 운영 시스템 보유 현황, 개선필요현황, 시설별(유형별) 연간평균이용자, 청소년시설수, 건물 유형
- 분석방법 : 데이터 교차분석

	분석 요약		분석 목적
	데이터1-구분	데이터2-구분	
1)	운영주체별 공간 내 운영규정 및 프로그램 보유 현황 분석		운영주체 차이에 따른 규정 및 프로그램 보유 현황 분석
	운영규정-주체별	프로그램 보유 여부-주체별	
2)	공공/민간유형에 따른 운영규정 보유 현황		공공/민간유형에 따른 운영규정 보유 현황 분석
	공공/민간	운영규정 보유 여부	
	지역구별 공공/민간유형에 따른 운영규정 보유 현황		지역구별 공공/민간유형에 따른 운영규정 보유 현황 분석
	공공/민간-지역구별	운영규정 보유여부	
3)	대관여부(유형)별 문화공간의 공간 운영 구분		대관여부(유형)에 따른 공간 운영과 홍보채널 보유 유무, 운영주체를 비교 분석하여 대관진행과 연결성 있는 시사점 확인
	대관여부(유형)(형태) 구분	공공/민간	
	대관여부(유형)별 운영 홍보채널 보유 유무		
	대관여부(유형)(형태) 구분	홍보채널 보유 여부	
	대관여부(유형)별 공간 운영주체 구분		
	대관여부(유형)(형태) 구분	운영주체 구분	
4)	대관여부(유형)별 기관/단체 일일 운영시간		대관진행 형태와 운영, 건물형태에 따른 일일 운영시간 비교하여, 주 운영시간 및 확대운영시간을 가진 공간의 특성 분석
	공간 운영시간	대관유형별 구분	
	운영 구분별 기관/단체 일일 운영시간		
	공간 운영시간	공공/민간	
	건물 사용 형태별 기관/단체 일일 운영시간		
	공간 운영시간	건물 사용 형태별 구분	

2. 분석내용

1) 운영주체별 공간 내 프로그램 보유 여부 현황 분석

- 대부분 운영규정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으며, 운영주체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 운영규정이 있는 문화공간의 수와 프로그램도 보유하고 있는 문화공간의 수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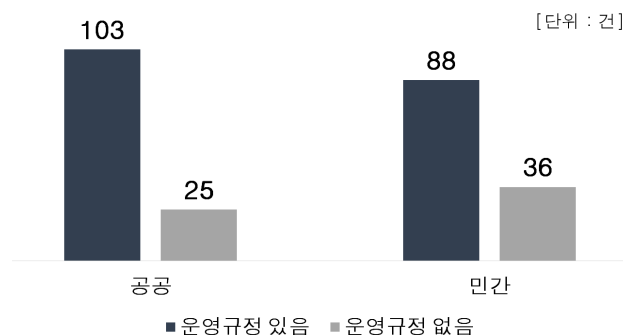


[그림 3-15] 운영주체별 공간 내 프로그램 보유 여부 현황

2) 운영 구분별 운영 규칙 보유 현황 분석

○ 공공/민간유형에 따른 운영규정 보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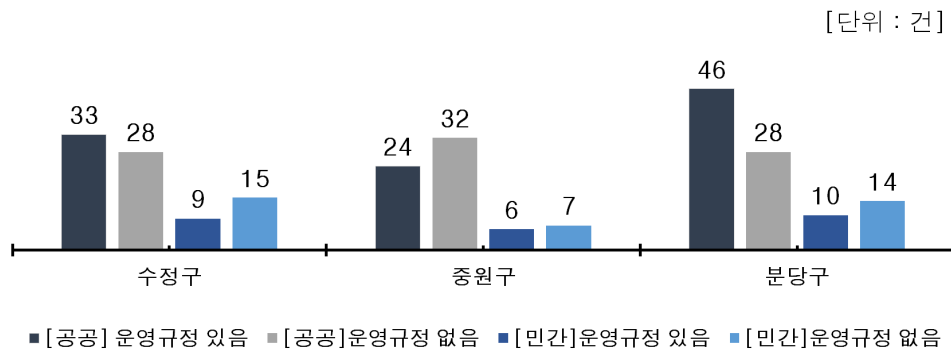
- 공공유형 대비 민간유형의 문화공간이 상대적으로 운영규정이 없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6] 공공/민간유형에 따른 운영규정 보유 현황

○ 공공/민간유형에 따른 지역구별 운영규정 보유 현황

- 공공유형 문화공간의 운영규정 보유 여부는 수정구가 가장 격차가 적었으며, 분당구는 격차가 컸다. 중원구는 유일하게 운영규정이 없는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
- 민간유형 문화공간의 운영규정 보유 여부는 전반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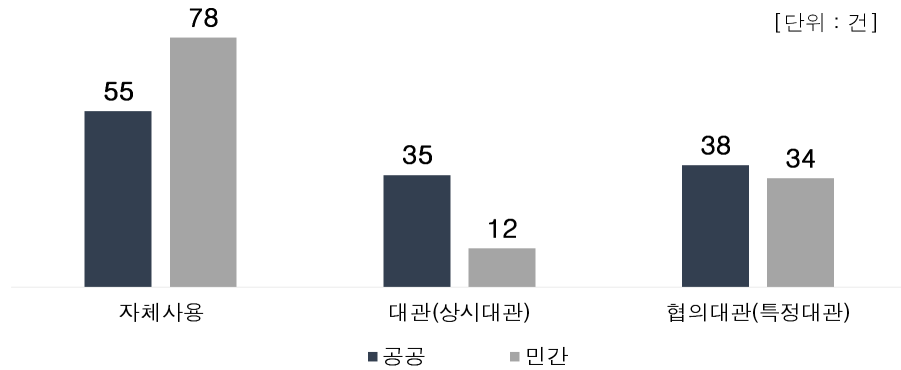


[그림 3-17] 공공/민간유형에 따른 지역구별 운영규정 보유 현황

3) 대관여부(유형) 기준별 공간 구분, 홍보채널, 공간주체 분석

○ 대관여부(유형)별 기관/단체 공간 운영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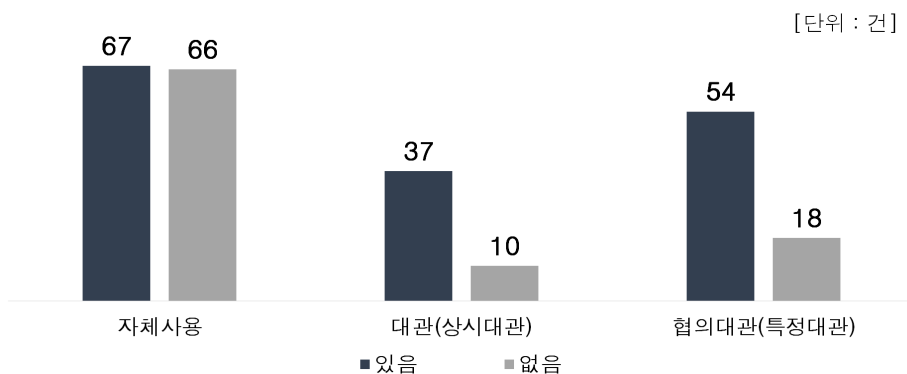
- 상시대관 중인 문화공간은 공공유형 문화공간이 민간유형 문화공간에 비해 약 3배 정도로 더 많았다.
- 특수한 상황이나 요청이 들어왔을 시 협의를 통해 대관을 진행하는 협의대관은 공공/민간유형 문화공간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공공유형이 소폭 많았다.
- 하지만 대관을 하지 않고 자체사용 중인 문화공간은 민간유형이 공공유형 대비 많이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공공유형 문화공간은 상시대관, 협의대관, 자체사용의 순으로 많았으며,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민간유형 문화공간은 상시대관, 협의대관, 자체사용의 순으로 많았으며,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그림 3-18] 대관여부(유형)별 기관/단체 운영 구분

○ 대관여부(유형)별 홍보채널 보유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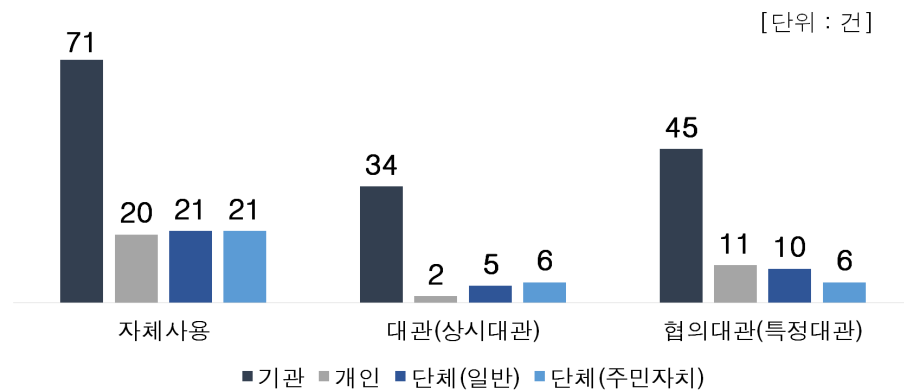
- 상시대관 중인 문화공간은 홍보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공간이 그렇지 않은 문화공간 대비 약 3.7배로 더 많았다.
- 협의대관은 홍보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공간이 그렇지 않은 문화공간 대비 약 3배 정도로 더 많았다.
- 자체사용 중인 문화공간은 공공/민간유형 문화공간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주요하게 대관을 운영할 경우, 홍보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9] 대관여부(유형)별 홍보채널 보유 유무

○ 대관여부(유형)별 공간 운영주체 구분

- 전반적으로 공간 운영주체 모두 자체사용, 협의대관, 상시대관의 순으로 나타났다.
- 개인 운영주체인 문화공간은 상시대관을 진행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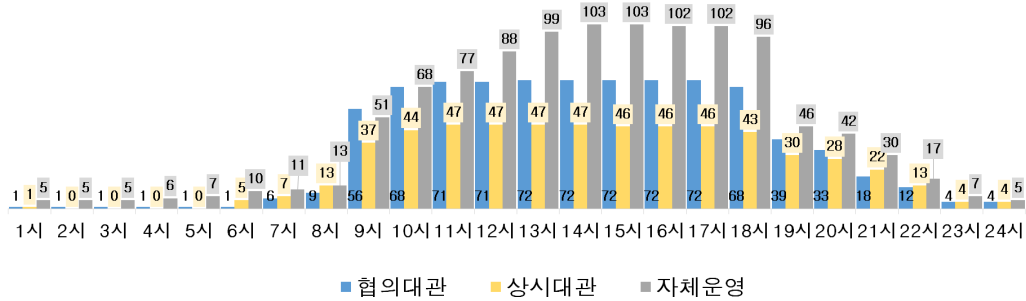


[그림 3-20] 대관여부별 공간 운영주체 구분

4) 일일 운영시간 기준별 대관, 운영 구분, 건물형태 비교 분석

○ 대관여부(유형)별 기관/단체 일일 운영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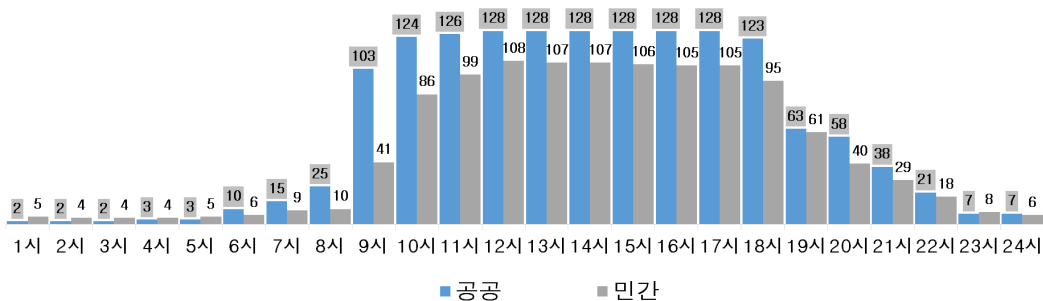
- 자체운영 중인 문화공간은 9시 이후 운영되는 공간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18시 이후 운영되는 공간의 수는 크게 감소하였다.
- 협의대관 중인 문화공간도 9시 이후 운영되는 공간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18시 이후 운영되는 공간의 수는 크게 감소하였다.
- 상시대관 중인 문화공간의 경우 9시 이후 운영되는 공간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18시 이후 운영되는 공간의 수도 감소하였다.
- 시간별 운영되는 문화공간의 격차는 자체운영, 협의대관, 상시대관의 순으로 줄어드는 것을 나타났다.



[그림 3-21] 대관여부(유형)별 기관/단체 일일 운영시간

○ 운영 구분별 기관/단체 일일 운영시간

- 공공/민간유형의 문화공간 모두 9시 이후 운영되는 공간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18시 이후 운영되는 공간의 수는 크게 감소하였다.
- 전반적으로 문화공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구간이 집중 운영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민간유형 문화공간이 공공유형 문화공간보다 상대적으로 집중운영시간(9~18시)보다 더 유연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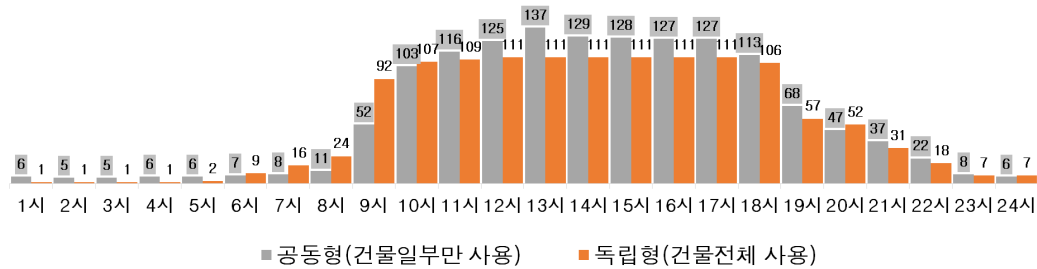


[그림 3-22] 운영 구분별 기관/단체 일일 운영시간

○ 건물 사용 형태별 기관/단체 일일 운영시간

- 공동형과 독립형의 유형 모두 9시 이후 운영되는 공간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18시 이후 운영되는 공간의 수는 크게 감소하였다.
- 공동형/독립형의 사용 형태에 따른 일일 운영시간은 차이가 적었다.

- 하지만 9시 이전 운영되는 문화공간의 수는 독립형 유형이 상대적으로 소폭 더 많이 나타났다.



[그림 3-23] 건물 사용 형태별 기관/단체 일일 운영시간

3. 시사점

1)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 공공/민간유형에 따른 운영규정

- 운영규정은 민간유형의 문화공간이 상대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원구가 유일하게 운영규정이 없는 비율이 공공/민간 모두 크게 나타났다.

○ 대관여부별 공간 구분, 홍보채널, 공간주체 분석

- 전반적으로 공공/민간유형의 문화공간 모두 상시대관, 협의대관, 자체사용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 유일하게 자체사용은 민간유형의 비율이 공공유형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민간유형 문화공간의 경우 대관을 진행하기보다 자체사용 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또한 문화공간의 대관형태는 홍보채널 보유 여부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대관을 진행하고 있을수록 홍보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졌다.

반대로 자체사용하는 경우 홍보채널을 보유하는 비율이 적은 것으로, 공간 정보를 외부에서 인식하는데 열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을 확대하는데, 자체사용중인 민간유형문화 공간을 지원을 통하여 공간 운영의 영역과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 일일 운영시간별 대관, 운영, 건물 형태 비교 분석

- 전반적으로 문화공간은 9시 이후 운영되는 공간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18시 이후 운영되는 공간의 수가 크게 감소하였는데, 9시부터 18시까지 구간이 집중적으로 대부분의 운영공간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 생활문화의 대상을 학생, 직장인, 근로자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집중운영시간 보다 더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난다. 특히 전반적으로 민간유형 문화공간이 집중운영시간보다 유연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다양한 시간에 프로그램 및 대관 등의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진다.
- 무엇보다 대관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자체운영보다 더 유연한 공간 운영시간을 보여준다. 특히 상시대관을 진행하는 경우 가장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다.
- 이와 같이 민간유형의 문화공간 중 상시대관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시간대에 공간 이용이 가능하며, 홍보채널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간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 문장의 간결성을 위해 대부분의 공간이 운영되고 있는 9시부터 18시까지를 '집중운영시간'으로 대체하여 사용 함.

제 4절 공간의 휴먼웨어(Humanware) 데이터 기반 환경 분석

1. 분석개요

- 분석목적 : 성남 생활밀착형 생활문화공동체 공간의 활용성, 지속성과 관련한 분석
- 대상DB : 성남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실태조사, 성남 기초통계
- 분류체계 :
 - 기초통계 : 인구, 연령별 구성/지역구별, 행정동별
 - 휴먼웨어 데이터 : 전문인력 보유 현황, 운영 시스템 보유 현황, 개선필요현황, 시설별(유형별) 연간평균이용자, 청소년시설수, 건물 유형
- 분석방법 : 데이터 교차분석

	분석 요약		분석 목적
	데이터1-구분	데이터2-구분	
1)	홍보채널 보유 여부별 운영 전문인력 현황		운영 전문인력 보유 현황에 따른 홍보채널 보유 여부 비교
	운영 전문인력 보유 현황	홍보채널 보유	
	운영 구분별 운영 전문인력 현황		공공/민간유형별 운영 전문인력 보유 현황 점검
	공공/민간	보유한 전문인력 현황	
2)	유형별 운영 시스템 여부 비교 분석		공공/민간유형에 따른 운영 시스템 보유 비율 분석
	공공/민간	운영 시스템 보유 현황	
	기관/단체 유형별 보유하고 있는 운영 시스템 비교 분석		공공/민간유형별 운영 시스템 보유 현황 점검
	공공/민간	보유한 운영 시스템 현황	
3)	공간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1순위 내용 : 공동형		건물 유형별 공간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 도출
	개선 필요 사항-지역구별	건물 유형별	
	공간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1순위 내용 : 독립형		
	개선 필요 사항-지역구별	건물 유형별	
	공간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1~3순위 내용 : 공동형		
	개선 필요 사항-지역구별	건물 유형별	
4)	공간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1~3순위 내용 : 독립형		건물 유형별 공간 활성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주요 요소 도출
	개선 필요 사항-지역구별	건물 유형별	
	행정동별 연간 평균 이용자수와 인구수 비교 분석 : 수정구		
	인구수-행정동별	시설수-행정동별 연평균이용자-행정동별	
	행정동별 연간 평균 이용자수와 인구수 비교 분석 : 중원구		
	인구수-행정동별	시설수-행정동별 연평균이용자-행정동별	
5)	행정동별 연간 평균 이용자수와 인구수 비교 분석 : 분당구		행정동별 시설수와 문화공간 이용자수를 분석하여 지역별 문화공간의 이용 현황과, 점검이 필요한 지역 분석
	인구수-행정동별	시설수-행정동별 연평균이용자-행정동별	
	지역구별 프로그램 보유 여부에 따른 연간 이용자수		
	프로그램 여부-지역구별	연간이용자수-지역구별	
6)	지역구별 청소년인구와 청소년시설수		지역구별 청소년인구수 대비 청소년 시설수 현황 점검
	청소년인구수-지역구별	시설수-지역구별	
	지역구별 청소년시설 연간 이용자수와 청소년인구 비교 분석		
	청소년인구수-지역구별	연가 이용자수-지역구별	

2. 분석내용

1) 홍보채널 및 운영유형에 따른 운영 전문인력 보유 여부 비교 분석

○ 운영 홍보채널 보유 여부별 운영 전문인력 현황 비교 분석

- 홍보채널을 보유한 문화공간이 그렇지 않은 문화공간보다 상대적으로 운영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예술가 전문인력을 보유한 문화공간은 그렇지 않은 문화공간보다 홍보 채널의 보유한 비율이 큰 폭으로 많았다.
- 자원봉사자 전문인력을 보유한 경우 유일하게 홍보채널을 보유하지 않은 문화공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5] 홍보채널 보유 여부별 운영 전문인력 현황

○ 운영 구분별 운영 전문인력 현황 비교 분석

- 민간유형 문화공간은 공공유형 문화공간보다 전문인력을 보유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민간유형 문화공간 모두 전문인력으로 교육자를 보유한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기획자/활동가가 두 번째로 나타났다.
- 공공유형 문화공간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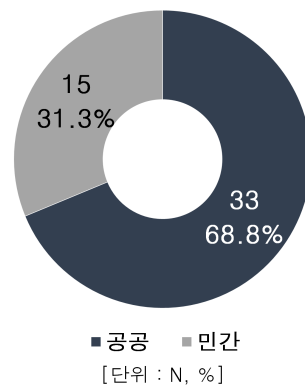


[그림 3-25] 운영 구분별 운영 전문인력 현황

2) 운영 시스템 보유 기관/단체 분석

○ 유형별 운영 시스템 여부 비교 분석

- 공공유형 문화공간이 상대적으로 운영 시스템을 보유한 비율이 큰 폭으로 많이 나타났다.



[그림 3-26] 운영 시스템 보유 기관/단체 운영 구분

○ 기관/단체유형별 보유 하고 있는 운영 시스템 비교 분석

- 전반적으로 대관관리 시스템, 도서대출 반납 등 도서관리 시스템 순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관관리 시스템은 가장 많이 보유한 운영 시스템으로 나타났는데, 공공유형 문화공간에서 상대적으로 큰 비율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 한편 도서대출 반납 등 도서관리 시스템은 민간유형 문화공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7] 운영 시스템 보유 현황

3) 지역구별, 공간 활성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건물 유형별 비교 분석

- 건물 유형별 공간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1순위 내용의 지역구별 비교 분석
 - 수정구의 공동형 건물 유형의 문화공간은 가장 큰 폭으로 예산지원을 1순위로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원구의 공동형 건물 유형의 문화공간은 예산지원을 1순위로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당구의 공동형 건물 유형의 문화공간은 유일하게 공간 확대를 1순위로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산지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예산지원, 공간 확대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3-28] 지역구별 공동형 건물 유형 공간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1순위

- 수정구의 독립형 건물 유형의 문화공간은 큰 폭으로 공간 확대를 1순위로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원구의 독립형 건물 유형의 문화공간은 큰 폭으로 공간 확대를 1순위로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당구의 독립형 건물 유형의 문화공간은 공간 확대를 1순위로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산지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 중원구는 유일하게 인테리어가 낮게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공간 확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3-29] 지역구별 독립형 건물 유형 공간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1순위

- 건물 유형별 공간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1~3순위 내용의 지역구별 비교 분석
 - 수정구의 공동형 건물 유형의 문화공간은 예산지원이 큰 폭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간 확대와 전문인력 지원이 유사한 수치로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원구의 공동형 건물 유형의 문화공간은 예산지원이 큰 폭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간 확대, 인테리어, 전문인력 지원이 유사한 수치로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당구의 공동형 건물 유형의 문화공간은 예산지원이 큰 폭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간 확대, 인테리어, 전문인력 지원이 유사한 수치로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예산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간 확대, 전문인력 지원, 인테리어가 유사한 수치로 뒤를 이었다.
 - 중원구와 분당구에서는 운영시간 확대가 소폭 확인되었다.



[그림 3-30] 지역구별 공동형 건물 유형 공간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1~3순위

- 수정구의 독립형 건물 유형의 문화공간은 예산지원, 공간 확대, 전문인력 지원 순으로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원구의 독립형 건물 유형의 문화공간은 공간 확대, 예산지원, 인테리어, 전문인력 지원 순으로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당구의 독립형 건물 유형의 문화공간은 예산지원, 전문인력 지원, 공간 확대 순으로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예산지원, 공간 확대, 전문인력 지원, 인테리어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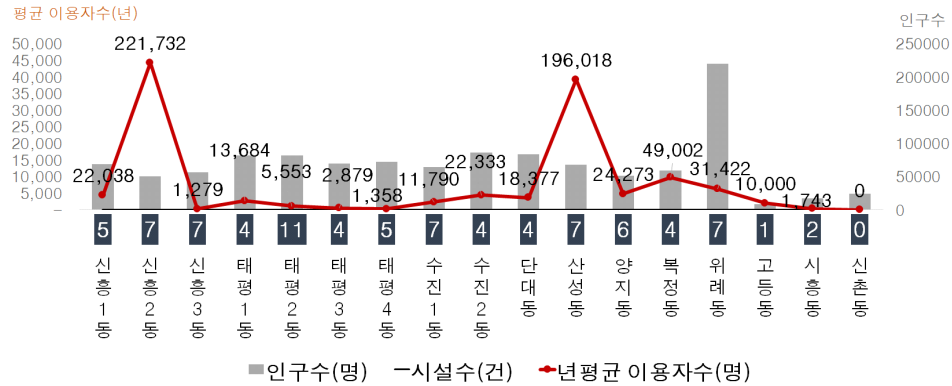


[그림 3-31] 지역구별 독립형 건물 유형 공간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1~3순위

4) 지역구별 연간 평균 이용자수와 인구수 비교 분석

○ 수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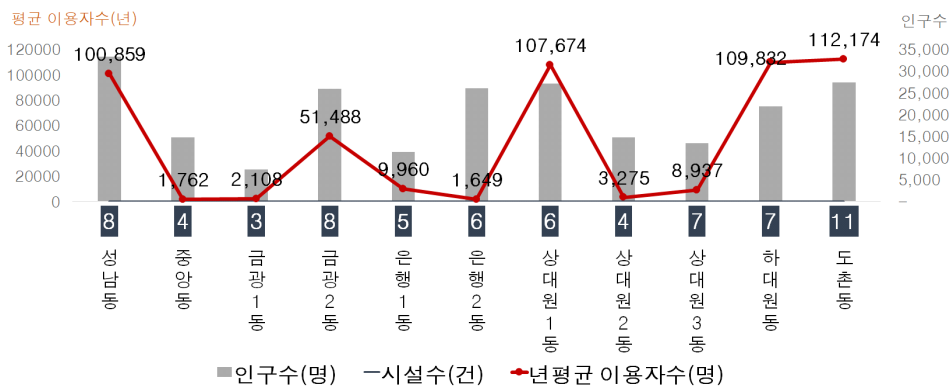
- 신흥2동과 산성동 내 문화공간은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높게 나타났다는데, 앞선 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많은 문화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동에 거점형 문화공간(청소년수련관, 종합복지관, 도서관 등)이 위치하여 넓은 지역의 이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영향으로 보여진다.
- 위례동 내 문화공간은 인구대비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큰 폭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 복정동 내 문화공간은 거점형 문화공간을 보유한 행정동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이용자수를 나타내고 있다. 앞선 조사 결과 복정동의 문화공간의 수는 다른 행정동과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복정동의 문화공간의 수용현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된다.
- 신흥3동과 태평4동 내 문화공간은 상대적으로 인구수 및 시설수 대비 이용자가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된다. 앞선 분석내용으로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흥3동과 태평4동 내 문화공간의 운영 현황과 환경에 대하여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3-32] 수정구 내 기관/단체 평균 이용자수와 인구수, 시설수

○ 중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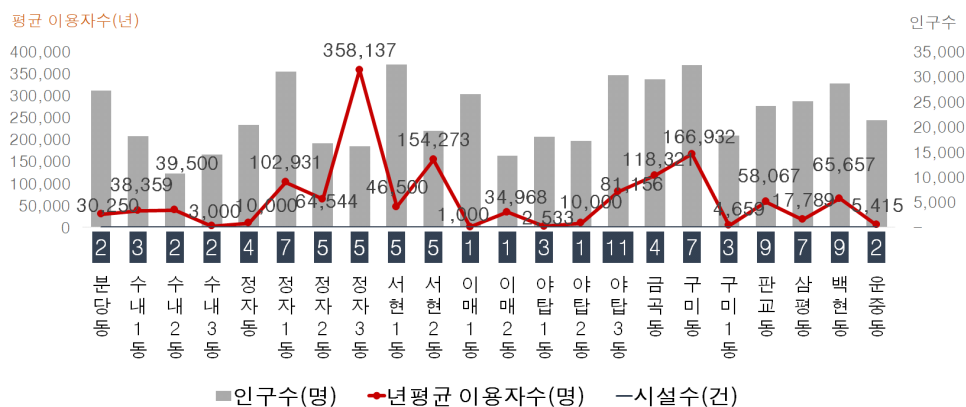
- 성남동, 상대원1동, 하대원동, 도촌동 내 문화공간은 이용자수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앞선 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문화공간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거점형 문화공간(청소년수련관, 종합복지관, 북카페 등)이 위치하여 넓은 지역의 이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영향으로 보여 진다.
- 은행2동 내 문화공간은 상대적으로 인구수 및 시설수 대비 이용자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된다. 앞선 분석으로 상대적으로 면적대비 시설밀집도가 소폭 낮은 점이 확인되는데, 은행2동 내 문화공간의 운영 현황과 환경에 대하여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3-33] 중원구 내 기관/단체 평균 이용자수와 인구수, 시설수

○ 분당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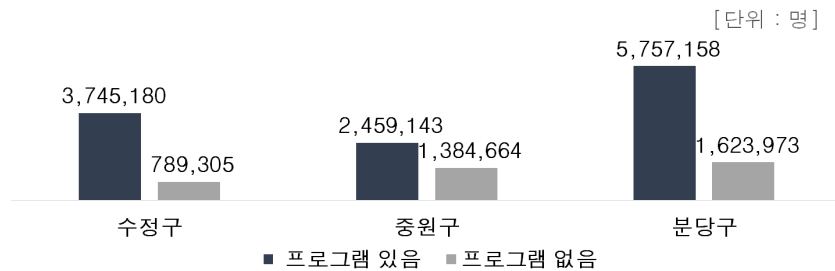
- 분당구 내 문화공간은 다른 지역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분당구의 높은 인구밀도를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정자3동, 정자1동, 서현2동, 금곡동, 구미동 내 문화공간은 이용자수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앞선 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문화공간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거점형 문화공간(청소년수련관, 종합복지관, 도서관 등)이 위치하여 넓은 지역의 이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영향으로 보여 진다.
- 특히 정자3동은 분당도서관이 위치하여 넓은 지역의 이용자를 수용하고 있으므로, 정자3동 내 인구수와 문화공간 대비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이용자수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분당동, 정자동, 이매1동, 야탑1동, 야탑2동, 구미3동, 운중동 내 문화공간은 인구수 대비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이용자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평균 2개의 문화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으로 인구수 대비 문화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분당구는 상대적으로 행정동이 밀집되어 있고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문화공간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행정동 간 제약 없이 불규칙적으로 활동하는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3-34] 분당구 내 기관/단체 평균 이용자수와 인구수, 시설수

5) 지역구별 프로그램 보유 여부에 따른 연간 이용자수

- 프로그램을 보유한 문화공간의 이용자는 모든 지역구에서 많이 나타났다.
- 중원구는 프로그램이 없는 문화공간의 이용자가 다른 지역구 대비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프로그램이 있는 문화공간 이용자와의 격차가 가장 적었다.
- 중원구 내 프로그램이 없는 문화공간에서 자율적으로(혹은 자체적으로) 이용 되는 내용에 대하여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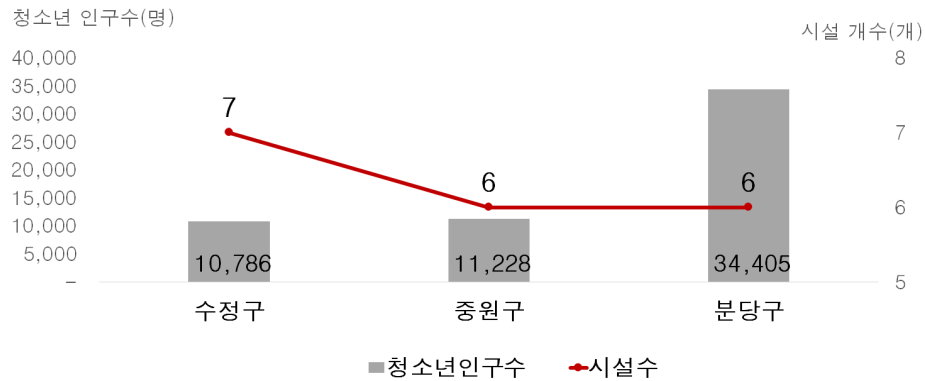


[그림 3-35] 지역구별 프로그램 보유 여부에 따른 연간 이용자수

6) 청소년시설 연간 이용자수와 지역구별 청소년인구 비교 분석

○ 지역구별 청소년시설 현황 및 청소년인구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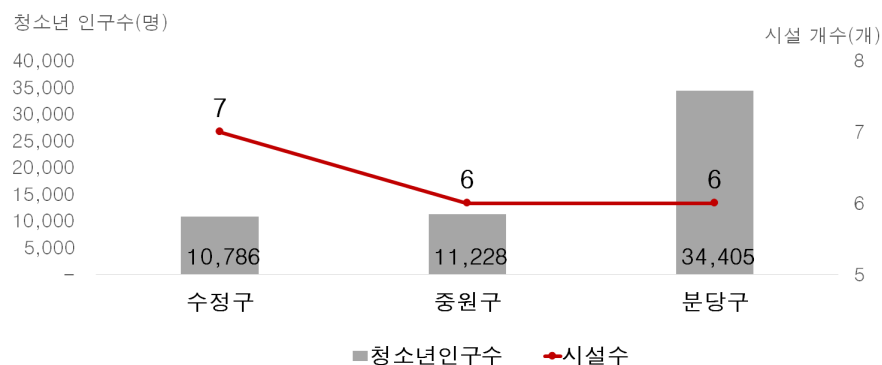
- 분당구의 청소년인구는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청소년시설은 현황은 다른 지역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분당구의 청소년시설은 다른 지역구보다 상대적으로 청소년인구 대비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수정구와 중원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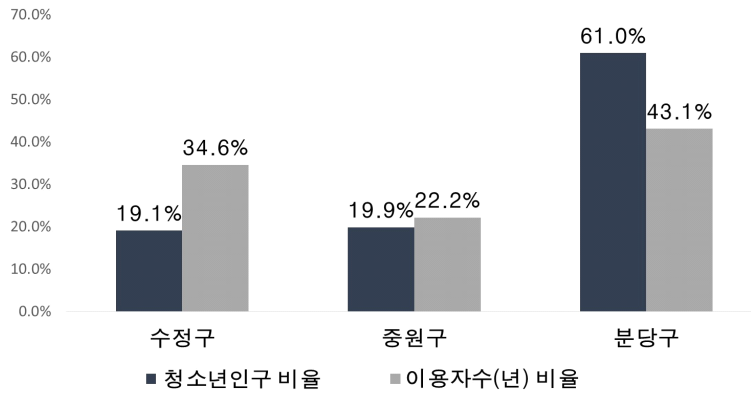
[그림 3-36] 지역구별 청소년인구와 청소년 시설수

○ 지역구별 청소년시설 연간 이용자수와 지역구별 청소년인구 비교 분석

- 지역구별 청소년시설의 연간 이용자수는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하지만 지역구별 청소년인구수 대비 연간 이용자수는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분당구는 청소년인구수 대비 청소년시설(문화공간)의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분당구 내 문화공간의 청소년 이용측면에서 문화공간의 수와 수용 상태, 환경 등에 대한 심층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3-37] 지역구별 청소년인구수 및 청소년시설 이용자수(년)



[그림 3-38] 지역구별 청소년인구 비율 및 청소년시설 이용자수(년) 비율

3. 시사점

1)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 전문인력 보유 여부와 공공/민간유형 및 홍보채널의 비교 분석
 - 홍보채널을 보유한 문화공간이 상대적으로 전문인력을 보유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한편으로는 전문인력 보유 현황이 홍보채널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공공/민간유형에 따른 운영 시스템 보유 여부와 보유한 운영 시스템 비교 분석
 - 운영 시스템은 공공유형 문화공간이 민간유형의 문화공간보다 높은 비율로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대관관리 시스템으로 확인되었다.
 -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유하는데 민간유형의 문화공간은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공간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의 비교 분석
 - 3개 지역구의 공동형/독립형 건물 유형 모두 예산지원과 공간 확대가 유사한 수치로 가장 필요로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인력 지원과 인테리어가 뒤를 이어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공동형 건물 유형일 경우 상대적으로 예산지원을 가장 필요로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형 건물 유형일 경우 예산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다른 요소(공간 확대, 전문인력 지원, 인테리어)도 복합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상대적으로 공동형 건물 유형은 유지측면에서, 독립형 건물 유형일 경우 활용측면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지역구별 연간 평균 이용자수와 인구수 비교 분석
- 전반적으로 행정동의 인구수와 별도로 거점형 문화공간을 보유한 지역이 높은 이용자가 나타났다. 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동의 면적, 문화공간, 인구수 등과 함께 거점형 문화공간의 현황과 수용범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정구

- 위례동 내 문화공간은 상대적으로 인구대비 이용자가 큰 폭으로 적게 나타났다. 또한 인구대비 문화공간의 수가 적은 현황을 앞서 확인하였는데, 기존 문화공간의 현황을 배경으로 추가적인 확충이 고려된다.
- 복정동 내 문화공간은 상대적으로 인구 및 문화공간 대비 이용자가 많게 나타났다. 현재 문화공간이 포화상태는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 신흥3동과 태평4동 내 문화공간은 상대적으로 인구 및 문화공간 대비 이용자가 적게 나타났다. 문화공간의 운영 현황과 환경에 대하여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

중원구

- 은행2동 내 문화공간은 상대적으로 인구 및 문화공간 대비 이용자가 적게 나타났다. 문화공간의 운영 현황과 환경에 대하여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

분당구

- 분당동, 정자동, 이매1동, 야탑1동, 야탑2동, 구미3동, 운중동 내 문화공간은 상대적으로 인구수 대비 이용자가 적게 나타났다. 이 지역에는 문화공간이 평균 약 2곳으로, 기존 문화공간의 운영 현황과 환경에 대하여 점검이 필요하다. 동시에 이를 배경으로 문화공간의 확충도 고려된다.
- 하지만 분당구는 상대적으로 행정동이 밀집되어있고 인구밀도가 높은 상황으로, 문화공간의 수용범위와 이용자의 활동 양상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프로그램 보유 여부에 따른 연간 이용자수

-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보유한 문화공간이 그렇지 않은 문화공간보다 높은 이용자를 나타냈다.
- 중원구는 프로그램 여부에 따른 연간 이용자수의 격차가 다른 지역구에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프로그램이 없는 문화공간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인구와 청소년시설의 연간 이용자수 비교 분석

- 분당구는 다른 지역구 대비 청소년인구가 매우 높음에도 청소년시설의 수는 유사한 상황이었으며, 청소년인구수 대비 연간 이용자수는 가장 낮게 확인되었다.
- 청소년 측면에서 분당구 내 문화공간의 수, 수용상태 및 청소년문화 등에 대한 복합적인 추가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배경으로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공간 조성이 진행되어야 한다.

제 5절 종합 분석

1. 주요 쟁점

앞서 성남의 현황과 특성을 확인하고 주목되는 행정동을 분석하였다. 무엇보다 교차분석으로 전수조사 된 문화공간과 관계성을 띄는 몇 가지 요소를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를 분석하여 문화공간을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각 행정동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환경적 맥락 고려

분석 결과 지역의 문화공간 현황을 살펴봄에 있어 각 행정동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맥락과 환경적 맥락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거주구역의 구조와 인구밀집도는 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하는데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일부지역은 주거구역보다 산업단지 및 업무단지의 면적이 더 크게 형성된 행정동이 존재한다. 이 같은 경우 주거인구와 함께 유동인구를 생활인구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문화공간 조성 및 활용 방안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분당구는 대다수의 주거형태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생활권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최근 신도시가 형성된 수정구 위례동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문화공간의 규모 및 운영상황에 따른 현황 고려

이와 함께 지역 내 문화공간들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점검이 필요하다. 일부 지역은 문화공간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거점형 문화공간을 보유하고 있어 주변 지역까지 다수의 이용자를 수용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많은 문화공간을 보유하고 있지만 매우 적은 이용 현황을 보이는 곳도 있었는데 문화공간의 운영환경이 열악할 것으로 추측되었다.

새로운 문화공간을 확보하거나 효과적인 모델 형성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하지만 열악한 문화공간을 지원과 보완을 통해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으로 재탄생 시키는 시도도 고려되어야 한다.

대관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시스템 및 전문인력 확충

문화공간의 운영측면에서는 대관진행과 홍보채널, 전문인력, 프로그램의 여부 간 관계성이 나타났다. 대관진행여부와 교차분석 한 결과, 대관정도와 유사하게 운영요소의 여부 현황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문화공간을 활용하는 범위(공간 고유목적 이외 대관 및 기타 활용)에 따라 공간 활성화를 위해 도입할 수 있는 제반요소에 접근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문화공간을 대관이나 혹은 다른 영역으로 활용하는 시도의 형성은, 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공간 활성화를 위해 제반요소와 시스템을 활용하려는 자주적 활성화 움직임을 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많은 문화공간들이 적극적으로 SNS와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하는데 강점을 보이고 있었다. 주민, 예술가, 문화활동가, 문화클럽, 기관/단체, 공간 등 문화자원을 연결하는 온라인플랫폼이 활성화된다면 복합적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유형 문화공간 발굴을 통한 거점 및 운영시간 확충

문화공간을 다양한 연령층과 구성원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운영시간의 확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대부분의 문화공간은 집중운영시간(9시~18시)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교차분석을 통해 몇 가지 유형에서는 운영시간이 좀 더 유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민간유형 중 대관을 활발히 진행하는 문화공간이 유연한 운영시간을 형성하고 있었다. 생활문화 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시간적 제약을 낮추기 위해서는 민간유형 문화공간을 생활문화공간으로 유도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2. 생활밀착형 공간 방문 조사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의 개념은 유사한 사례를 통하여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지만 아직 정확한 의미의 적용은 시작단계이다. 지속적으로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이 형성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책 초기의 시점에 사례 개발을 통한 공간 모델을 형성하고, 구체적 확대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성남은 오랜 시간 생활문화, 문화공동체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 어디보다 잠재된 문화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활용가치가 충분하다. 이 과정에서 공간자원이 지니고 있는 실제적 상황을 점검하고 공간 운영주체의 니즈를 파악하여, 현실적 적용점에 대하여 고민해 보고자 한다.

1) 공간 선정기준

○ 운영주체

문화공간은 운영주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상 문화공간의 운영주체를 구별하였다. 대상 문화공간의 운영주체 구분은 ‘①민간기업(개인), ②민간단체, ③공공기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하였다. ①민간기업(개인)은 시설과 공간 지속성에 장점과 문화에 대한 이해도, 공동체의식에서의 약점을 예상하였다. ②민간단체는 생활문화와 공동체 의식에 강점과 시설 및 유지, 전문인력 보유에 대한 약점을 예상하였다. ③공공기관은 지역문화와 행정지원에 대한 강점과 운영시간, 공간 활용 측면에서의 약점을 예상하였다.

○ 운영시간

앞서 분석된 데이터에 의하면 문화공간 이용자 중 20대와 30대 연령층의 이용률이 전체의 14%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그 원인으로 연령층별 활동시간을 살펴보면 청년층이 여가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일반적으로 19시 이후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된 문화공간 중 19시 이후로

운영되는 비율은 8.7% 수준으로, 청년층이 19시부터 활용 가능한 문화공간이 매우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공간 선정에 있어 ‘19시 이후 운영여부’를 선정 기준으로 하였다. 하지만 ③공공기관의 공간이 일반적으로 18시에 종료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공간규모

생활문화 활동이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특징을 고려하여 활용측면에서 일정 규모이상의 면적과 공간 보유 수준을 설정하였다. 일부 특정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기 위해 그 범주를 최소한으로 하였다. 설정된 공간 규모 선정 기준은 ‘공용시설과 편의시설을 제외한 2개 이상의 활동 공간 보유’이다.

○대관여부

앞서 분석된 내용에서 대관진행 현황이 공간 활성화 요소들을 도입시키고 체계성을 갖추는데 관련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관여부가 문화공간이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으로 확대되는데 촉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하여 대관 확대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협의대관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3-5] 공간 선정 기준

	운영주체	운영시간	공간규모	대관여부
선정기준	① 민간기업	19시 이후 운영 중	공용시설과 편의시설을 제외한 2개 이상의 활동 공간 보유	협의대관
	② 민간단체			
	③ 공공기관 (행정복지센터)	-		유상대관을 진행하진 않으나, 공익활동의 목적으로 유휴공간을 주민에게 제공

*선정기준을 통하여 민간유형 2곳, 공공유형 2곳으로 총4곳 방문

*선정기준의 적용은 전수조사 된 ‘성남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사’ 데이터를 기준으로 함

* ‘③공공기관’의 공간은 지역 인구수 대비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함

2) 공간 방문 조사

① 민간기업 : (주)로쉬분당지점-분당구

○ 공간 개요

(주)로쉬분당지점은 침출차를 판매하는 기업으로 홍보를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공간 건물은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건물을 이용 중이다. 방문 공간에 운영되는 문화예술시설은 미술전시 전문공간인 로쉬갤러리와 카페, 그리고 공공목적(대관)의 회의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공간들은 하나의 층에서 서로 연계되어 있다. 주로 미술전시와 독서회, 커뮤니티 소모임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카페에서는 자사제품의 판매와 홍보를 진행 하고 있다.

○ 조사 내용

(a) 공간의 구성 측면 : Hardware	
점검사항	주요 내용
개방시간	· 공간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22시까지로 타 공간에 상대적으로 긴 편임
동선분리	· 전반적으로 개방형공간으로 동선 분리는 어려운 편이지만, 공간의 고유 목적이 문화공간임으로 이동이 이질적이지 않음
보안관리	· 자체적으로 전문 보안시스템을 이용 중이며, 아파트 내 보안시스템도 함께 활용 중임
접근성	·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과 5분 내외에 위치하여 접근성 높음 · 좋은 접근성으로 주변 환경에 상가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음
인지성	· 진입 입구가 상가 안쪽에 위치하여 대로에서 인식이 어려움 · 대로에서 쉽게 인지되는 간판 및 사인물 없음
지속성	· 민간기업에서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 상대적으로 지속성 높음
전문적 장비	· 민간기업에서 독자적으로 출자하여 운영함으로, 인테리어와 시설, 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음
비상연락망	· 오픈 시간 동안 담당 직원이 상주하기 때문에 비상연락망 좋은 편
민간기업 주체로 형성·운영되어 운영측면에서 예산수급이 수월한 상황으로 관련 시설과 인력의 운용은 좋지만 외부 인지성을 증가시킬 대안 필요	

(b) 공간의 운영 측면 : Software	
점검사항	주요 내용
생활밀착형 공간	· 생활밀착형 공간 개념에 대한 인식은 낮으나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본 공간을 이용하길 희망
공간공유	· 공간 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으므로, 규정의 범위 내에서 고려 가능
공간형태	· 카페(30~40인/개방공간), 갤러리(약30평/독립공간), 대회의실(6~9인/독립공간), 소회의실(4~6인/독립공간) · 카페공간을 중심으로 다른 공간들이 구성되어 있음
운영규정	· 자체적 내부 규정 있음
홍보채널	· 홍보채널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 홍보채널 없음
본 공간은 시민들의 편하게 이용하는 문화예술 공간을 형성하고 이 공간을 매개로 자사의 제품 판매와 홍보를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는 공간임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본 공간을 이용하길 희망하지만 방법적으로 내부 규정이 있으므로 규정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길 희망	
(c) 공간의 이용 측면 : Humanware	
점검사항	주요 내용
프로그램	·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없음 · 공간 대관은 진행 중으로, 대관을 활용하는 외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 · 카페공간은 찾값을 지불시 편하게 이용 가능함으로, 인근 소규모 모임이 자연스럽게 진행
전문인력 A	· 각 공간에 해당하는 핵심 전문인력 있음 · 프로그램 기획 및 추진할 전문인력은 없음
전문인력 B	· 시설전문인력 없음
이용자 제한	· 이용자 제한 없음
대관시스템	· 자체적 대관시스템은 없으나 온라인플랫폼(스페이스클라우드)을 활용하여 대관홍보 및 대관시스템으로 이용 중 ·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대관이용률 높은 편 · 자유로운 카페공간(차 주문 필요)을 활용한 주민 소모임 많은 편
이용가격	· 대회의실(6~9인) : 25,000원/h · 소회의실(3~4인) : 15,000원/h · 카페전관(30~40인) : 150,000원/h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으므로 추진 계획이 있음. 하지만 관련 전문가가 없어 구체적 대안은 없는 상황으로 민간부분의 기획인력 지원과 가능성에 대한 고민 필요 무엇보다 공공플랫폼이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활용 의지가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 및 이용될 시 주민에게 할인 등의 혜택 제공의사가 있음	

○ 공간 사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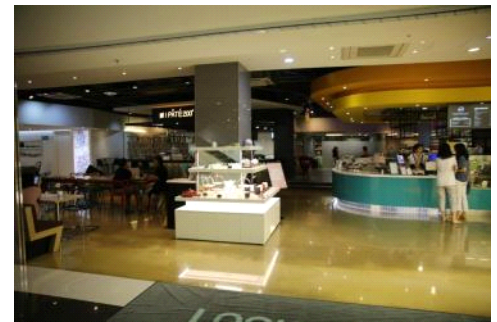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외부 입구(1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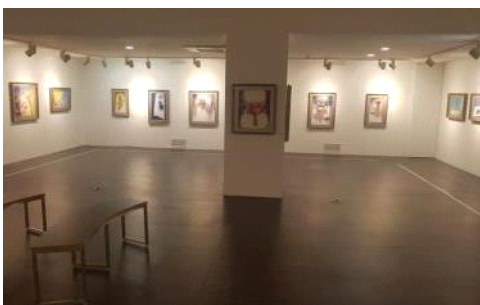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내 본 공간 입구(1F)



로비 전경 (B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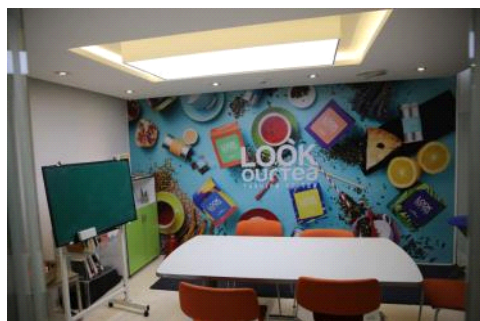
룩아워티 카페 전경 (B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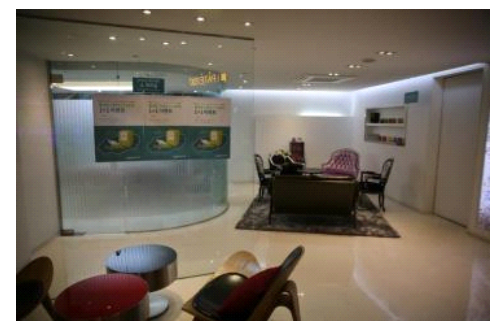
갤러리 전경 (B1)



대회의실 전경 (B1)



소회의실 전경 (B1)



기타 공간 (B1)

○ 시사점

- 위 사례의 민간기업의 경우 내부적 목적을 가지고 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의 부재로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기획과 실행이 시도되지 못하고 있다.
- 그리하여 공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공공플랫폼, 홍보시스템 등이 지원될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이러한 지원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고자 하였다.
- 위 사례의 경우 하드웨어 부분이 이미 구축되어있는 상태로 소프트웨어 및 휴먼웨어 중심의 지원이 가능하다. 기획 전문가를 통한 프로그램 기획 및 프로그램 지원, 주민과 본 공간을 연결시켜줄 플랫폼 및 홍보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
- 특히, 민간기업의 경우 공간 운영 목적과 장점 및 보완점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지원과 활용 측면에서 상호이해관계에 적합한 협의가 된다면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으로 확대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②민간단체 : 섬마을공동체-중원구

○공간 개요

섬마을공동체는 민간단체의 형태로 마을공동체로서 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 등의 형태로 변화를 고민 중에 있다. 공간 건물은 다세대건물의 1층에 장기임대형식으로 위치하고 있다. 공간의 구성은 공용주방과 다목적실을 개방형으로 구성하여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중간문으로 분리된 다목적실이 하나 더 있는데 전체 개폐가 가능하여 2개의 다목적실을 하나로 확대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음악연주실이 별도로 존재한다. 주로 문화예술분야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동시에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섬마을공동체는 문화공동체 등의 유사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므로 생활문화와 문화공동체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었다. 본 공간은 마을주민이(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거나, 운영주체 그룹) 자연스럽게 드나들면서 활용하고 있다.

○조사 내용

(a) 공간의 구성 측면 : Hardware	
점검사항	주요 내용
개방시간	· 공식적으로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만 운영 됨 · 그 외 시간은 개방되지 않은 상태지만 일부 구성원이 자연스럽게 이용 중
동선분리	· 전체적으로 개방형 구조이므로 동선 분리가 어려움
보안관리	· 보안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며, 일반 번호 도어락을 이용 중 ·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그룹과 공간 이용자 및 강사 등의 구성원은 번호를 공유하고 있음
접근성	· 주로 인근 지역에서 공간 이용 · 특수한 프로그램의 경우(드럼 수업 등) 태평동 및 판교에서도 공간 이용
인지성	· 간판 등 사인물이 있지만 주택가 안쪽에 위치하여 대로에서 인식 어려움
지속성	· 장기임대 중(3년차/5년 임대) · 공간 유지에 대한 의지가 높음
전문적 장비	· 문화예술 활동(창작 및 교육)을 위한 다양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 · 특히 다양한 악기 및 방음시설이 된 연습실 보유
비상연락망	· 실 운영주체와 공간 운영을 지원하는 마을주민 간 비상연락망 연결되어 있음

<p>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나 민간단체의 특성상 공간 유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소방안에 대한 지원 필요</p> <p>개방형 공간의 구조로 공간 이용자가 다양하게 활용 가능</p> <p>외부 인지성에 대하여 개선 필요</p>	
(b) 공간의 운영 측면 : Software	
점검사항	주요 내용
생활밀착형 공간	· 생활밀착형의 개념에 대한 인지도는 낮으나, 유사한 내용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있음
공간공유	· 공동체 공간 운영으로 공간공유를 실천 하고 있음 · 하지만 인근 지역 및 공간 이용자 위주로 활용 중
공간형태	· 개방형 복합공간1(10~12인/개방형/주방, 다용도실, 다용도제작실), 방음 음악실(3~4인/독립형), 개방형 복합공간2(6~8인/다용도실)
운영규정	· 공식 운영규정 없으나, 이용 측면에서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음
홍보채널	· 홍보채널은 없으며 입소문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중
<p>전반적으로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로서 공간이 운영되고 있으나, 규정 및 홍보 등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체계성이 낮은 편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이 필요함</p> <p>공간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문화인력자원(전문가 및 강사 등)과의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에서 성남이 보유한 문화인력자원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p>	
(c) 공간의 이용 측면 : Humanware	
점검사항	주요 내용
프로그램	· 음악, 공예(만들기), 요리 등 교육프로그램 위주 구성 · 음악의 경우 정기공연 진행 중(연1회) · 이용자 자체적으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중(영어로 진행되는 보드게임 등) · 부모대상으로 놀이 연수를 진행하고 사회공헌(돌봄행사) 활동 중 · 그 외 지역 주민들의 자율 커뮤니티 및 청소년의 자율 스튜디오 활용
전문인력 A	· 운영에 관련된 전문인력은 대표자 1인 중심으로 만 운영 중
전문인력 B	· 시설전문인력 없으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외부 강사에게 의지 중
이용자 제한	· 이용자 제한 없음
대관시스템	· 대관 진행 중이나 홍보 및 관련시스템 없으며 주로 인근 주민들이 이용 중 · 온라인플랫폼과 IOT등 기술 활용에 대하여 적극적임 · 대관운영을 확대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나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황 · 적극적 대관운영으로 공간 유지에 대한 경제적 도움이 되길 희망
이용가격	· 정확한 규정 없음
<p>운영에 대한 전문인력은 대표자 1인 밖에 없으나, 본 공간을 이용한 적 있는 마을 주민들이 비공식 운영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원 중</p> <p>생활밀착형 공간으로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홍보가 취약하여 고정된 주민에 한정되어 이용되는 것으로 판단 됨</p> <p>공간 운영 및 대관운영 등에 대하여 컨설팅이 필요하며 대관활성화를 통해 공간공유의 실천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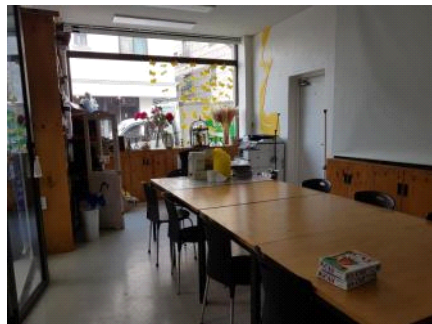
○ 공간 사진 자료



연립주택의 외부 입구(1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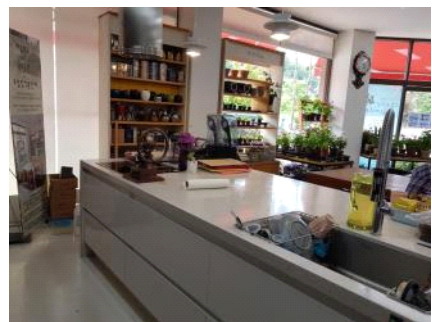
복합공간A 전경(1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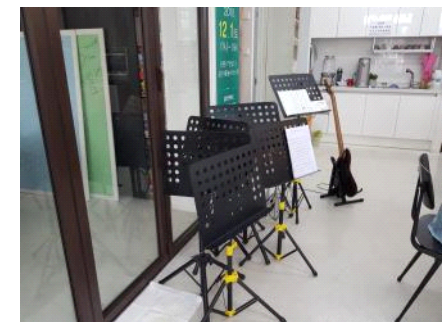
복합공간B 전경(1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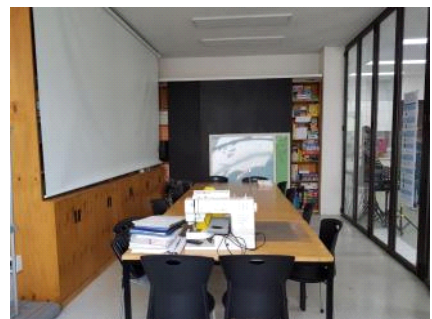
복합공간A 전경(1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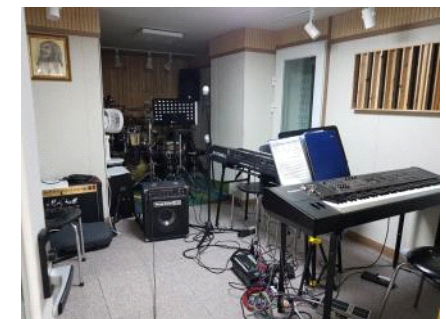
복합공간A-공용주방 전경(1F)



복합공간A-기타수업 전경(1F)



복합공간B 전경(1F)



음악실 전경(B1)

○ 시사점

- 위 사례의 민간단체의 경우 생활문화와 공동체 분야에 꾸준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목적의 공간에 대하여 경험적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공간의 구성과 형태가 적합하게 갖춰져 있는 장점이 있었다.
- 하지만 전반적으로 교육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공간의 유희 시간이 많았다. 전문적인 운영 인력은 대표자 1인에 한정되어 있어 공간 활용 및 홍보, 활성화에 대한 고민과 시도에 한계가 있었다.
- 이러한 사항으로 본 공간에서 휴먼웨어 중심의 지원이 진행된다면 소프트웨어가 자체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과 전문인력의 조언이 필요하며, 이를 배경으로 구체적인 실행안 수립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동시에 이를 촉진시킬 하드웨어가 부분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소프트웨어의 자체적 형성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 운영주체는 무엇보다 공간의 유희시간을 활용하여 공간 유지를 위한 경제적 기회 확보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
- 민간단체의 경우 자발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생활문화, 예술, 지역공동체 등에 대한 의지와 욕구가 높은 편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전문컨설팅 및 운영지원이 좀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무엇보다, 성남의 문화자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플랫폼이 구축된다면 이러한 유형의 공간(운영주체)의 자주적 활동이 촉진되고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③ 공공기관 : 행정복지센터-수정구

행정복지센터는 특정한 개별공간이 아니며 모든 지역에 형성되어 있다. 그에 따라 성남 내 가용 공간자원 중 가장 많은 수가 존재한다. 공간 방문 조사를 통하여 행정복지센터마다 지니고 있는 특수성과 다양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으로 몇몇 공간을 일반화하여 행정복지센터로 귀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행정복지센터 공간 방문 조사에서 세부내용을 다루기보다,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복지센터의 시사점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 공간의 물리적 특성

-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의 인구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으므로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기대된다.
- 대부분 주민자치센터나 작은도서관 등 연계된 시설/단체/공간이 존재하고 있다.
- 하지만 연계된 시설/단체/공간에 따라 건물의 규모와 가용 공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중소규모를 띄는 곳도 있지만 일부 행정복지센터의 건물(공간)은 지역의 (광역)거점형 문화공간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 공간의 성격

- 행정복지센터는 지자체 중심으로 행정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책과 사업, 지원을 추진하는데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다.
- 하지만 이러한 목적을 배경으로 다른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 또한 행정복지센터마다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추진 및 참여하는데 희망 정도와 에너지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며, 생활문화와 문화공간에 대한 인식 정도의 차이도 나타난다.
-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가진 성격과 동일하며 특히 운영시간과 운영규정이 그러하다.

○ 시사점

- 행정복지센터마다 각각 다른 현황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정책과 활동에 대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행정복지센터가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의 대상으로 고려될 때 그 특수성과 함께 효과적인 참여 유도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일반적으로 행정복지센터가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를 연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성의 접근 방향을 주민자치센터 중심에서 행정복지센터로 형성하는 방안이 공간 조성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고려된다.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에게 자주적 생활문화 활동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행정복지센터의 지원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간의 특성상 보안과 안전관리에 대한 하드웨어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3) 공간 방문 조사 종합의견

○ 공간과 운영주체

- 방문 조사한 공간마다 고유의 목적과 특성이 있었다. 이러한 개별 공간들을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으로 활용 및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획일화된 지원체계보다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 특히 해당 공간 운영주체가 가지고 있는 운영목적과 가능성에 대하여 이해가 필요하며, 협의 과정이 동반되어야 실효성 있는 추진이 가능 할 것이다.
- 대부분 문화공간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전문인력이 부족으로 실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의 지원 및 컨설팅이 필요하다.
- 행정복지센터는 효율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에 적합한 활용이 점쳐지지만, (행정지원 목적의)공공기관 내부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센터나 문화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를 배경으로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 공간과 운영주체들의 자주적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성남의 문화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 과제로 고려된다.

제 1절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활성화 기본방향 및 전략

1. 기본방향
2.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
3.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제 2절 공간의 물리적 특성 개선을 통한 활성화 전략

1. 문화공간 실태조사
2. 유허공간 발굴 및 조성
3. 특성화공간 확대 및 연계 공간 조성

제 3절 공간의 운영적 특성 개선을 통한 활성화 전략

1. 전문인력 컨설팅
2. 전문인력 지원
3. 전문인력 양성

제 4절 공간의 이용적 특성 개선을 통한 활성화 전략

1. 공유자원 분석
2. 공유 플랫폼 구축
3. 공유 플랫폼 확산

제4장 활용방안 연구

제 1절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활성화 기본방향 및 전략

1. 기본방향

-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기본 개념
 - 본 연구에서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관련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
 -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이란, 일상적인 보행이나 비교적 느린 속도의 이동수단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상생활 속에 위치하여, 지역의 주민·동호회·커뮤니티 누구나 문화예술 교육·창작·향유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 **문화예술공동체의 영역**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건축, 출판 및 만화 등과 함께 기타 혼·융합적 특성을 띤 분야’를 의미함
 - **문화예술공동체 활동**은 ‘개인이 취미를 공유하는 규율(규범)화된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동료회원들과 상호작용을 형성하고 자아실현과 회원들 간의 공동체성을 획득하는 행위’임
 - **문화예술공동체 특성**은 개인의 특성, 사회적 특성, 조직적 특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표 4-1] 공동체특성

개인적 특성	사회적 특성	조직적 특성
· 가입과 활동의 자발성	· 회원들 간의 상호작용 · 개인적 취미를 같이 함	· 조직내부의 규칙(규범) · 지속성
· 자아실현	· 자아실현과 공동체성 · 상호작용	· 내부규범의 형성과 준수 · 공동체 정체성

－ 문화예술공동체 기능은 개인의 입장에서와 사회속에서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음

[표 4-2] 문화예술공동체 기능

단위별	기능
개인	· 자아실현의 확대 호기심에 기반을 두어 창조적 문화행위를 함으로써 저항과 구원을 통해 자기의 내면을 통합하고 타자 지향적인 자기정립과 자신을 드러냄
사회	· 공동체 의식의 내면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동시에 변화를 촉매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공동체 지향성

－ 문화예술공동체와 문화자원봉사 활동의 비교

[표 4-3] 문화예술공동체와 자원봉사 비교

공통점	차이점	
·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활동 · 자유의지에 따른 자발적 활동 · 자아실현을 위한 활동 · 문화 민주주의와 연관된 활동 · 지역 공동체 형성	공동체	자원봉사
	· 자기지향 · 단체단위 · 공동체 규범 · 문화 민주주의	· 타자지향 · 개인 단위 포함 · 수혜자 규범 · 문화의 민주화 포괄함

－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활성화를 위한 요소적 구분¹⁴⁾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로 구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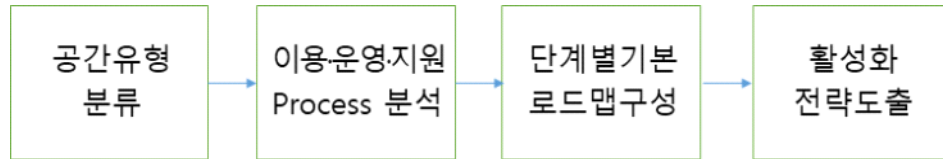
- 공간의 하드웨어(Hardware)적 요소로는 공간이 물리적으로 가지는 속성으로 건립연도, 위치, 형태, 편의(부대)시설, 대중교통과의 거리 등으로 구분함
- 공간의 소프트웨어(Software)적 요소로는 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속성으로 운영주체, 인증유형, 이용시간, 운영 프로그램, 운영예산, 운영규정(규칙), 대관 등으로 구분함
- 공간의 휴먼웨어(Humanware)적 요소로는 공간의 이용 측면을 고려한 속성으로 전문인력, 시스템, 홍보, 이용 특성(이용 규모, 연령, 성별, 지역, 장르) 등으로 구분함

14) ‘박지훈, 김영주 외. (2018). 「성남 생활문화정책 평가 및 발전 방안」. 성남문화재단.’을 참고하여 기초 개념을 도입함.

-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의 구성 주체는 이용주체, 운영주체, 지원주체로 구분함
 - 문화예술공동체 공간의 이용주체는 일상 속에서 문화를 매개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모이되 서로 동의하는 규칙을 지키면서 정보교환, 친목도모, 정서적 유대감 등을 나누면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포괄적인 모임을 하는 개인 및 단체 모두를 포함
 - 문화예술공동체 공간의 운영주체는 공간의 물리적 소유 또는 소유자로부터 운영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아 그 공간의 물리적, 비물리적 사항에 대한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함
 - 문화예술공동체 공간의 지원주체는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를 통하여 문화예술공동체의 성장과 공간 운영에 대한 지속성을 확보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 본 연구에서 정책추진 시 고려해야 할 문화예술공동체 참여단계별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함.
 - 초보자 : 공동체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 및 활동영역이 일상생활에서 크게 영향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활동을 하는 자. 공동체 활동의 몰입도가 낮고 여가시간의 활용,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여와 경험을 하는 수준에 만족함. 공동체활동에 있어서 감수해야 할 비용문제, 시간할애문제, 성공적 모델 부재 등에 부담을 느낌
 - 준전문가 : 공동체 활동에 애착을 가지고 진지한 여가형태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자. 공동체 활동의 지속성에 대해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짐. 공동체 성공모델에 대한 동경심을 바탕으로 발전가능성에 대한 지향점을 찾아나가면서 활동영역을 확장시켜나가는 시기임. 이 시기의 공동체 활동가들은 프로그램의 난이도 및 수준의 향상여부에 따라 전문가로서의 발전가능성이 나타나고 이에 대한 공동체 활동의 질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됨
 - 숙련가 : 스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동체 조직 내외로 범위가 확장되는 시기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공헌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주체자. 향상된 기량으로 강사활동이나 봉사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함.

2.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



[그림 4-1] 활성화 전략 도출을 위한 순서

○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유형 분류 및 조성 방향

－ 공간분류

- 공공공간(유헤공간, 가용공간, 신규공간)과 민간공간(배타적공간, 오픈공간)
- 연습공간, 학습공간, 공연공간, 교류공간(축제)

[표 4-4]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분류

공공공간			민간공간		
유헤공간	가용공간	신규공간	배타적공간	오픈공간	
폐산업시설 노후공간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박물관·미술관 청소년수련관 (작은)도서관 등	주민자치센터 /기존 커뮤니티 공간 확장	연습	공공성이 큰 공간	상업성이 큰 공간
			학습	문화공간이 구성된 상업시설 등	카페/식당 전통시장 상가거리 등
			공연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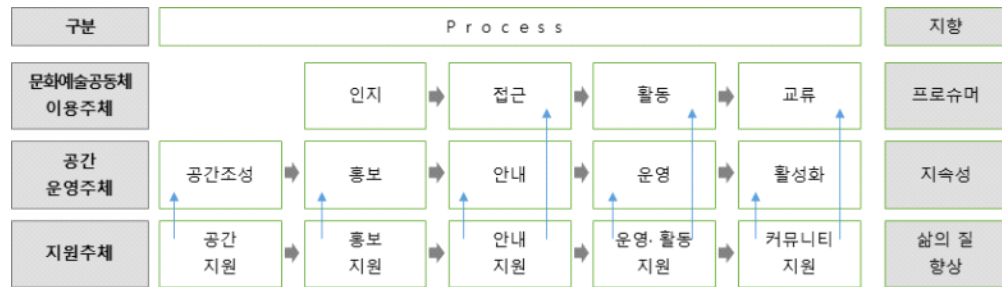
－ 공간 조성 방향 : 거점별 단계적 공간 조성

- 1단계 : 신규공간 조성 및 운영
: 단기간 내 사용 가능한 공간 발굴 및 지원
- 2단계 : 유헤공간 발굴 및 조성
: 오픈공간(공공성이 큰 공간)과 협력 및 공적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
: 오픈공간(상업성이 큰 공간)의 발굴 및 공적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
- 3단계 : 특성화공간(연습공간, 학습공간, 교류공간, 축제공간) 확대 및 제공
: 세부단위 거점별 공간 연계 활용

○ 문화예술공동체 이용·운영·지원 주체 Process 분석

－ 주체별 역할 분류

- 이용주체(문화예술공동체)는 공간의 인지-접근-활동-교류를 통해 초보자에서 준전문가 숙련자로의 발전하며 이를 통하여 소비자에서 일부 공급자로 변화
- 공간의 운영주체는 공유공간을 위한 조성-홍보-안내(공간 이용, 프로그램)-운영-활성화의 과정을 거쳐 지속성 확보
- 지원의 주체는 이용주체와 운영주체의 활동과정을 위한 공간지원-홍보지원-안내지원-운영지원-커뮤니티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향



[그림 4-2] 주체별 Process

－ 단계별 지원 방향 : 초기 직접지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간접지원 확대

- 1단계 : 공간정보 구축 및 공간 조성 지원
 - : 생활밀착형 공간 실태조사
 - :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¹⁵⁾ 구축
 - : 공간의 구성, 운영, 활성화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
 - : 안전과 위생을 기본으로 초보자의 접근 향상 공간 우선 지원
 - : 활동 매개자 지원 및 매개자 정보 구축

15)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란 과거 인쇄물 형태로 이용하던 지도 및 지리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 관리하고, 여기서 얻은 지리정보를 기초로 데이터를 수집 분석 가공하여 지형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설계된 종합 정보 시스템

- 2단계 : 통합관리 지능형 플랫폼 구축
 - : 홍보지원-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브랜드화
 -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지원
 - 전문예술가 ambassador(홍보대사), 시민홍보단 운영
 - : 안내지원-(운영주체 대상) 통합안내소(온라인-콜센터) 연계
 - (이용주체대상) 시민 공간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 : 운영지원-보안 · 위생 관제소 운영 및 대관시스템 제공
 - : 교육지원-준전문가, 숙련자 수준의 동아리 역량 강화 교육
 - :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및 프로그램 (지역)매개자 발굴
- 3단계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축제 연계
 - : 지역 커뮤니티형 축제 기획 · 운영 · 공유
 - : 타지역 커뮤니티 연계 교류

○ 이용자 유입 및 활동 단계별 지원체계

- 이용자 단계적 유입 : 문화예술공동체 참여 이전까지의 유입 확대
 - 1단계 : 이용자의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인지를 위한 장치 개발
 - : 생활밀착형 공간 종합 안내를 위한 통합안내 체계 기획
 - : 관내 생활문화센터 연계 안내 프로세서 제공
 - 2단계 : 체계적 안내를 위한 정보 수집 · 구축 제공
 - : 공간 인지도 향상을 위한 청소년 연계 체험(공간+여가&직업) 프로그램 운영
 - 3단계 : 주요 거점별 플랫폼 DB연계 정보 제공형 IOT 디스플레이 시스템 설치
- 이용자 활동 초보자, 준전문가, 숙련자 활동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 1단계 : 활동 매개자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공동체 프로그램 연구
 - : 초보자 멘토링 지원
 - : 준전문가, 숙련자 활동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
 - 2단계 : 전문예술가 + 지역주민 대상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 : 준전문가, 숙련자 대상 프로튜어먼트¹⁶⁾, 아나컬처리스트¹⁷⁾ 등 운영
 - 3단계 : 자발적 · 주도적 참여 프로세서 플랫폼 제공

16) 프로튜어(Proteur)는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합성어로 전문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취미 혹은 개인으로 활동하며 해당 분야의 시장에서 경제활동까지 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콘텐츠 유통한다. 프로튜어먼트(Proteurment)는 이런 프로튜어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신한 프로튜어의 발굴과 홍보를 통하여 활동 영역을 메이저시장까지 확대하게 한다.

17) 컬처리스트(Culturist)는 먼저 문화콘텐츠전문가로 이해된다. 또한 창직(創職, Job Creation) 활동이 확대되면서 특정 분야와 접목된 새로운 직업을 지칭할 때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연의 배경지식을 대중에게 스토리텔링해주는 직업을 '아나컬처리스트'로 지칭한 경우가 있다.

3.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 단계별 기본 로드맵

-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성시 필요한 단계별 전략 실행 방법
-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이용 · 운영 · 지원 주체별 프로세스 단계별 전략 방안 구성
- 공간 관점과 활성화를 이용자 관점에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적 요소별 단계적 추진 방향 설정

[표 4-5]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S P A C E	공간 Hard ware	문화공간 실태조사	유휴공간 발굴 및 조성	특성화공간 확대 및 연계 공간 조성
		· 공간 실태조사 · GIS 구축	· 거점공간 지원	· 특성화공간 맞춤 지원
	운영 Soft ware	전문인력 컨설팅	전문인력 지원	전문인력 양성
		· 전문인력 및 매개자 정보구축 · 운영 컨설팅	· 전문인력 및 매개자 발굴 · 지원	· 신규 전문인력 양성
	이용 Human ware	공유자원 분석	공유 플랫폼 구축	공유 플랫폼 확산
		· 초보자 컨설팅 · 공간 브랜드 개발	· 플랫폼 구축 - 대관시스템 제공 - 홍보채널 제공 및 지원 · 문화예술공동체 콜센터	· 플랫폼 DB연계 정보 제공

제 2절 공간의 물리적 특성 개선을 통한 활성화 전략

1. 문화공간 실태조사

○ GIS 구축

－ 기본방향

- 시민의 문화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성남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문화공간 조사’ 를 기반으로 구성된 DB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활용한 문화지도 구축

－ 운영형태

- 초기 : 재단 홈페이지 내 제공
- 중기 : 성남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플랫폼 연계 제공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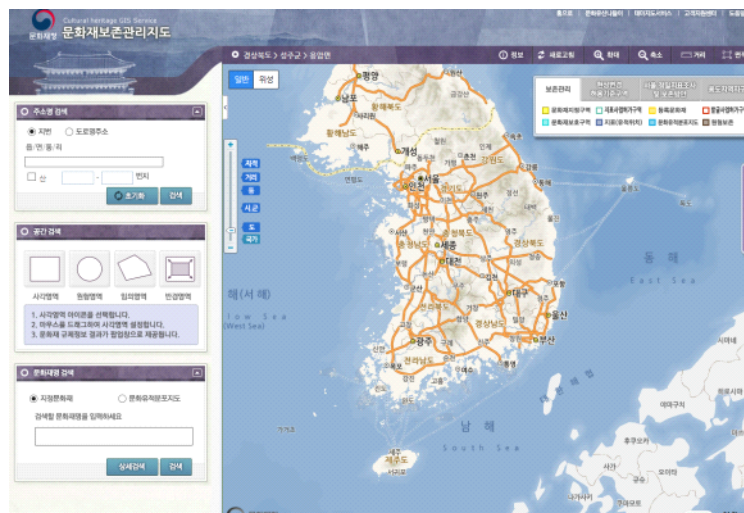
- 생활밀착형 공간 전수 조사
- 조사를 통해 검증된 데이터 우선 노출
- 오픈 API MAP을 활용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

－ 기대효과

- 사용자가 GIS를 활용하여 인근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접근성 확보에 용이

－ 주요사례

- 문화재보존관리지도 : <http://www.gis-heritage.go.kr/re>



[그림 4-3] 문화재보존관리지도 홈페이지

- 수원문화지도 : <http://www.swcf.or.kr/swdb/?p=6>

*일부 메뉴의 경우 회원가입 필요

2. 유희공간 발굴 및 조성

○ 거점 공간 지원

- 기본방향

- 상대적으로 문화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주민의 용이한 공간 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공간 우선 지원

- 지원시 고려사항

(Hardware적 요소)

· 개방시간이 충분한가?

: 이용시간이 자유로우면 일과시간 이전(09시 이전)과 이후(18시 이후) 개방이 가능한 공간 우선 선정 필요

· 복합공간의 경우 업무공간과의 공간 및 동선이 분리되어 있는가?

: 운영 목적이 다양한 경우 문화공간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다른 목적의 공간과 분리되어 상호 공간 운영 목적에 대한 피해가 없는지 이를 위한 동선 분리가 되어 있는지 고려

· 보안 및 관리가 가능한가?

: 오픈시간의 확장을 위해서 운영주체가 상주하여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고, 상주인력 확보가 어려울 경우 보안 및 관리의 지원을 통하여 운영시간의 연장이 가능하지에 대한 가능성 여부 확인

· 접근성이 용이한가?

: 도보 또는 대중교통을 통하여 접근이 용이한 공간 검토

· 인지성이 좋은가?

: 외부에서 쉽게 확인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와 간판 지원 등을 통하여 가시적 인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

· 지속성이 있는가?

: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선정 후 최소 3~5년 이상의 운영이 지속되는데 무리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

· 기본 편의시설이 있는가?

: 화장실, 탕비실 등 이용시간동안 기본 편의시설의 이용이 자유로운지

· 비상연락망이 구축되어 있는가?

: 시설 이용 시 이용에 관하여 대처가 가능한 연락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검토

(Software적 요소)

· 운영주체는 문화예술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검토

·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구성으로 인한 추가 비용 산정이 가능한가?

: 공간 구성을 통하여 공간을 개방할 경우 이로 인하여 추가로 유발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가늠할 수 있는지 검토
(전기, 수도, 인건비, 물품관리비 등)

· 이용가능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규모 : 이용가능 인원/ 형태 : 교육, 공연, 연습, 커뮤니티 등)

· 운영규정은 준비되어 있는가?

: 공간 개방에 필요한 운영규정 준비여부 검토

· 전문장비는 준비되어 있는가?

: 공간 활용 시 필요한 기자재(빔스크린, 조명 등) 보유여부

(Humanware적 요소)

· 프로그램 운영을 진행하고 있는가?

: 운영 공간의 프로그램 여부와 종류 검토. 프로그램이 없다면 신규 프로그램 도입의 가능성여부 검토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이 있는가?

- 전문장비 운영을 위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무대, 음향, 조명, 기획, 분야별 교육자 등)
- 이용자 제한이 있는가?
: 연령, 성별, 지역 등에 대한 이용 제한여부 검토
- 대관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 현재 대관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공공 대관플랫폼 도입 시 연계 가능한지 검토
- 이용가격에 대한 정책은 어떠한가?
: 주변 공간보다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또는 공유 공간으로 활용 시 할인 정책의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
- 이용특이사항이 있는가?
: 해당 공간의 지리적, 상황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약사항이 있는지 검토
- 공간 및 프로그램 홍보채널은 가지고 있는가?
: 독자적인 홍보채널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상세하게는 홍보채널의 운영인력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검토

- 운영형태

- 공공재원 투입을 통하여 선발된 공간의 안전, 위생, 시설, 홍보 등 운영을 위한 항목 지원
- 지역 또는 운영시설의 특수성에 따른 지원 비율 설정
- 단계별 지원체계를 통하여 향후 자생적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연계

- 주요 내용

- 안전, 위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홍보 등 다각적 지원
- 상시 컨설팅 및 지속적인 운영 모니터링을 통하여 안정적 공간 확보

- 기대효과

- 운영자의 공유공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를 함양
- 시민 누구나 인근에서 쉽게 이용 가능한 공간의 지속적 확보 가능

－ 주요사례

· 서울시 마을창작소

： 2013년 서울시 마을예술창작소(이하 마술소) 사업이 시작되고 2014년 3월 첫 운영위원장을 선출하여 네트워크사업을 시작

： 지원내용 - 인건비, 사무관리비, 사업진행비, 시설비 등

： 지원규모 - 주민제안형(주민이 직접 제안), 2000만원 이하, 최대 2년, 자부담 10%
- 민관협력형(자치구와 지역전문가 공동 제안) 1억원 이하, 최대 2년, 자부담 10%

[표 4-6] 공간 점검 사항

공간 점검 사항				
	충분	적정	미흡 (점검 내용 체크)	보완 가능 사항
◎ 공간의 구성 측면 : Hardware				
개방시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어떻게 미흡한가?)	(보완이 가능한 범위는?)
개방시간이 충분한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운 곳으로의 변화가 가능한 공간 필요.				
동선 분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어떻게 미흡한가?)	(보완이 가능한 범위는?)
동선이 분리될 수 있는가? 공간 고유의 목적을 배경으로 생활밀착형 공간으로서 활용하기에 충돌되진 않는지, 혹은 새로운 동선의 확보가 될 수 있는지 검토 필요.				
보안관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어떻게 미흡한가?)	(보완이 가능한 범위는?)
보안 및 관리가 가능한가? 개방시간 확장을 위하여 운영주체가 상주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안 및 관리가 진행될 수 있는지 검토 필요.				
접근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어떻게 미흡한가?)	(보완이 가능한 범위는?)
접근성이 용이한가? 도로 또는 대중교통을 통하여 접근이 용이해야 하며, 접근에 제약을 형성하는 외부 환경이 없는 공간이 우선되어야 함				
인지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어떻게 미흡한가?)	(보완이 가능한 범위는?)
인지성이 좋은가? 외부에서 쉽게 확인 가능한지에 대한 현황과 지원을 통해 향상될 수 있는지 물리적 여건을 가지고 검토 필요.				
지속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어떻게 미흡한가?)	(보완이 가능한 범위는?)
지속성이 있는가? 생활밀착형 공간 선정 후 최소 3~5년 이상의 운영이 지속되는데 무리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전문장비 보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어떻게 미흡한가?)	(보완이 가능한 범위는?)
전문적 장비가 있는가?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에 필요한 요소로 전문장비 보유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계획 및 지원 가능범주 검토 필요.				
편의시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어떻게 미흡한가?)	(보완이 가능한 범위는?)
기본 편의시설이 있는가? 화장실, 탕비실 등 이용시간동안 기본 편의시설의 이용이 자유로운지, 또한 다양한 활동 도구와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검토 필요.				
비상연락망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어떻게 미흡한가?)	(보완이 가능한 범위는?)
비상연락망이 있는가? 공간을 복합적으로 운용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한지, 또는 비상시 지원 가능한 체계에 대한 현황 검토 필요.				

◎ 공간의 운영 측면 : Software

인식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어떻게 미흡한가?)	(보완이 가능한 범위는?)
운영주체가 생활밀착형 공간과 공유 및 공동체에 대한 가치와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가? 운영주체가 공간을 활용하는데 의지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추가비용 예측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어떻게 미흡한가?)	(보완이 가능한 범위는?)
공간을 운영해 나가는데 유지비와 소모비에 대한 예상과 대응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용가능형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어떻게 미흡한가?)	(보완이 가능한 범위는?)
공간을 활용하는 형태(교육, 공연, 연습, 커뮤니티 등)에 따라 이용가능 인원 검토 필요.				
운영규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어떻게 미흡한가?)	(보완이 가능한 범위는?)
공동체 공간으로서 복합적으로 구성된 다수가 사용하는 공간을 운영해나갈 합리적인 규정이 있는가?				
홍보채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어떻게 미흡한가?)	(보완이 가능한 범위는?)
공간 홍보채널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공간을 운영하면서 홍보채널 구비를 위한 계획이 있는가?				

◎ 공간의 이용 측면 : Humanware

프로그램 운용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어떻게 미흡한가?)	(보완이 가능한 범위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가?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간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 필요.				
프로그램 도입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어떻게 미흡한가?)	(보완이 가능한 범위는?)
프로그램 도입 계획이 있는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확대에 대한 고민이 병행되고 있는지, 없다면 구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검토 필요.				
전문인력 운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어떻게 미흡한가?)	(보완이 가능한 범위는?)
프로그램 및 운영, 홍보 등을 위한 전문인력이 운용되고 있는가? 보유한 전문인력과 공간 현황을 배경으로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검토 필요.				
전문장비 운영 전문인력 보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어떻게 미흡한가?)	(보완이 가능한 범위는?)
전문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공간 운영을 위해 구비된 전문장비의 활용 및 유지가 가장한지, 전문인력의 유무나 대행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 필요.				
이용자 제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어떻게 미흡한가?)	(보완이 가능한 범위는?)
공간을 이용하는데 이용자 제한(연령층/성별/지역 등)이 있는가?				
대관시스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어떻게 미흡한가?)	(보완이 가능한 범위는?)
대관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대관 진행에 대한 인식과 공간을 공공플랫폼과 연계가 가능한지 검토 필요.				
이용가격 정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어떻게 미흡한가?)	(보완이 가능한 범위는?)
공간 이용 시 가격책정에 대한 규정이나 계획이 있는가? 많은 이용자에게 공간 활용의 수혜를 제공하기 위하여 할인이나 혜택정책이 가능한지 검토 필요.				
이용 특이사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어떻게 미흡한가?)	(보완이 가능한 범위는?)
공간의 활용과 이용에 대하여 특수한 환경적, 사회적 사항이 있는가?				
모든 사항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황점검과 지원으로 보완이 가능한 범위를 확인. 이를 배경으로 지원을 통한 활성화 가능성을 점검하고 좀 더 실효성 있는 추진 계획을 설정하는 지표로 활용.				

3. 특성화공간 확대 및 연계 공간 조성

○특성화공간 맞춤 지원

- 기본방향

- 음악, 공연, 학습 등 특성화공간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분야의 전문성 지향

- 주요 내용

- 타악기 또는 소음이 큰 악기를 다루는 공간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연습실 지원
- 공연 등 창작품을 공유할 수 있는 실내외 무대공간 지원을 통한 공간 확보
- 공예 등 전문 학습을 할 수 있는 공방공간 지원
- 미술, 음악, 장비를 이용한 전문교육을 필요로 하는 공간 지원

- 기대효과

- 문화예술공동체 활동의 다양성 확대

- 주요사례

- 서울문화재단 창작 작업실 · 연습실 지원
: 지원대상 - 창작활동을 목적으로 서울시 소재의 공간을 월세로 임차해 창작공간(작업실, 연습실)으로 운영 및 사용하는 민간 예술단체 또는 2인 이상의 예술인
: 지원규모 - 1개소 당 6개월의 순 임차료를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제 3절 공간의 운영적 특성 개선을 통한 활성화 전략

1. 전문인력 컨설팅

○ 운영 컨설팅

- 기본방향
 - 단순한 일시적 지원이 아닌 공간의 지속적 유지·성장을 위한 운영적(특성화 및 효율화 등) 측면의 컨설팅을 추진하여 운영자의 전문성 확보
- 운영형태
 - 대관규정 및 운영시간 설정을 위한 컨설팅
 - 특성화공간 구성을 위한 전략 컨설팅
- 주요 내용
 - 공간별 기본 운영매뉴얼 제공
 - 인근 공간 운영 프로그램 및 시간정보 제공을 통한 연계 운영시간 설정

2. 전문인력 지원

○ 전문인력 및 매개자 발굴·지원

- 기본방향
 - 인위적인 지역사회 참여가 아닌 자연스러운 연계가 가능하도록 전문인력과 매개자 발굴을 통한 공간의 활용과 연결, 프로그램 구성 등을 통하여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가능성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
- 운영형태
 - 폭넓은 분야의 전문인력 발굴 및 지원
 - 다양한 형태의 매개 활동 지원

- 주요 내용
 - 전문인력의 폭넓은 참여를 통하여 공동체의 운영·교육·활동의 전문성 확보
 - 매개자 양성을 통하여 문화공간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최적화된 공간, 프로그램을 매칭 또는 기획
 - 무대, 조명, 음향, 장비, 홍보 등 각 파트별 전문 매개인력 발굴·지원
- 기대효과
 - 다변화하는 다양한 공동체의 활동 욕구에 맞춰 인적, 물적 자원의 연결 및 프로그램의 기획 제공을 통한 공동체 운영의 수월성 확보

3. 전문인력 양성

○ 신규 전문인력 양성

- 기본방향
 -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활동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 운영형태
 - 공동체 활동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직군에 대한 개발 지원
- 예시(청년포털, 2016)
 - 대중에게 음악을 전달할 기회가 드문 아마추어 음악가들이 메이저에 진출할 방법을 찾아주는 ‘프로튜어먼트’
 - 민요 가사 바꾸기나 작곡, 게임 등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하는 일을 하는 ‘음악캠프 컨설턴트’
 - 공연의 배경지식을 스토리텔링 하는 직업인 ‘아나컬처리스트’
- 기대효과
 - 공동체 활동을 통해 새로운 분야로의 접근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제 4절 공간의 이용적 특성 개선을 통한 활성화 전략

1. 공유자원 분석

○ 초보자 컨설팅

- 기본방향
 - 문화공간의 전반적인 홍보와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참여를 원하지만 이와 같은 활동을 잘 모르는 초보자를 위하여 찾아가는 방식의 컨설팅 진행
- 운영형태
 - 매개자를 중심으로 활동이 왕성한 공동체와 협력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학교, 기관 등 비교적 문화예술공동체 공간에 대한 인식이 적은 곳을 순회하여 공동체 공간 및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 운영 방식의 컨설팅 진행
- 기대효과
 - 신규 이용자(청소년, 청년층 등)의 진입을 통하여 성남시민 누구나 공간을 사용함에 있어 더욱 활발한 참여 가능

○ 공간 브랜드 개발

- 기본방향
 -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BI(Brand Identity) 개발
- 운영형태
 -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운영에 동참하는 공간들에 공공성이 높은 브랜드 개발 후 제공
- 주요 내용
 - 온라인 홍보에 활용 가능한 공간 BI 개발
 - 인쇄물 및 간판 제작 시 시안성이 높은 BI 개발
- 예시
 - 생문공(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 생활문화공간(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 성남문화SPACE / 성남공동체SPACE / 성공SPACE (성남 공동체 공간)

2. 공유 플랫폼 구축

○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플랫폼 개발

- 기본방향
 -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플랫폼은 공간에 대한 기본정보를 바탕으로 이와 연결되는 공간을 이용하는 공동체, 매개자의 정보와 공동체가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정보 등을 통하여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기획, 구축
- 특성
 - 참여형 플랫폼으로 운영
 - 이용자/ 운영자/ 관리자의 온라인 연결을 통하여 공간 운영의 효율성 지원
 - 문화예술공동체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아카이빙 할 수 있도록 구성
 - 공동체의 홈페이지 및 SNS 채널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도록 기획
- 플랫폼 시스템 메뉴 구성 예시
 - 대메뉴 : 성남 공동체 | 공간지도 | 공간클릭 | 공유자원 | 공공 STORY | 공간참여
- 기대효과
 - 간접지원의 형태로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의 공간을 집결하고 공동체의 홍보를 통하여 자존감을 높이며 공간 운영자의 운영 수월성에 기여하여 플랫폼 이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어 공간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음
- 주요사례
 - 공동체와 공간을 비롯하여 아카이브의 개념이 들어간 플랫폼은 없으나 각각의 기능이 단독으로 운영되는 사례는 있음

○ 대관시스템 제공

- 기본방향
 - 성남 내 문화공간의 유희공간을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성남시민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예약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 모임부터 마을행사까지 문화예술공동체 거점공간 제공

- 운영형태
 - 문화예술공동체를 위한 플랫폼 내부에 대관시스템 운영
 - 유희공간 중 대관이 가능한 공간 전체를 대관 DB로 연계
- 주요 내용
 - 대관 가능한 유희공간을 시간단위로 확인 및 예약, 결제 진행
 - 대관 공간의 위치 및 시간 등 예약한 정보를 공동체 구성원에게 메시지 전달
 - 대관 예약 관련 문의 운영자와 온라인 소통 기능 구성
 - 실시간 대관현황 통계 데이터 인포그래픽 구성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제공
- 기대효과
 - 공동체의 활동에 맞는 주변 유희공간을 쉽게 찾아서 실시간으로 예약
 - 공간 이용의 편의성 증대를 통해 이용률을 높임
- 주요사례
 - 서울특별시공공서비스예약 : <http://yeyak.seoul.go.kr/main.web>
 - * 공공 공유공간 예약 시스템
 - 시민청 : <http://www.seoulcitizenshall.kr>
 - * 다수의 공간을 시간대별로 세분화하여 대관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시스템



[그림 4-4] 서울특별시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

- 서울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공포(2012.05.02.)

3. 공유 플랫폼 확산

○플랫폼 DB연계 정보 제공

- 기본방향
 - 플랫폼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IOT 기술을 접목한 형태의 오프라인 설치형 디지털 안내·예약·홍보 기기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공간 이용자의 접근성 확보 및 빅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및 수집 양방향 활용
- 운영형태
 - 버스정류장, 지하철 등 공공 대기 공간에 플랫폼 DB 연동 스크린 설치
 - 중·고등학교, 대학교 캠퍼스 내 플랫폼 DB 연동형 키오스크 설치
- 주요 내용
 - 플랫폼 내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간 예약 키오스크형 기기 설치
 - 플랫폼 내 빅데이터 기반 문화예술공동체 활동 정보 제공 스크린 설치
 - 플랫폼 내 빅데이터 + 외부 데이터 연계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보 제공
- 세부내용
 - 플랫폼 내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간 예약 키오스크형 기기 설치
 - : 이용 인원/형태/시간 정보를 선택하면 조건에 충족하는 공간을 우선순위로 목록화하여 보여주고, 예약부터 결제는 물론 해당 공간에서 이용했던 사례 및 활용 매뉴얼까지 원스톱 무인 시스템으로 진행
 - : 공동체 유형/주요활동 지역/주요활동 시간 정보를 선택하면 맞춤형 공동체 목록을 제공하고 공동체의 가입부터 활동을 위한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물품이 필요할 경우 관련 물품의 구매까지 연결
 - 플랫폼 내 빅데이터 기반 문화예술공동체 활동 정보 제공 스크린 설치
 - : 플랫폼 내 축적된 문화예술공동체의 활동 자료를 기반으로 통신사 유동 인구 연령대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매칭하여 맞춤형 홍보 영상 노출

○기대효과

-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와 활용 공간 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상승 및 참여율 증가

제5장

제언

제 1절 종합의견

제 2절 사회적경제의 확산

1. 공유경제와 공간의 재발견
2. 온라인플랫폼과 IOT

제5장 제언

제 1절 종합의견

성남에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의 조성이 필요한 이유는 일상적인 보행이나 비교적 느린 속도의 이동수단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상생활 속에 위치하여, 지역의 주민·동호회·커뮤니티 누구나가 문화예술 교육·창작·향유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물리적 공간의 확충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러한 물리적 공간의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며 상업적 공간과 비상업적 공간 역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의 확장이 필요하다.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가 활동하는 모든 공간은 모두 공공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공공의 공간은 기본적으로 안전과 위생, 보안과 기본적 편의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공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공간이 확장될 수 있도록 그 방법에 대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확장된 공간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통해 보완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생활밀착형 공간, 열린 공간

본 연구를 통하여 분석된 여러 시사점 중 각 행정동의 물리적 환경과 문화공간의 운영상황을 감안했을 때 지역구별로 감안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물리적, 환경적 특수성이 다름에도 전체 지역구가 동일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는 특정 연령대(20대, 30대)의 이용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이와 연관될 수 있는 공간의 요소 중 운영시간을 살펴보면 다수의 공간이 동일한 운영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간의 주 이용자층을 보면 20~30대의 이용률이 전체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중원구 경우는 그 중에서도 더욱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5-1] 기관/단체 공간 이용 주 연령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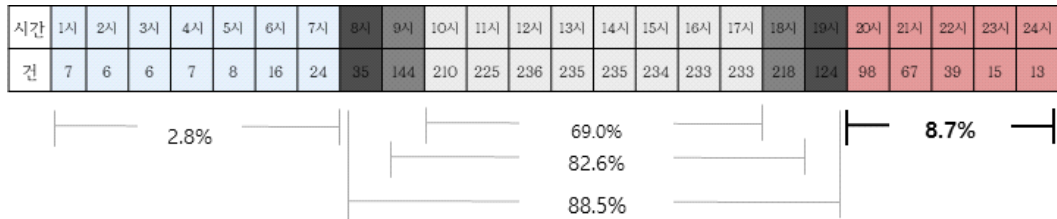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전체
전연령	41.2%	46.4%	58.2%	49.2%
10세이하	20.0%	21.7%	15.3%	18.7%
10대	34.1%	33.3%	21.4%	29.00%
20대	9.4%	7.2%	8.2%	8.3%
30대	8.2%	7.2%	16.3%	11.1%
40대	12.9%	17.4%	21.4%	17.5%
50대	18.8%	20.3%	14.3%	17.8%
60세 이상	18.8%	17.4%	10.2%	15.1%

성남의 인구 비율과 이용률을 비교해 보아도 20~30대의 이용률이 인구 비율 대비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2] 인구 비율과 이용률

성남시	인구 비율	이용비율 (전체연령 제외)
10세이하	7.8%	18.7%
10대	9.9%	29.0%
20대	14.1%	8.3%
30대	15.1%	11.1%
40대	17.2%	17.5%
50대	16.5%	17.8%
60세 이상	19.5%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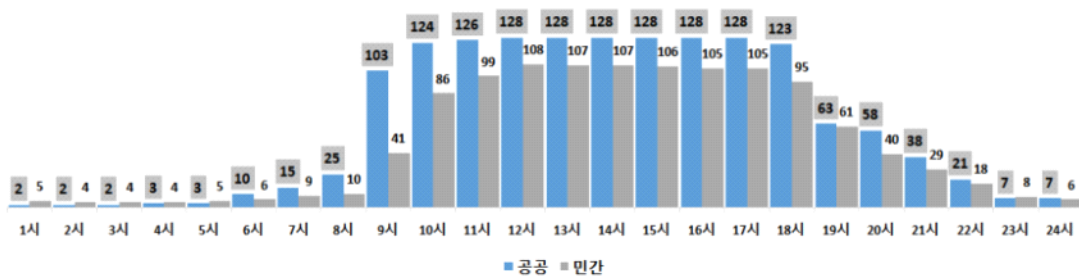
이는 공간의 운영시간대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공간 80% 이상이 9시~18시 사이에만 운영되고 있다. 8시 이전은 2.8%, 19시 이후는 8.7%의 공간이 운영되고 있다.



[그림 5-1] 운영기관 전체 운영시간 비율

20~30대의 경우 다수가 9시~18시까지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시간 전·후 1시간은 활동을 위한 준비와 이동 시간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20~30대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경제활동시간 이외의 시간대에 운영되는 공간의 비율은 약 10% 정도뿐이다.

18시 이후 이용 가능한 공간을 보면 공공/민간유형 모두 크게 감소한다. 하지만, 민간유형의 문화공간이 공공유형의 문화공간보다 상대적으로 더 유연하게 운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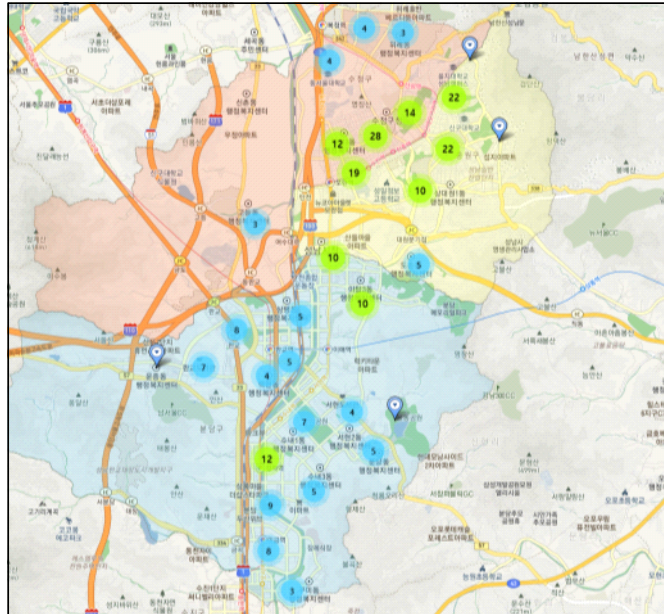


[그림 5-2] 운영 구분별 기관/단체 일일 운영시간

다른 연령대의 이용자를 늘려 가는 것 또한 운영시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생활밀착형 공간을 위해서는 지역별 공간 확보와 함께 이용자가 이용 가능한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의 확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활밀착형 공간이란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 가능한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발적 참여의 촉매, 기본에 충실한 지원

일상적인 보행이나 비교적 느린 속도의 이동수단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간을 위해서는 매우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아파트단지, 개인 작업실, 종교 시설 등 매우 다양한 공간의 참여가 필요하다. 기존 광역 거점형 문화공간을 통한 운영이 아닌 점조직 형태의 문화공간들이 필요하다. 더불어 변해가는 생활형태에 대응하는 폭



[그림 5-3]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통한 공간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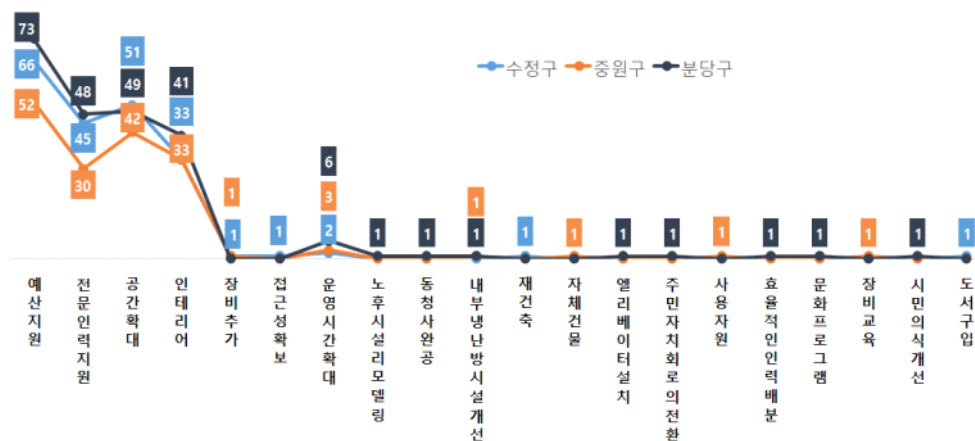
넓은 이용시간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공간 운영자의 희생만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날에도 공간을 관리할 인력의 유지 방안은 큰 화두로 여겨진다. 다수의 공간이 운영 인력의 부족으로 운영시간에 제약을 받게 되는데 운영인력의 필요성은 그 공간의 기본적인 관리에 있다. 기본적인 관리란 구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관리. 즉, 여러 가지 자산의 보안과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 크다. 더불어 공간 이용에 대한 안내와 관련된 부분 역시 크게 작용한다. 이러한 부분의 지원 없이는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기본에 충실한 자발적 참여의 독려 방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IOT 기술을 활용한 사례에서 그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IOT 기술은 그동안 운영자가 상주하면서 공간을 관리해야만 하는 상황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보여진다. 그 예시로 최근 변화하고 있는 편의점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과거 판매원이 항시 상주하였지만, 지금은 IOT 기술을 접목하여 무인편의점으로 운영되는 매장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무인시스템은 비단 IOT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기술과 더불어 시민 의식의 성장은 물론 기술에 대한 인

식의 성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기존 공동체 공간도 공간의 운영인력에 의존했던 부분에 보완시설을 지원하여 관리 효율을 높이고, 운영주체에게는 관리에 대한 신뢰와 인력에 대해서 시간의 자유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면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과 함께 자발적 참여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결을 위한 고리, 새로운 방식의 참여

문화예술공동체 공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주체인 공동체의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공간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문을 보면 예산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전문인력 지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5-4] 지역구별 독립형 건물 유형의 공간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1~3순위

연구를 위한 현장 인터뷰에서도 전문인력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문화공간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전문인력의 부족, 실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전문인력의 지원 및 컨설팅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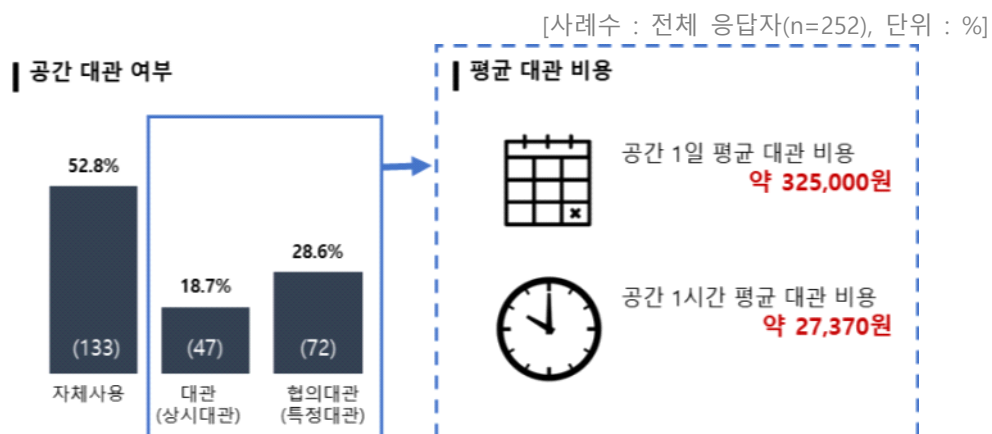
(중원구-섬마을공동체 인터뷰 중)

전문인력은 단순히 문화예술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공동체와 공간을 연결하고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주체의 역할을 지원할 것이다. 이것은 서로 다른 공동체와의 교류를 추진하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문인력은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매개의 방식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공간의 특성을 파악하고 공동체가 필요한 공간을 전문적으로 매개해 줄 수도 있으며,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로 할 때 공동체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 할 수도 있으며, 전문적 교육이 필요한 곳에서 교육을 통한 매개도 가능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직군 발굴을 통한 창직(job creation)형 매개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문화예술공동체에서 전문인력이란 어떠한 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연결을 형성하고, 연속적으로 새로운 방식의 전문인력의 연계를 촉진하는 가능성을 지닌 구성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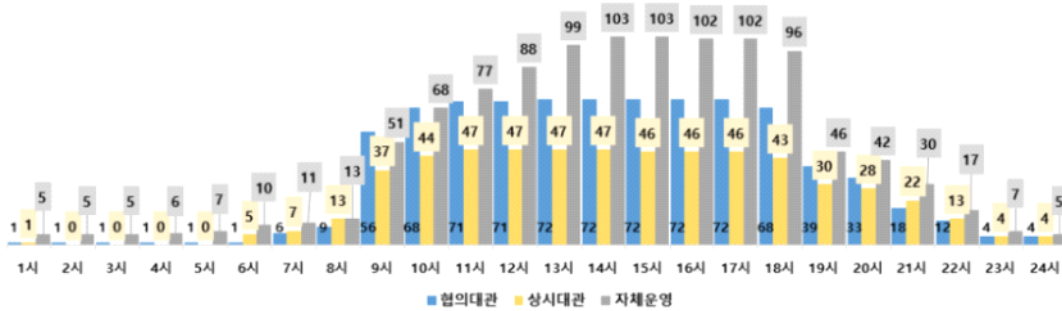
공유자원을 위한, 공유 시스템

공간의 대관 현황을 보면 다수의 공간이 자체사용을 하고 있다. 조사된 공간에서 상시대관을 진행하는 곳은 20% 미만이며 협의대관을 모두 포함하여도 50%에 미치지 못한다.



[그림 5-5] 공간 대관여부(유형)

자체운영되는 공간의 경우 공간의 유희시간을 활용하여 이용자를 확대할 수 있다면 공동체와 공간 활성화에 많은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 예측된다. 대관유형별 운영시간을 보면 자체운영되는 공간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5-6] 대관여부(유형)별 기관/단체 일일 운영시간

이러한 공간의 참여를 위해서는 해당 공간을 공유경제의 개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공유경제란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가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운영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협력소비를 통하여 자원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 이용자의 가성비를 끌어 올리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수의 이용자가 하나의 시스템을 통하여 자원을 확인하고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의 시스템 영역에서 공유자원을 가진 사람과 이용자를 연결해 준다면 다자간 신뢰를 구축하고 교류하는데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우선적으로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대관시스템부터 창작과 교육 활동에 필요한 물품으로 그리고, 이동과 관련된 주차 자원까지 그 폭을 확대한다면 매우 유용한 공유경제 시스템이 될 것이다.

재정적지원의 한계, 지식정보 플랫폼의 활용

시민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보의 공유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이다. 공간에 대한 인지, 안내, 홍보 등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정보가 시민 스스로 참여하여 문화예술공동체의 콘텐츠를 자생적으로 생성 및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정보의 공유를 넘어 재정적 지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조사를 통해 다수의 공간이 전문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관관리 시스템과 도서관리 시스템을 제외한다면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무하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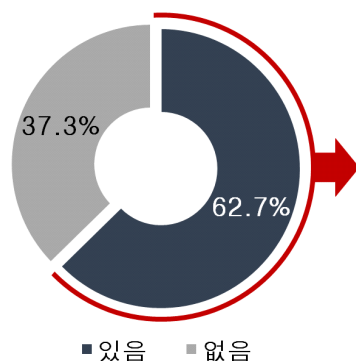
- 대관관리 시스템은 가장 많이 보유한 운영 시스템으로 나타났는데, 공공유형 문화공간에서 상대적으로 큰 비율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 한편 도서대출 반납 등 도서관리 시스템은 민간유형 문화공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7] 운영 시스템 보유 현황

홍보와 관련해서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데, 다수의 공간에서는 자체 홈페이지 보다는 SNS를 활용한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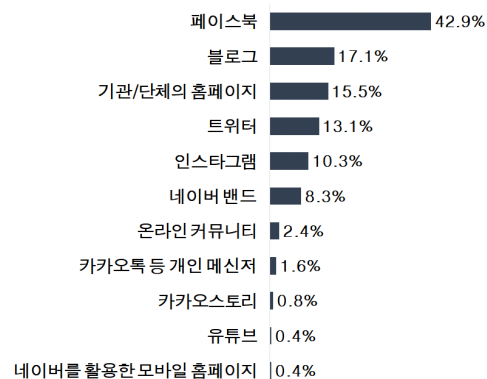
■ 운영 관련 홍보채널 보유 여부



[그림 5-8] 운영 관련 홍보채널 보유여부

[사례수 : 전체 응답자(n=252), 단위 : %]

■ 기관/단체 운영 관련 홍보채널



SNS의 경우 홍보채널로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정보의 환류 부분에서는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플랫폼은 수집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가공, 분석, 유통함으로써 기존에 공간 운영주체가 감당해야 했던 수많은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커뮤니티(문화예술공동체)가 있는 플랫폼의 정보는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바로 정보 환류를 통한 가치의 증대이다. 예를 들어, 공동체의 활동 콘텐츠는 처음 공동체를 접하는 이용자에게는 안내 콘텐츠로 활용되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이용자에게는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다. 인물, 단체, 공간, 그리고 다양한 기록물 등은 유형, 무형의 공유자원을 연결해주고 그 정보의 양에 따라 공유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게 될 것이다. 그 속도만큼 재정적 지원의 규모는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즐기는 시민, 판을 만드는 공간

공동체는 자기만족적 활동을 위해 모인 모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기에 문화예술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원의 형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보조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이 된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이는 자생적이어야 할 문화예술공동체를 의존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는 자발적인 참여가 모여 구성되고 운영되어 지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인데, 이들에게 보조금이나 단순한 운영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이 초기에는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실패로 귀결하게 될 우려가 크다. 문화재단이나 지자체는 직접지원을 지향하기 보다는 궁극적으로 이들이 함께 모여 교류할 수 있는 축제의 판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축제의 판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준다면 시민들은 그 모든 것을 즐기는데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절 사회적경제의 확산

2014년 11월 서울에서 서울시와 GSEF¹⁸⁾ 2014 서울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창립총회 및 포럼(2014 Inaugural Meeting of the Global Social Economy Forum; GSEF 2014)이 열렸다. GSEF 2014에서 사회적경제는 양극화를 재생산하는 낡은 사회경제패러다임에서 공동체가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는 물론, 경쟁을 넘어서는 연대의 삶을 지향하는 우리 모두의 윤리적 가치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포럼의 중심주제 5가지 중 ‘도시재생’으로서 ‘무분별한 도시재개발이 아닌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동체 만들기’의 주제가 선정되었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드러난 한계와 문제를 보완하려는 대안으로 공동체의 회복과 협력을 중심으로 가치창출을 지향하는 경제라 할 수 있다.

1. 공유경제와 공간의 재발견

1)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확산

최근 공유경제¹⁹⁾는 우리의 사회와 일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자신 집의 공간(room)을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는 에어비엔비(Airbnb)는 특정 하나의 사례가 아닌 우리 일상의 부분이다. 이러한 유희자원을 이용한 공유서비스는 평범한 소비양식 중 하나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공유경제는 기술발전으로 가능해 졌는데 소셜네트워크와 온라인플랫폼, 그리고 IT기술의 발전으로 폭넓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IOT(사물인터넷)의 등장은 공유경제 영역의 한계를 무너트리고 있다.

18) GSEF(Global Social Economy Forum)는 서울시 주도로 결성된 세계 사회적경제협의체로 국제적 연대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기존 경제발전 모델의 한계와 문제의 해결을 논의하는 사회적경제 유일의 국제 네트워킹 플랫폼이다. 2018년에는 세계 80여 개국 1700여 명의 도시정부 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라현운. (2018.06.05.). “세계 사회적경제인들 한 자리에 ‘GSEF 2018’개막”. 이로운넷. <https://blog.naver.com/erounnet/221370681257>).

19)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조례 제2816호)’에서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로런스 레식(Lawrence Lessig)교수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다. 하나의 재화(상품)을 여러 명이 공유하거나 나누어 사용하는 협력소비의 형태를 말한다. 기존 경제시스템 속에서 2000년대 세계 경제위기로 저성장, 소득저하, 환경오염 등의 여러 사회문제의 대안으로 과소비를 줄이고 합리적 소비형태가 주목받으며 사회운동의 형태를 보였다.

공유경제는 ‘생산자-(거래)-소비자’의 거래 프로세스에서 ‘소비자-(공유)-소비자’의 새로운 거래구조를 보이는데, 필요한 재화(상품)을 제공받는 소비자이자 동시에 유희재화(상품)을 다시 제공하는 공유거래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물물교환이나 중고거래 등 고전적 양식의 경제 수혜성과 유사한데 유희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화폐 및 온라인플랫폼의 도구가 적용된 새로운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유경제는 재화(상품)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지만 최근 기술발전을 배경으로 서비스나 다른 무형의 범주까지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 공유경제는 경제적 수혜성을 기대하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가치창출의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유를 통하여 불특정 분야와 장르 간 접촉이 형성되고 혁신적 시너지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때론 이런 협동의 시너지효과를 목적으로 공유의 형태가 이용되는 것이다.

도시 내 다양한 공간들도 공유경제의 범주로 들어오게 되었다. 도시 내 공간에 공유의 개념이 접목된 대표적인 초기형태는 코워킹스페이스(co-working space)²⁰⁾가 있다. 코워킹스페이스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독립적 작업을 하는 동시에 서로 아이디어 공유, 기술적 융복합 등 협력 시너지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공유의 형태이다. 이런 공간공유를 통해 불특정 다수와 협력시너지를 구성할 수도 있으며 사무기기 및 업무공간까지 공유하므로 부가적 유지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20) 코워킹(co-working)의 개념은 1999년 Bernie Dekowen에 의해 처음 사용된 용어로 ‘같이 모여서 함께 일한다’의 뜻이다. 2005년 샌프란시스코 Hat Factory를 그 시작으로 보고 있는데 프리랜서 엔지니어로 활동하던 세명이 함께 작업을 하면서 낮 시간에 공간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집을 사용하도록 개방한 것을 모델로 보고 있다(서종석 외, 2015). 일반적으로 코워킹스페이스(co-working space)는 공유경제의 시점으로 사용되기보다, 업무공간공유로 형성되는 협업과 시너지 효과 중심으로 1인 창업과 창조기업, 혁신적 아이디어의 개념으로 함께 거론 된다.

최근에는 공유경제는 우리의 일상 속으로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데, 공간공유의 형태와 범주가 다양화되고 있다. 사용하지 않는 빈 방, 창고, 낮에는 비어있는 아파트나 주택가의 주차장, 공공시설, 개인공간과 사무실까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유되는 단위가 시간단위까지 분화되어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 공간의 공유유형은 크게 5가지 범주로 분류되고 있는데 ‘(a)주택 공유, (b)사무실 공유, (c)주차장 공유, (d)공공시설 공유, (e)기타 유휴공간의 공유’ 이다.

‘(a)주택 공유’ 는 빈집이나 빈방을 공유하는 것으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형태와 하나의 주택을 여러 명이 협동가사를 하며 함께 거주하는 것이다. ‘(b)사무실 공유’ 는 구성원 각자가 독립적 공간을 사용하면서 회의실과, 책상, 팩스, 프린터 등 기타 사무도구와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와 개방된 사무공간을 공유하는 코워킹스페이스의 형태가 있다. 이러한 형태는 시간단위에서 월단위까지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으며, 공공에서 창업보육 및 기타 지원 시스템을 함께 구성되기도 한다. ‘(c)주차장 공유’ 는 낮에 비어있는 주차장의 정보를 플랫폼을 구축하여 실시간 제공하여 활용하는 형태가 주를 이룬다. 대도시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공공영역에서 더 활발하게 논의된다. 특히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낮에 비어있는 넓은 공간을 문화행사나 공동체 활동 용도로 제공하기도 한다. ‘(d)공공시설 공유’ 의 형태는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형태 중 하나이다. 유휴상태인 공공서비스시설을 시민에게 적은 비용으로 대여하는 형태로 공공건물의 회의실, 공연장, 발표장, 도서관, 주민센터, 체육시설, 학교²¹⁾, 운동장 등이 대상이 된다. 주로 문화, 예술, 체육 활동과 공동체 커뮤니티의 목적으로 활용된다.

‘(e)기타 유휴공간의 공유’ 는 개인 공간, 가게, 독서실, 카페, 텃밭, 창작 공간 등 민간영역에서 다양한 형태가 공유되고 있는데 그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런 현황은 자주적인 커뮤니티나, 문화활동 및 교육 등 협동에 기반한 지역공동체의 활동을 촉진하는 경향이 보여 지고 있다(김은란 외, 2015).

21) 본 연구에서 공유경제의 개념을 학교공간에 접목할 때 활용의 측면에서 구분이 필요하다. 유휴공간으로서 폐교나 폐건물을 리모델링을 통해 다른 목적의 공간으로 재창조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사용이 되지 않는 유휴공간/시설을 활용하는 형태와 사용되고 있는 공간의 유휴시간을 활용하여 공유하는 형태 간 공간의 활용 측면에서 구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로 도시 내 공간이 다양한 형태로 공유되고 영역이 확대되면서 도시 공간의 활용성은 여러 제약들을 벗어내고 무궁무진하게 증대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공간공유는 도시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 뿐 아니라 도시재생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으로 거론되고 있다.

2) 공간의 재발견

공유경제의 촉발로 유휴공간자원과 공간공유에 대한 개념이 최근 주목되면서 현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에서 사회적경제를 배경으로 공유경제와 공유자원의 활용안 구축과 적용을 선구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몇몇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지역 도시재생의 측면에서 공유공동체의 개념을 접목하여 다양한 가능성이 이야기되고 있다. 특히 마을단위의 공유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이 논의되는데, 지역 주민의 자주적 활동을 촉발하여 지속가능한 공유경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공유경제의 모형은 별도의 산업단지 건설이나 인프라 투자보다는 기존 자원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도심 활성화 전략이나 쇠락한 산업도시의 지역재생 발전전략으로서 안정적이며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김은란 외, 2015. p.127).

[그림 5-9] 도시재생과 연계한 지역기반 공유공동체 모델



※ 김은란 외. (2015). 「공유경제 기반의 도시공간 활용 제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128p.

이러한 공유경제는 최근 문화정책의 흐름에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미 시민들은 생활문화를 배경으로 자주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구성원은 자주적으로 특정 목적이나 부족한 무언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하여 필요한 공간이나 재능, 인적자원 등을 활용하는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공유경제의 측면은 지역이 가진 인프라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간공유가 주목되고 있는데, 공간공유를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 회복의 사례가 많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지역공동체나 아파트공동체 회복에 대한 연구에서 논거 된다. 공동체를 하나로 접속시키는 것은 공유된 언어보다 공간을 중심으로 하며 이것은 서로 간 네트워크를 형성시키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문화적인 공동행위로 이루어진 경험은 심리적 소속감을 형성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양소영 외, 2018).

이러한 공유경제는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성’ 측면에서 경제적/사회적인 조건에서 실현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간에서의 문화공간공유의 생태계가 정착된다면 문화공동체와 공유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인적자원이 접속되어, 분야 간 협업 활동 형성의 기회를 창출하고 나아가 새로운 혁신적 문화 아이디어가 실현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온라인플랫폼과 IOT

공유경제의 성장²²⁾과 확대는 기술의 발전이 뒷받침 되고 있기 때문인데, 공유경제를 가능하게 한 핵심 기술이 바로 온라인플랫폼이다. 온라인플랫폼은 시장진입을 위한 전통적 매커니즘에 들어가거나 독자적 플랫폼을 보유하지 않아도 누구나 소비자를 만나 재화(상품)이나 서비스, 콘텐츠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2) 공유경제의 규모는 2015년 기준 전세계적으로 150억 달러(약 18조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80% 이상 성장하고 있다(양소영 외, 2018, p.349).

온라인플랫폼은 먼저 1인 기업을 활성화 시키며, 개개인의 사회·경제적 파급력을 확대시켰다. 소비자가 소비자이자 생산자, 제공자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경제적 창출을 발생하는 유·무형의 제품의 범주가 폭발적으로 증가되었다.

공유자원 또한 이러한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다. 이미 민간영역에서는 유희공간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공유 플랫폼이 등장하여 많은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표 5-3] 유희공간 공유 플랫폼 형태

구분	공유사업명	공유자원	설립연도	서비스내용
다양한 유희공간과 이용자를 매개	스페이 쉼어	회의실, 상가, 사무실 등	2009	• 서울지역의 스튜디오, 회의실, 대관정보 등 각종 공간정보 제공
	스페이스 클라우드	집, 사무실, 회의실 등	2015	• 전국의 다양한 공간들을 빌릴 수 있는 공유공간 리스트 제공
	아이들랏 IdleLot	주택, 오피스, 상가, 강당, 주방 등	2012	• 대여가능한 공간이나 유희공간을 자체적으로 등록하여 그 공간들이 필요한 사람들과 연결시켜주는 온라인 서비스
특화된 영역의 유희공간과 이용자를 매개	처플	교회	2013	• 교회공간 활용과 관리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방법론을 제시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실행
	스토어 쉼어링	상가	2013	• 스토어쉐어링은 공간이 있는 가게와 공간이 필요한 디자인팀을 연결하여 공간을 함께 나누어 기존 소매점을 살리고, 제품의 판로 개척
	공독 Gongdok	독서실	2014	• 서울 전역 독서실의 빈자리를 찾아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
	코코팜스	텃밭 (주로 주말농장)	2014	• 유희농지를 가진 사람과 농사를 짓고 싶지만 땅이 없는 사람을 연결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기획	페어 스페이스	공공공간 등	2012	• 공간 재활용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사회적,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 • 페이스북을 통해 공간의 정보를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
	버스킹 플레이	거리, 건물공터	2014	• 건물 공터나 로비등을 거리공연자에게 제공하여 유희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재창조
	RESPACE	공공공간, 상가 등	2014	• 유희공간을 찾아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공유 공간 플랫폼 • 공유 공간속에서 공간 활용 증대를 위한 자체 기획 프로젝트 진행 중

※ 김은란 외. (2015). 「공유경제 기반의 도시공간 활용 제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111p.

이 외에도 수많은 유희공간 공유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다. 특징적으로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기획’ 구분이 눈에 띄는데, 이미 지역 커뮤니티나 문화공동체, 생활문화 모임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움직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공공분야에서도 이미 공유경제를 배경으로 유희공간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사회적 경제를 배경으로 공유경제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사례로 이야기된다. 현재 ‘서울특별시공공서비스예약’ 플랫폼을 통하여 유희공공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독립적인 ‘공유허브’²³⁾ 플랫폼을 운영한다. ‘공유허브’는 서울시의 공유정보와 공유기업/단체의 소개(홍보) 및 인증시스템을 운영한다. 특히 민간 기업과 단체의 공유경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도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서울시 공유자원 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유지도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의 가능성은 IOT(사물인터넷)으로 더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IOT는 다양한 공유자원을 실시간 정보수집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온라인플랫폼의 거래비용 제로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공유경제의 특징인 개인사용자 간 불특정 연결의 형태가 주는 위험요소(신용과 악용 등)가 존재하는데, 개인 간 거래실적이나 평판 데이터의 수집, 조회, 위치정보, 빅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요소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김은란, 2016). 특히 공간공유의 측면에서 큰 효과가 기대된다. 공간의 특성으로 공간유지, 장비관리, 보안문제 등의 측면에서 기존에 인력자원이 투입되어야 할 부분이 IOT의 기술의 접목으로 좀 더 자유로워 질 것이다.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은 물리적 한계를 낮출 수 있는 마을생활권이 고려되어야 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편하게 공간을 방문 및 이용하기 위해서 광역형 구성이 아닌 산발적 구성으로 주민의 생활 곳곳에 형성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23) 서울특별시 공유허브 <http://sharehub.kr>

오늘날 문화정책이 주목하는 방향과 지향하는 가치를 반영하고 생활문화와 문화예술공동체의 가능성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유경제와 온라인플랫폼, IOT 등 새로운 대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것은 단지 공간에 대한 정책적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공유공간을 중심으로 복합적 분야의 접촉형성을 시도하고 혁신적 활동의 창출, 그리고, 자주적 선순환체계의 확립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유경제도입은 생활밀착형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시공간적으로 분리된 유휴공간이 문화공동체로 연결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과 기반시설, 홍보 및 교육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장기적으로 하드웨어 부분에 투입되는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선순환적 활동을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에 좀 더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과 같다.

부록

참고자료 목록

참고자료

단행본

김세훈. 2017. 『도시에서 도시를 찾다』. 한숲.

연구보고서

김은란, 차미숙, 김상조, 박미선. (2015). 「공유경제 기반의 도시공간 활용 제고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고성영 외. (2013). 「성남시 생활예술공동체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중장기 (2014~2020) 발전계획 연구」. 성남문화재단

박지훈, 김영주 외. (2018). 「성남 생활문화정책평가 및 발전 방안」. 성남문화재단
백선희, 라도삼, 조윤정. (2016).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방안」. 서울연구원.

성남문화재단. (2006).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만들기 기본계획 연구」. 성남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2019). 「성남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사」. 성남문화재단.

손경년 외. (2013). 「생활 밀착형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컨설팅」. 부천문화재단
이상민, 엄운진. (2011). 「도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 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논문

강윤주, 심보선. (2013). 생활예술공동체 내 문화매개자의 역할 분석. 경제와 사회. 100, 335-373.

김동례, 박진영, 임형택. (2019). 마을만들기 참여도 및 관심도와 문화예술 인식도 및 참여도가 지역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10(2), 779-790

김은란. (2016). 유희공간 공유를 통한 도시의 재발견. Future Horizon. 39, 16-19.

김철중. (2017).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 디자인.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2(5), 155-163

남지현, 조희은. (2019). 일상에서 누리는 최소한의 복지, 생활SOC. 이슈&진단, 362, 1-27.

- 박수현, 김태영, 여관현. (2013). 문화마을만들기에서의 공동체의식 형성요인 연구-성남시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5(5), 207-230
- 박진영. 2014. 문화예술을 통한 학습공동체 형성의 전개과정. 평생교육학회. 20(3), 167-201
- 배채운. (2012).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 개념에 의한 문화예술공동체 연구. 문화예술경영학연구. 5(2), 39-62.
- 서운경. (2017). 시민 문화예술활동의 사회적 의미 고찰. 도시인문학연구. 9(1), 225-251
- 서종석, 고득영, 이근춘, 옥영석. (2015). 코워킹 및 코워킹스페이스 수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벤처창업연구. 10(5), 83-92.
- 양소영, 문정민. (2018). 공유경제 기반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아파트 유희공간 활용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3(6), 348-358
- 유지연. (2018). 생활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본 생활문화정책의 현황과 과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2(2), 105-142.
- 윤소영. (2014).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를 매개로 형성된 생활문화공동체활성화 사례 연구. 지역과 문화. 1(1), 43-60.
- 조광호, 이선영. (2017). 새 정부 도시재생 방향 : 문화의 도입 · 연계를 위한 정책과제. 문화 · 관광 인사이트. 99, 1-8.
- Mehaffy, M., Porta, S., Rofe, Y., & Salingaros, N. (2010). Urban nuclei and the geometry of streets: The 'emergent neighborhoods' model. *Urban Design International*, 15(1), 22-46.

학위논문

- 전경화. (2017). 문화공동체 프로슈머의 특성 분석 : 사랑방문화클럽 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문화융합대학원 문화융합학과.

기타자료

-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2019). <2020~2022 생활SOC 3개년계획>.
- 국토교통부. (2013).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및 세부시설 기준>.
- 기획재정부. (2018). <10대 지역밀착형 생활SOC 투자 확대>, 혁신성장회의의 안건.
- 문화관광부. (2006). <예술현장을 위한 역점 추진과제>.

성남문화재단. (2006). <예술, 태평동에서 노닐다>,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성남인의 창작진흥 워크숍- 자료.

성남문화재단. (2019).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개념>.

「지역문화진흥법」 [2014. 1. 28., 제정]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8. 11. 16., 제정]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2014. 11. 10., 제정]

웹사이트

<http://www.gsef2014.org/?lang=ko>(GSEF2014 홈페이지)

<http://www.seoulmaeul.org/>(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harehub.kr/>(서울시 공유허브 홈페이지)

<http://share.seongnam.go.kr/>(성남시 공유성남 홈페이지)

<https://www.seongnam.go.kr/mayor/main.do>(성남시 홈페이지)